KOTRA 자료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 7.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VEST KOREA
투자정보팀

요 약

터 키

강점
- 자동차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큼
- 저렴한 인건비로 유럽을 향한 수출 기지화 가능

약점
- 높은 인플레이션 및 테러 등 정치 경제 불안 요인
- 불투명한 행정 절차 등 과도한 행정비용

인 도

강점
- 자동차 내수시장 성장잠재력 큼
- BMW CKD 공장 기가동중 ('07설립)
- 높은 관세 회피 위해 현지공장 설립이 필수

약점
- 기본 인프라 취약
- 높은 부패율
-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

브 라 질

강점
-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내수시장
- BMW는 오토바이 CKD 공장 외에는 아직 중남미에 생산 거점이 없고,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 가치 높음

약점
- 조세 부담 등 높은 행정 지출 비용
- 치안 불안

러 시 아

강점
- 보호주의정책에 따른 현지생산 필요성 증대

약점
- 부패로 인한 행정 비용 증대
- 시위 및 테러 등 높은 정치 불안 요인
- 신 산업조립관련 법규에 따른 투자 계획 차질
- 모조부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취약

【Executive Summary】

<조사배경>

독일 B사의 신규 자동차공장설립 투자프로젝트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B사가 투자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터키,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 자동차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사함

<터키>

□ 자동차 산업 현황

○ (시장특성)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수출 기준 모두 터키 제1의 산업이나 차량 세금이 60~100% 이상으로 높고 유류비도 유럽 최고 수준

○ (시장규모) 연간 자동차 생산규모는 1백만대, 내수는 80만대 수준임

○ (수출입현황) 자동차 전체 생산량의 70~79%가 수출되며, 내수 수입차량 비중도 55~60%로 높음

○ (시장동향및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10년 이후 회복세. '09~'14년의 기간동안 CAGR 4.7% 성장 전망

○ (BMW진출현황) 터키내 생산 기지는 없으며 100% 수입. '10년 12천대 판매 (전체 수입차 시장 점유율 2.6% 차지)

○ (완성차업체) Fiat, Benz, Renault, Ford, Isuzu, Hundai 등이 JV, Toyota, Honda가 단독투자, Puegeot, Land Rover, Mitsubishi, Tata 등이 라이센스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아직 고유브랜드는 미보유

○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부품업체는 약 4천개사로 추정, 이중 Tier1이 4백개사, Tier2가 5백개사로 추정

□ 외국인투자유치지원

○ (투자환경) 96년 EU와의 관세동맹 발효, 낮은 임금, 풍부한 노동력, 유럽・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등의 이유로 EU 수출을 노리는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적합

○ (투자정책) 내외국 기업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신고제의 외국인직접투자법 시행중.

○ (투자지원내역) 자동차 분야에서 총투자 비용 최소 2억 5000만 TRY 이상인 경우 대규모 투자인센티브 혜택 향유 가능 (①법인세율 4~15% 적용 ②최대 5년간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 공제 ③국유지 할당 등)

- (일반인센티브) 투자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 장치 등에 대해 관세, 기금 및 부가세 면제

- (입지지원)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등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

○ (외국인투자동향) 대내FDI는 EU로 부터의 투자액이 대부분으로 '10년에는 76% 차지. 총FDI는 '08년 183억불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76억불, '10년 89억불 기록. 분야별로는 유틸리티 및 금융업이 58%로, 제조업 분야는 14%에 불과.

□ 기타

○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BMW로서는 수출을 통해 충분히 터키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터키내 생산시설설립은 생산비용 절감 면 외에는 그다지 메릿이 없음

○ 더욱이 BMW가 아직은 터키내 생산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판매법인 조차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향후 수년내 터키 내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터키 정부 및 언론에서도 BMW 생산공장 유치에 적극적 관심 표명 중임

<인도>

□ 자동차 산업 현황

○ (시장특성) 78%가 소형차 시장이나 지난 10년간 인도의 승용차 시장은 3배로 성장

○ (시장규모) 승용차 내수는 '09년 180만대, 생산은 216만대 규모

○ (수출입현황) 160%에 이르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완성차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고, 수출은 연 40만대 수준

○ (시장동향및전망) 인도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인해 인도 자동차시장은 급성장 전망이나, 주로 소형차의 생산거점화 추구. 인도의 고급승용차 시장은 아직 15,000대 수준('10 기준)으로 이중 BMW가 40%를 차지

○ (BMW진출현황) BMW는 이미 첸나이에 '07년 이후 연간 8천대 규모의 CKD 공장을 운영 중이고 판매법인도 보유. BMW는 2020년까지는 인도의 고급차 시장이 10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첸나이의 CKD (조립) 공장을 확대하거나 풀생산공장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 시기는 미정임

○ (완성차업체) Hyundai, Maruti Suzuki 외에 자국산 고유브랜드인 Tata, Mihndra ('11년 3월 쌍요자동차 인수) 등이 경쟁 중

○ (자동차부품시장) OEM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소싱이 활발하여 '10~'11년에는 260억 달러 기록 전망

□ 외국인투자유치지원

○ (투자환경) '10년도 세계 2위의 FDI 유치국이고 투자매력도 5위를 기록하였으나 (UNCTAD), 기본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의 문제점은 지속

○ (투자정책) 현재는 자동승인제도 위주로 운영 중이며, 산업허가제 및 외국인투자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 노력 중

○ (투자지원내역) 특별경제구역 혹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 입주 기업 상대로 각종 조세 혜택 부여. 수출전용기업은 입지에 상관없이 관세 면제. 그 외 주정부 차원에서 부지공급, 지방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동향) ①생산기지로서 편리함 ②R&D 연구능력 ③친환경차 개발능력 등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 FDI 확대 추세. Hyundai, GM, Toyota, Daimler 등도 금년 들어 인도 추가 투자계획 발표 혹은 추진 중으로 자동차 분야의 인도진출 러쉬 지속 전망

□ 기타

○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고급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고관세 회피 위해 인도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BMW도 인도내 생산시설 설립 필요 예상

○ 다만 BMW의 첸나이공장 업그레이드는 신규공장설립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브라질>

□ 자동차 산업 현황

○ (시장특성) Fiat, VW, GM, Ford가 빅4로 시장의 80% 차지. 에탄올과 가솔린 모두 사용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차량이 주로 팔리는 것이 특징 (점유율 82%)

○ (시장규모) 승용차 연간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220만대 수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시장 형성

○ (수출입현황) 빠른 경제성장과 헤알화 강세로 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여 '11년에는 108만대 수입 전망. 수출도 올해 98만대로 크게 성장 전망.

○ (시장동향및전망) 지난 해 생산량(364만대) 및 판매량(352만대) 모두 신기록을 달성하며 호황. 저가 중국산 자동차의 대거진출로 말마임아 특히 중소형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15년까지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Anfavea)

○ (BMW진출현황) BMW는 브라질의 Manaus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합작생산 중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중남미에는 아직 자동차 생산 혹은 조립 공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에 SKD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Just-auto.com, 7.1.). '10년 BMW 수입량은 8401대.

○ (완성차업체) Fiat, Ford, GM, Honda, Toyota, Renault, Peugeot-Citroën이 조업 중이고 최근 기존 업체 외에 Mitsubishi, Hyundai, Cherry 등에 의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인 등, 외국 업체들의 진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음

○ (자동차부품시장) 부품업체의 30% 가량이 외국자본으로 설립. 특히 Tier1의 경우 대부분이 100% 외국자본으로 설립. '10년 자동차 부품 매출액은 약 500억 달러 기록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 조합 회원사가 약 5백개사 존재

□ 외국인투자유치지원

○ (투자환경) 인구 및 면적 면에서 세계 5위 대국으로 FTA를 활용한 남미진출 거점 이점이 있고, 제조업 기반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임

○ (투자정책) 원칙적으로는 내외국 기업 차별없이 개방적 투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하여 주별 정책이 다름

○ (투자지원내역) 시 정부 차원에서 토지 무상 임대, 부지 기본 인프라 건설, 각종 세제지원 등 제공

○ (외국인투자동향) 자동차 분야에서만 '10년 이래 Fiat, Mitsubishi, Peugeot-Citroen, Cherry 등이 단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표하는 등 투자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10년 FDI는 485억불의 사상최고치 기록. 그 중 약 170억불이 중국자본이 차지

□ 기타

○ 벤츠, 아우디 등 경쟁사에 대비 브라질 시장내 진출이 뒤진 BMW로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브라질 및 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브라질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러시아>

□ 자동차 산업 현황

○ (시장특성) 금융위기 이전인 '08년에는 독일에 이은 유럽 2위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09년 시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10년 이후 회복세

○ (시장규모) 지난해 판매량 190만대로 세계 10위권. 러시아내 생산되는 외제 승용차의 비중은 34% 수준으로 증가

○ (수출입현황) 승용차 수입은 지난 해 69만대, 114억 달러 수준. 승용차 수출은 '10년 약 4만3천대에 불과

○ (시장동향및전망) '11년 1~4월 들어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여 75만대를 기록하는 등, '13년 경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14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판매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BMW진출현황) BMW는 칼리닌그라드 특별경제구역에 소재한 Avtotor사를 통해 SKD 방식으로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부품수입 관세 감면 수혜 중. '10년에는 10,359대 생산하였으며, 판매는 20,584대 기록

○ (완성차업체) AvtoVaz, GAZ, Avtotor, Avtoframos, Sollers, Tagaz 등의 자국산 브랜드 외에 GM, Ford, Peugeot-Citroën/Mitsubishi, Toyota, Nissan, Hyundai, VW 등의 외산 브랜드가 현지 생산중임

○ (자동차부품시장) 러시아의 자동차는 노후화되어 부품 교체 수요가 많음. '10년 자동차 부품 시장은 1,2차 시장을 합하여 약 300억 달러 수준임. 그러나 모조품, 유사품의 점유율이 문제로 대두

□ 외국인투자유치지원

○ (투자환경) ‘10년 부패지수 154위/178개국, 국가별 투자 리스크 186위/196개국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환경 열악

○ (투자정책)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추구 중이나, 이와는 상관 없이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 장벽 지속

○ (투자지원내역) 연방 차원에서는 특별경제구역과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 입주기업 상대로 각종 세제 및 임대료 감면 혜택 부여

- (자동차산업) 노후차량 신차교체 보조금 제도 실시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성장 뒷받침

○ (외국인투자동향) ‘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10년에는 138억불 기록. 주요투자산업은 유통, 소매업, 제조업, 자원개발, 교통 및 통신 분야로 자동차 등 기계조립은 유망 투자분야로 꼽힘. 자동차 분야에서는 Fiat, Peugoet-Citroen/Mitsubishi, Volvo, VW, GM, Toyota, Nissan, Ford, Suzuki, Hyundai 등이 진출해 있음.

□ 기타

○ 러시아 정부는 ‘10년 12월에 “Decree 166”을 발표, 외국인 투자가를 상대로 현지 생산, 부품 조달 등을 조건으로 부품 수입시 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함. 이를 수락하면 협정 체결후 4년내 30만대 이상 생산, 6년내 60% 이상 부품 현지조달, 러시아내 R&D센터 설립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8년간 수입 부품에 대해 관세 혜택 등을 부여키로 함. 현재 동협정을 체결키로 한 회사는 르노-닛산/AvtoVAZ, KamAZ/벤츠, 포드-Sollers, VW/GAZ, GM, 피아트, Magna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BMW의 참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러시아내 대량생산, 현지조달을 요구하는 “Decree 166"도 현재 시점에서는 BMW의 생산 거점 설립 계획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주요 지표 (2009년)]

구분	한국	터키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구(백만)	49	75	1,198	194	141
1대당 인구	2.8	7.1	72	6.5	3.6
GDP (Bil.US$)	834	615	1,281	1,573	1,229
GDP Per Capita($)	16,860	8,723	1,100	8,094	8,693
GDP Growth(%)	0.3	△4.7	6.8	△0.2	△7.9
승용차 내수(천대)	1,175	365	1,815	2,475	1,466
승용차 생산(천대)	3,158	511	2,161	2,575	596
승용차 수출(천대)	2,007	389	409	374	41
BMW 생산법인	×	×	CKD*	CKD(2륜)	SKD**
BMW 판매법인	○	×	○	○	○
조업중 완성차 업체	현대, 기아, 쌍용, 삼성-르노, GM 등	포드, 혼다, 현대, 벤츠, 르노, 도요타 등	현대, 스즈키, 타타, 마힌드라 등	현대, 피아트, 포드, GM, 혼다, 도요타, 르노, 푸조 등	GM, 포드, 푸조-씨트로엥-미츠비시, 도요타, 닛산, 현대, VW 외 로컬메이커 등
대내FDI(M.US$)	5,844	7,611	34,613	25,949	38,722

자료원: KAMA, IMF 및 BMW 홈페이지 등 취합.

※ 상기 통계는 기준 혹은 시점상의 차이로 본문상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CKD: Complete Knock-Down (부품 수출・현지 조립 생산 방식)

** SKD: Semi Knock-Down (반제품 수출・현지 조립 생산 방식)

목 차

I. 터키

1. 터키 자동차 산업 현황 ····· 1
2. 터키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16
3. 기타 ····· 38

II. 인도

1. 인도 자동차 산업 현황 ····· 39
2. 인도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44
3. 기타 ····· 60

III. 브라질

1. 브라질 자동차 산업 현황 ····· 61
2. 브라질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81

Ⅳ. 러시아

1. 러시아 자동차 산업 현황 ····· 107
2. 러시아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131
3. 기타 ····· 146

I. 터키

1. 터키 자동차 산업 현황

□ 완성차 산업

○ 시장 특성

- 터키 자동차 산업은 1950년대부터 포드, 르노, 피아트 등의 글로벌 기업의 기술 제공을 통해 생산을 시작함

- 이후 터키 자동차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11년 현재 터키 제1의 산업 부문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터키 자동차 산업은 크게 2가지 요인에 힘입어 크게 발전함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 구매력의 증가
  * 96년 EU와의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수출입의 확대

-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형 버스, 트랙터를 제외하고는 아직 순수 자국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 높은 세금 및 유류 가격
  * 1,600 cc 이하의 차량의 세전 가격 대비 세금은 60% 수준이며, 1,600 cc 이상의 경우 100%를 초과함
  * 유류대 가격이 유럽 최고 수준으로 2011년 5월 현재 리터당 U$ 2.7 수준임 (휘발유 기준)

○ 시장 규모

- 터키 자동차 산업의 연간 생산 규모는 1백만대 수준이며, 내수 판매 규모는 연간 80만대 수준임

- 터키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CAGR 14.3% 증가를 기록했고, 이 중 약 85%는 4대 메이커(Ford Otosan, Oyak Renault, Tofas-Fiat, Toyota)가 차지함

[터키 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

<단위: 대>

구분	2007	2008	2009	2010
생산	1,099,413	1,147,110	869,605	1,094,557
내수판매	634,206	526,544	575,865	793,172

자료원: 터키자동차협회(OSD)

- 터키에는 자국 내 생산이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내수 판매에서 수입차량의 비중이 55%~60%로 높은 수준임

[터키 자동차 내수 시장 현황]

<단위: 대>

구분	2007	2008	2009	2010
로컬생산 판매	278,454	220,457	261,948	327,764
수입차량 판매	355,752	306,087	313,917	465,408
수입차량 비중	56%	58%	55%	59%
합계	634,206	526,544	575,865	793,172

자료원: 터키자동차협회(OSD)

- 2009년 인구 천명당 승용차 보유 대수는 104대로서, 독일/프랑스 등 주요 유럽 선진국의 500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인구 천명당 승용차 보유 대수는 2003~2009년 CAGR 7.1%의 증가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체 가구의 75%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터키 승용차 보유 비율 현황(인구 천 명 당)]

<단위: 대>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유대수	69	78	83	87	91	95	104

자료원: EIU

[터키 승용차 시장 특성(2010) - 배기량]

<단위: 대>

	1600 cc 이상	1600 cc 이하
배기량	9%	91%

자료원: 터키자동차협회(OSD)

[터키 승용차 시장 특성(2010) - 연료]

<단위: 대>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
연료	46%	54%

자료원: 터키자동차협회(OSD)

○ **수출입 현황**

- 터키 자동차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약 70%~79%가 수출되며, 주요 시장은 EU 시장임

- 터키 자동차산업은 2009년 169억불의 수출을 기록, 터키 전체 수출의 17.4%를 차지하여 제1의 수출 산업임

-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메이저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따라 터키 공장이 인근 지역에 대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96년 체결된 EU와의 관세동맹 이후 가속화 됨

[터키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대>

	2007	2008	2009	2010
수출	818,349	910,270	628,970	763,670
생산	1,099,413	1,147,110	869,605	1,094,557
수출비중	74%	79%	72%	70%

자료원: 터키자동차협회(OSD)

○ **최근 시장 동향**

- 터키 자동차 산업은 2002년 이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다가, 2007~2008년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09년3월~9월의 6개월 기간 동안 특별소비세(SCT)를 감면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이에 힘입어 2009년 실적이 소폭 반등하였고, 2010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감

○ **시장 전망**

- 2010년 이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특별한 외부변수가 없는 한 2011년 4.5~5%의 성장이 예상됨

- EIU에 따르면, 2009~2014년의 6년 동안 CAGR 4.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1)유럽,중동국가로의 안정적인 수출, 2)내수시장의 잠재력, 3)적극적인 정부 인센티브 등이 거론되고 있음

[터키 신차 등록 현황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승용차	370,000	336,000	362,000	378,000	405,000	426,000
소형상용차	187,300	191,800	208,500	226,100	244,200	264,900
중대형상용차	18,700	20,700	26,100	29,300	31,800	33,900
합계	576,000	548,500	596,600	633,400	681,000	724,800

자료원: EIU

○ **국제경쟁력**

- 2009년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6천1백7십만대 수준이며, 이 중 승용차는 4천8백만대, 상용차는 1천3백7십만대를 기록함

- 터키는 생산 기준 글로벌 17위 국가이며, 유럽에서 7위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국가별 자동차 생산 대수(2009)]

	국가	생산대수 (대)
1	중국	13,791,000
2	일본	7,935,000
3	미국	5,709,000
4	독일	5,210,000
5	한국	3,513,000
6	브라질	3,183,000
7	인도	2,633,000
8	스페인	2,170,000
9	프랑스	2,048,000
10	멕시코	1,561,000
11	캐나다	1,491,000
12	이란	1,395,000
13	영국	1,090,000
14	태국	999,000
15	체코	975,000
16	폴란드	884,000
17	**터키**	**870,000**
18	이태리	843,000
19	러시아	722,000
20	벨기에	537,000

○ **터키내 BMW 생산/내수/수출입 현황 등**

- 터키 내 BMW 생산 기지는 없으며, 100% 수입되고 있음

[터키 내 BMW 수입 판매 현황]

<단위: 대>

	2008	2009	2010
BMW 판매대수	4,849	6,729	12,034
전체 수입차량 판매대수	306,087	313,917	465,408
BMW 판매 비중	1.6%	2.1%	2.6%

자료원: 터키자동차딜러협회(ODD)

○ 조업 중인 완성차 업체 리스트

	설립 년도	소재지	기술제휴/해외모기업	자본금(TL)	해외지분	생산가능대수	생산 품목
1) Anadolu Isuzu	1966	Kocaeli	Isuzu	25,419,000	29.74%	13,155	트럭,픽업,버스
2) BMC	1966	Izmir	-	380,000,000	0%	21,800	트럭,픽업,버스
3) Ford Otosan	1983 2001	Eskisehir Kocaeli	Ford	350,910,000	41%	335,000	트럭,픽업,버스
4) Hattat Tarim	2002	Tekirdag	Valtra,Universal,Hattat	40,000,000	0%	10,500	트랙터
5) Honda Turkiye	1997	Kocaeli	Honda Motor Europe	100,000,000	100%	50,000	승용차
6) Hyundai Assan	1997	Kocaeli	Hyundai Motor Corp.	206,220,000	70%	125,000	승용차
7) Karsan	1966	Bursa	Karsan,Peugeot,Hyundai,Renault Trucks	100,000,000	0%	28,000	트럭,픽업,버스
8) MAN Turkiye	1966	Ankara	Man Nutzfahrzeuge AG	65,000,000	99.9%	1,700	버스
9) Mercededs-Benz Turk	1968 1985	Istanbul Aksaray	Mercedes Benz	275,000,000	85%	14,200	트럭,버스
10) Otokar	1963	Sakarya	Land Rover/Fruehauf	24,000,000	0%	7,550	픽업,버스
11) Oyak Renault	1971	Bursa	Renault	323,300,000	51%	360,000	승용차
12) Temsa	1987 2008	Adana Sakarya	Temsa/Mitsubishi Temsa/Mitsubishi/Fuso	210,000,000	0%	10,500	트럭,픽업,버스
13) Tofas	1971	Bursa	Fiat	500,000,000	37.8%	400,000	승용차
14) Toyota	1994	Sakarya	Toyota	150,165,000	100%	150,000	승용차
15) Turk Traktor	1954	Ankara	-	47,000,000	37.5%	35,000	트랙터

주1) TL은 터키화폐단위인 터키리라를 의미 (2011년 5월 현재 USD 1 = 1.55 TL)

주2) 생산가능대수는 연간 생산가능대수

1) ANADOLU ISUZU OTOMOTIV SANAYI VE TICARET AS
Factory: Sekerpinar Otomotiv Cd No:2 Cayirova Gebze Kocaeli
Telephone: 90 262 658 8433 Fax: 90 262 658 8821
www.isuzu.com.tr

2) BMC SANAYI VE TICARET AS
Factory: Kemalpasa Cd Pinarbasi Kavsagi Izmir
Telephone: 90 232 479 2000 Fax: 90 232 479 1288
www.bmcsan.com

3) FORD OTOMOTIV SANAYI AS
Factory 1: Kocaeli Golcuk Yolu 14. km Ihsaniye Golcuk Kocaeli
Telephone: 90 262 315 5000 Fax: 90 262 315 5002
Factory 2: Kutahya Yolu Ustu Inonu Eskisehir
Telephone: 90 222 591 24 Fax: 90 222 591 3005
www.ford.com.tr

4) HATTAT TARIM MAKİNALARI SANAYİ VE TİCARET AS
Factory: Organize Sanayi Bolgesi Cerkezkoy Tekirdag
Telephone: 90 282 758 1040 Fax: 90 282 758 1090
www.hattat.com.tr

5) HONDA TÜRKİYE AS
Factory: Yedipinarlar Mevkii Sekerpi Gebze Kocaeli
Telephone: 90 262 658 8383 Fax: 90 262 658 8417
www.honda.com.tr

6) HYUNDAI ASSAN OTOMOTIV SANAYI VE TICARET AS
Factory: Ali Kahya Beldesi Kocaeli
Telephone: 90 262 317 7000 Fax: 90 262 365 1067
www.hyundai.com.tr

7) KARSAN OTOMOTİV SANAYİ VE TİCARET AS
Factory: Akcalar Sanayi Bolgesi Nilufer Bursa
Telephone: 90 224 484 2170 Fax: 90 224 484 2169
www.karsan.com.tr

8) MAN TURKIYE AS
Factory: Esenboga Havalimani Yolu 20. km. Akyurt Ankara
Telephone: 90 312 398 0220 Fax: 90 312 398 1018
www.man.com.tr

9) MERCEDES BENZ TÜRK AS
Factory 1: Sivat Deresi Hosdere Koyu Mevkii Mercedes Bulvari Bahcesehir Istanbul
Telephone: 90 212 622 7000 Fax: 90 212 622 8400
Factory 2 : Konya Cd Aksaray
Telephone: 90 382 215 1639 Fax: 90 382 215 1355
www.mercedes-benz.com

10) OTOKAR OTOBUS KAROSERI SANAYI AS
Factory: Ataturk Cd 9 Arifiye Sakarya
Telephone: 90 264 229 2244 Fax: 90 264 229 2242
www.otokar.com.tr

11) OYAK RENAULT OTOMOBIL FABRIKALARI AS
Factory: Organize Sanayi Bolgesi Bursa
Telephone: 90 224 243 7400 Fax: 90 224 243 1209
www.renault.com.tr

12) TEMSA GLOBAL SANAYI VE TICARET AS
Factory: Mersin Yolu Adana

Telephone: 90 322 428 2170 Fax: 90 322 428 1024
www.temsa.com.tr

13) TOFAS TURK OTOMOBIL FABRIKASI AS
Factory: Bursa Yalova Yolu 10. km Bursa
Telephone: 90 224 261 0350 Fax: 90 224 255 0947
www.tofas.com.tr

14) TOYOTA OTOMOTIV SANAYI TURKIYE AS
Factory: Karaaptiler Koyu Asartarla Mevkii Sakarya
Telephone: 90 264 295 0295 Fax: 90 264 295 1295
www.toyotatr.com

15) TURK TRAKTOR VE ZIRAAT MAKINALARI AS
Factory: Guvercin Yolu 108-109 Gazi Ankara
Telephone: 90 312 211 0190 Fax: 90 312 211 0031
www.turktraktor.com.tr

[터키 내 외국계 자동차 기업 진출 현황]

기업	모기업 소재국	진출 형태
Fiat	이태리	Tofas와 합작
Mercedes Benz	독일	Daimler AG와 합작
Renault	프랑스	Oyak과 합작
MAN	독일	단독 투자
Peugeot	프랑스	기술 제공(License)
Land Rover	영국	기술 제공(License)
Ford	미국	Koc Group과 합작
Isuzu	일본	Anadolu Group과 합작
Hyundai	한국	Kibar Group과 합작
Toyota	일본	단독 투자
Honda	일본	단독 투자
Mitsubishi	일본	기술 제공(License)
Tata	인도	기술 제공(License)

자료원: 터키투자청(Ispat)

[터키 내 업체별 자동차 생산 현황(2010)]

기업	생산 대수 (대)	비중
Tofas-Fiat	312,245	28.5%
Oyak Renault	307,083	28.1%
Ford Otosan	242,070	22.1%
Toyota	83,286	7.6%
Hyundai Assan	77,000	7.0%
Honda	20,305	1.9%
Others	52,568	4.8%
합계	1,094,557	100%

자료원: 터키자동차협회(OSD)

□ 자동차 부품산업

○ 시장 특성

- 터키 자동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산업 발전에 힘입어 급성장하였으며, 현재 완성차와 더불어 터키 제1의 수출품이 되었음

- 터키 자동차부품 산업은 터키 공장을 운영 중인 벤츠, 도요타, 혼다, 르노, 피아트 등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왔음

○ 시장 규모 및 동향

- 터키의 자동차부품 업체는 약 4,000개로 추산되며, 직접 고용인원이 30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1차 공급업체(Tier 1)가 400개사, 2차 공급업체가 500개사로 집계되고 있음

- 터키의 자동차부품 업체는 완성차 업체가 소재한 부르사(Bursa), 코자엘리(Kocaeli), 사카리아(Sakarya)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Imzir, Konya, Adana, Manisa 등에도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음

- 터키 자동차부품업계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터키자동차부품협회(TAYSAD)를 조직하여, 업체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노력을 하고 있음

- 협회 주도 하에 코자엘리에 2,500 헥타아르 규모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TOSB)를 조성하여, 최신 기반시설제공, 공공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터키 자동차부품 업계는 injection-moulded parts, tyres, batteries, spark plugs, carburettors, castings, fuel injection systems, transmission parts 등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 **수출 동향**

-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전체 자동차 부문 수출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주로 유럽에 수출되는 비중이 높음

[자동차부품 수출 현황]

<단위: 억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직접 수출	30	37	44	63	70	49
간접 수출	33	35	44	65	75	48
내수 판매 (Aftermarket)	21	24	29	32	38	36
합계	84	96	117	160	183	133

주) 간접 수출은 완성차 수출에 따른 간접 수출을 의미
자료원: 터키자동차부품협회(TAYSAD)

○ **시장 동향 및 전망**

- 완성차와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며, 2010년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1년 이후에도 완성차 부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외부변수가 없는 한 연간 4%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터키내 부품업체 대BMW 납품 현황**

- 파악 불가

○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리스트

기업명	생산품목	비고
Arfesan Arkan Fren Elemanlari AS www.arfesan.com.tr	브레이크, 밸브	-생산품 비중 : OEM 15%, A/S 시장 10%, 수출 75% -특히, 버스 및 공사용 차량 생산 업체들이 선호
Asas Filtre AS www.asasfilter.com	오일, 에어 필터	-생산품 비중 : OEM 30%, A/S 25%, 수출 45% -터키내 대부분의 승용차생산업체들이 동사 필터를 선호
Assan Hanil Otomotiv AS www.assanhanil.com.tr	대시 보드, 차량 내장재	-한국의 한일이화와 터키업체간 합작회사 -생산품 전체를 현대, 포드 등 터키내 완성차 공장에 납품 중
Bando Kockaya Kayis AS www.kockaya.com.tr	트랜스미션 벨트	-일본 반도와 터키업체간 합작회사 -A/S 및 OEM시장에 걸쳐 시장 선두를 기록
Bosch AS www.bosch.com	브레이크 시스템, 스파크 플러그, 점화 케이블 등	-토요타, 르노, 포드 등에 납품중
BPLAS Bursa Plastik AS www.bplas.com.tr	범퍼, 펜더, 연료탱크 등	-토파스, 포드, 르노, 토요다, 현대 등에 납품 중
CMS Jant AS www.cms.com.tr	경량 합금 휠	-터키 유일의 경량 합금 휠제조업체 -터키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도 수출
Farba Otomotiv Aydinlatma ve Plastik AS www.farba.com	헤드램프, 계기판 램프, 후미등 및 플라스틱 부품	-르노, 토요타, 벤츠, 포드 등에 납품 중 -A/S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 확보
Federal Mogul AS www.federal-mogul.com	피스톤	-미국업체와 터키업체간 합작업체 -OEM시장에 주력중

기업명	생산품목	비고
Hema AS www.hema.com.tr	기어박스, 샤프트, 실린더, 크랭크샤프트	-대형공사용 차량용 제품에 집중
Inci Aku AS www.inciaku.com.tr	베터리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선두기업
Major SKT AS www.majorskt.com	시트	-미국업체와 터키업체간 합작업체 -OEM시장 선두 기업
Mako Elektrik AS www.mako.com.tr	전기 부품	-OEM시장 및 A/S시장의 선두 기업
Maysan Mando Otomotiv AS www.maysanmando.com	쇼크 압소바	-한국의만도와 터키업체간 합작투자업체 -완성차 업체 및 A/S시장의 선두기업
Ortadogu Rulman AS www.ors.com.tr	볼베어링	-터키,유럽,중앙아시아 시장의 선두기업 -종업원 1,500명 이상

자료원: 터키자동차부품협회(TAYSAD)

□ 자동차산업 (완성,부품 포함) 최근 3개년 정량 데이터

연도	2008	2009	2010
업체수(개)	NA	NA	4,000
종업원수(명)	NA	NA	265,000
승용차 수출(대수)	525,301	388,994	439,999
승용차 수입(대수)	206,793	243,542	354,150
승용차 판매(대수)	305,998	369,819	509,784
고급차* 판매(대수)	12,017	8,268	10,376
인구(명)	71,517,100	72,561,312	73,722,988
자동차보유(대)	13,765,395	14,316,700	15,095,603
자동차1대당 인구	5.2	5.1	4.9
천명당 승용차 보유(대)	NA	104	NA

주1) 고급차는 2000cc 이상 승용차 기준

주2) 자동차는 승용차 및 상용차를 모두 포함

자료원: OSD, TAYSAD, 터키통계청 자료 취합

2. 터키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유치(Inward FDI) 지원정책

○ 외국인 투자 환경

1) 긍정적 요인

○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거대시장 EU와 시장잠재력이 있는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지역으로의 진출여건이 우수함

- EU와는 1996년 관세동맹 발효로 대부분의 제품을 무관세 수출입하고 있으며, 터키 전체 수출의 50%이상이 EU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EU는 터키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및 의류 등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경우, EU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터키는 EU의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점차 확고히 하고 있음

- 또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2006년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이나, 터키 정부는 2007년 EU 가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각종 법률 및 사회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협상 재개에 많은 노력을 쏟음과 동시에 이미 교역정책, 규정, 관세율 등은 EU 규정에 맞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이외 터키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 코카서스 국가 및 언어, 종교, 문화적 유대가 특별한 중앙아시아 터키계 공화국과의 자원개발, 기술이전, 투자 등 경제협력 또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어 발칸, 코카서스지역, 중동,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의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투자가들에게 터키는 관문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국가임

* 최근에는 이들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의 천연가스 및 원유를 유럽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운송통로로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관련 지역 에너지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음

- 현재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외에도 EFTA, 이스라엘, 모로코, 이집트, 크로아티아, 시리아 등 주변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추가 협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주변시장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임

○ 거대 내수 시장

- 터키는 총 인구 7,200만 명으로 독일을 제외한 EU 다른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임. 또한, 현재 인구증가율 추세를 고려할 경우 가까운 시일내 독일보다도 많은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4년 5월 EU 신회원국으로 가입한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 전체인구가 7,42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인구는 터키의 무시 못할 잠재력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특히 터키는 평균 연령이 28.3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총 인구의 절반이상이 평균 연령보다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여러 유럽국가에 비해 젊은 층이 많아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이 향후 경제 활력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터키의 1인당 GDP는 2010년 기준 10,000달러를 넘었으며, 인구와 함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상당함

○ 경제 안정성 증대

- 지금까지 터키가 투자처로 가진 가장 큰 약점으로는 연 20~60%에 이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그리고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 불안 등이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2002년 말 집권한 현 정부가 경제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일관된 금융 및 경제 정책을 펼쳐온 결과, 2003~2009년 기간 동안 평균 4.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인플레이션이 한자리수로 안정되면서 견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숙련된 노동력 보유

- 터키 전역에 직업학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기술수준이 높은 우수한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함

- 영어 및 유럽국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간부급 인력 역시 풍부하며, 엔지니어링, 재무, 세일즈, 인사 등 분야에서도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국가에 비해 인건비는 저렴한 편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음.

- 또한 1일 평균 9시간, 연간 280일을 근무하여 세계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발전되는 교통 및 통신 인프라

- 터키의 도로는 주변 국가들과 원활히 연결되어 있어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항구는 흑해, 지중해 및 에게해 지역의 관문으로 잘 발달해 있으며, 항공편 또한 국내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음. 다만 철도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 철도 시설의 경우 그루지아 - 아제르바이잔 - 터키를 잇는 철로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국들과 이른 바 아이언 실크로드(iron silk road)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외에도 터키내 이스탄불 - 앙카라간 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교통인프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밝다 할 수 있음.

- 또한 흑해 및 카스피해의 원유,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서구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중요한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란과 이란내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쪽으로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 라인 건설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주요 자원의 수송기지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됨

- 이 같은 교통인프라와 함께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비롯한 통신인프라 역시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품질 역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2) 부정적 요인

○ 과도한 행정비용

- 터키내 외국인투자가들은 터키 투자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및 처리를 꼽고 있음

* 실제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행정절차에서부터 많은 장벽에 부딪치고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행정 처리시 명확한 규정과 제도에 따르기 보다는 담당자 임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데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처리되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함

- EU 가입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터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관료주의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소득분배 불균형

-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상위 20%의 국민이 전체국민소득의 60%를 점유하고 있음. 이스탄불의 경우 최상위 1%가 약 30%의 부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임

  * 지역별 부의 편중 역시 심한 상태로 이스탄불이 위치한 마르마라지역, 에게해 및 지중해 지역에 산업 발달이 집중되어 있고, 앙카라를 제외한 내륙지방과 동부지방의 경우 산업발달이 미약한 상태로 지역간·도농간 부의 편중이 심함

-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이 빈약한 편으로 아직까지 소비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 소비재의 경우 브랜드를 가진 고가 제품 이외에는 주로 저가격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중가대 제품의 판매는 저조한 상황임

-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구매력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부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 터키 산업은 아직까지 주요 부품 및 핵심 기술 보유율이 낮아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터키의 국내 생산 및 수출 증대는 자연스럽게 중간재 및 주요 부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최근 국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터키는 매년 수출증가율 못지않게 수입증가율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터키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지적되고 있음

3) 터키 자동차 산업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EU 대비 낮은 임금 및 양질의 노동력 -터키 경제 내 자동차산업의 높은 비중 (Top 10 수출기업 중 4개가 자동차회사) -EU와의 관세 동맹 (무관세 거래) -R&D 경험 및 기술력	-높은 특소세(SCV) 및 부가세(VAT) 비중 -높은 유류대

Opportunities	Threats
-전체 가구의 75%가 차량을 미보유하고 있어, 시장 확대 잠재력 높음 -1인당 소득의 빠른 증가 예상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재개 시 수혜 예상 -인센티브 확대	-EU국가에서 터키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대한, 노조의 강력한 반대 -EU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중국과 인도의 빠른 성장

○ 전반적 외국인투자지원 정책 방향

1) 외국인직접투자법 기본 원칙

○ 터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투자가들의 권리 보호, 국제 기준에 따른 투자 및 투자자의 의미 정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발표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법 : Law No. 4875
- 제정일자: 2003년 6월 5일
- 공포일자: 2003년 6월 17일 관보

○ 터키 외국인직접투자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내외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

*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기업일지라도 터키 기업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이 부여되며, 동시에 터키 기업과 동등한 의무가 부과됨

- 회사설립 사전 승인제 폐지, 신고제로 전환

* 회사 설립을 위한 사전 승인제가 폐지되고 설립 후 재무성

(Republic of Turkey Prime ministry Undersecretariat of Treasury)에 신고하는 신고제로 변경.
다만, 특정 기간 동안의 사업 활동, 자본 변화 및 주식의 이동 등은 보고하여야 함

-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 제도 폐지
  *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신규 설립 또는 인수합병에 의한 100% 외국인 소유를 인정함

- 회사형태 설립 제한 폐지
  * Turkish Commercial Code(터키 상법)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회사로도 설립이 가능함

2)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보장

○ 자본 이동의 자유
- 외국인투자자들은 이윤, 배당금, 기업 매각 및 파산에 따른 자금회수, 보상금, 허가 취득비, 기술 정보, 기술지도, 운영 및 관리 협정, 대출금 및 이자 상환비용 등을 은행 또는 특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체 가능

○ 부동산 취득의 자유
- 터키 국민들에게 구매가 허가된 부동산의 경우 터키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도 동등하게 구매가 가능함
- 2008년 3월말, 터키헌법재판소에서 외국인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 7월 터키 정부는 관련 법률을 재정비, 공포하여 다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졌음

○ 비현금 자본의 가치 인정

- Turksih Commercial Code(터키 상법)의 조항에 따라 비현금 자본의 경우에도 가치가 인정됨. 투자기업의 주식 및 채권의 경우 본국의 관계당국, 본국의 법정에서 지정한 전문가, 또는 국제적인 가치 평가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비현금 자본으로 인정됨

○ 외국인 고용 가능

-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함

3) 외국인 투자법 주요 정의

○ 외국인투자자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터키 국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 본국과 국제기관의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이 터키 내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
- 지분 매수(주식 매입을 통하여 10% 이상의 지분 또는 투표권을 확보하거나 주식 거래 이외의 방법을 통한 지분 확보)

○ 외국자본으로 정의되는 자산

- 해외취득 자산
  * 현금 자본
  * 외국기업의 주식 및 채권(국채 제외)

* 기계 및 장비
* 산업 및 지적재산권

- 터키 내 취득 자산
* 재투자 수입, 수익, 재정적 청구권
* 천연자원 탐사 및 채굴을 위한 상업적 권리

○ 분야별 세부 지원 내역

1) 투자 인센티브 종류

○ 터키의 투자지역
- 터키 정부는 터키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터키를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터키의 투자지역 구분]

지역구분	주요지역
개발지역	이스탄불 및 근교, 이즈미르, 앙카라, 부르사, 안탈리아,아다나
일반지역	터키 서부 및 중부
우선개발장려지역	터키 동부, 남동부, 중동부 및 북부

- 현재 개발지역의 경우 일반 투자인센티브(투자목적 기계 및 장치 수입 또는 구입시 관세 또는 부가세 면제)외 다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일반지역 및 개발장려우선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기술단지 등 특별단지내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에 집중되어 있음

○ 투자 인센티브 인증 (Investment Incentive Certificate)

- 터키 정부는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없이 같은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즉,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에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됨

- 일반적으로 터키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터키 재무성으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인증(IIC : Investment Incentive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다만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4백만 TL (USD 340 만) 이하의 투자의 경우 각 지역 공업회의소에 신청, 발급 가능함

- IIC 발급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 투자 금액, 투자 분야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투자 지역별 IIC 발급 조건]

	최소 투자 금액	대상 투자 분야
개발지역	40만 TL (USD 34만)	교육, 보건, 관광 등 46개 지정 분야*
일반지역	40만 TL (USD 34만)	전 분야
우선개발장려지역	20만 TL (USD 17만)	전 분야

2) 조세 인센티브

○ 일반투자 인센티브

- 투자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터키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 장치 등에 대하여 관세, 기금 및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IIC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대형투자 인센티브 (Incentives for large-scale investments)

- 법인세 혜택 (2~10%, 2011년12월31일 이전 투자 시)
-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최대 7년 면제 (2011년12월31일 이전 투자 시)
- 국유지 배분(Allocation of state land)

* 상기 혜택은 아래 투자 최소 한도 이상에만 적용

-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부문별 투자 최소 한도
  - · 화학 소재 생산: 10억 TL
  - · 기타 화학 제품 생산: 3억 TL
  - · 석유 산업: 10억 TL
  - · 운송 파이프라인(Transit Pipeline): 5천만 TL
  - · **자동차: 2억5천만 TL**
  - · 철도: 5천만 TL
  - · 항만: 2억5천만 TL
  - · LCD/플라즈마 스크린 생산: 10억 TL
  - · 모듈 패널 생산: 1억5천만 TL
  - · 레이저TV, 3D TV, OLED TV 및 기타 전자,통신,IT: 5천만 TL
  - · 의료기기,광학기기: 5천만 TL
  - · 제약: 1억 TL
  - · 항공: 5천만 TL
  - · 기계: 5천만 TL
  - · 광업: 5천만 TL (광업법에 규정된 품목만 해당)

3) 금융 지원

○ 연구개발 분야 자금 대여

- 연구개발 및 일부 산업 투자의 경우, 일정조건에 따라 터키 정부로부터 이자율 20%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 동 자금의 대상은 연구개발투자, 테크놀로지 파크내 투자, 환경보호관련투자,터키과학기술최고위원회(TUBITAK, High

Com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선정한 고급 기술 투자, 지역불균형개선을 위한 투자, 우선개발지역내 농업 및 광업 투자 등임

- 보조금 지원 금액 및 한도는 투자 분야에 따라 상이함.
  * 연구개발, 환경보호 등 분야 : 40만 TL
  * 우선개발장려지역내 농업 및 광업 분야 : 50만 TL

○ 중소기업 투자 자금 대여

- 중소기업이 일정지역내에서 관광, 보건, 교육 및 광업,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투자를 위하 기계, 장치 및 원재료로 제한됨

-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는 건설과 관련될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1년내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 한도는 노동자 수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함
  * 지원 한도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짐

[대여금 한도액]

<단위 : 투자액 대비 비율>

고용인 수	지역		
	우선개발장려지역	일반지역	개발지역
1~9명	60%	50%	40%
10~49명	50%	40%	30%
50~250명	40%	30%	20%

-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우선개발장려지역의 경우 10%, 기타 지역은 15%이나, 원재료 구입에 대한 지원일 경우 지역별로 각각 15%와 25%의 이자율이 적용됨

4) 입지 인센티브

○ 테크노 파크 (Technology Development Zone - Technopark)

- 터키 정부는 연구개발활동 및 투자 유치를 위해 14개의 테크노 파크를 운영 중에 있고, 8개는 승인을 획득하고 건설 중에 있음

[테크노 파크 위치도]

- 테크노 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짐

  *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을 통한 이윤에 대해서 2013년 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연구원,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산업단지 (Organized Industrial Zone)

- 터키에는 현재 93개의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151개의 산업단지가 건설 중에 있음

[산업단지 위치도]

주) 초록색 지역은 토지무상제공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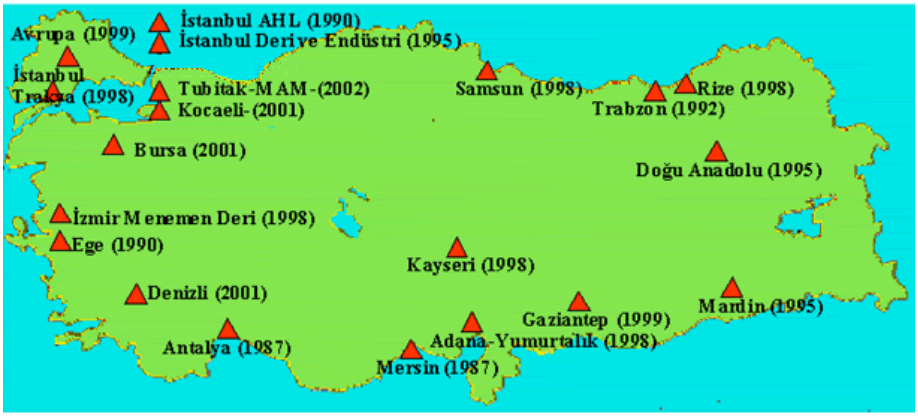
- 이중 54개 지역내에 있는 산업단지내 투자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함

  * 소득세 및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SSK) 면제
  * 전기요금 지원(최대 50%)
  * 부동산세, 오수처리부과금 및 임차료 면제

○ 경제자유지역(Free Zone)

- 터키 정부는 수출 및 중계 무역활성화를 위해 총 20개의 Free Zone을 운영하고 있음

[Free Zone 위치도]



- Free Zone내 투자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됨

* 관세 및 생산 기업의 경우 법인세 면제
*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 제3국 원산지 제품 반입 반출시 관세 면제

4) 기타 인센티브

○ 중소기업 인센티브

- 터키 정부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초소형 규모: 1~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순 매출액 또는 총 자산가치가 100만 TL (USD 84만) 미만인 기업
* 소형 규모: 10~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순 매출액 또는 총 자산가치가 500만 TL (USD 43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중형 규모: 50~2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순 매출액 또는 총 자산가치가 2,500만 TL (2,15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투자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제조업 또는 농업 분야
* 지정된 지역에서의 관광업 투자
* 현존하는 관광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 우선개발장려지역에서의 보건 관련 투자
* 우선개발장려지역에서의 교육 투자 및 개발지역과 일반지역에서의 초·중등학교 시설 개선 투자
* 광업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 기타 건설, 기계장비 및 원자재 분야에서 95만 TL (USD 80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자본재 투자

-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관세 및 기금 면제
*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인 투자 동향

○ 대 터키 외국인 투자(FDI) 동향

1) 연도별 투자동향

- 터키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2006년 201억불, 2007년 220억불, 2008년 182억불을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60% 가량 감소한 이후, 2010년에 소폭 회복되어, 89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고, 2011년은 100억불 내외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대내 FDI]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 액	10,031	20,185	22,046	18,269	7,625	8,899

자료원: 터키재무성, 터키중앙은행(순유입기준, 부동산투자 포함)

2) 분야별 투자동향

- 터키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에너지,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부문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터키의 산업별 대내 FDI]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수산업 및 광업	47	128	344	193	235	273
제조업	785	1,866	4,210	3,931	1,644	847
전기,가스 및 수도 공급 등	4	112	567	1,068	1,646	2,040
건설업	80	222	285	331	414	391
도소매업	68	1,166	169	2,084	367	310
교통, 창고 및 통신	3,285	6,696	1,116	170	350	199
금융업	4,018	6,957	11,662	6,069	433	1,575
부동산 임대업 등	29	99	560	656	502	282
기타	219	393	223	231	184	343
계	8,535	17,639	19,136	14,733	5,775	6,260

자료원 : 터키 재무성, 터키 중앙은행(부동산투자 제외)

3) 국가별 투자동향

- 터키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EU국가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75%, 2009년 95%, 2010년 76%)

[터키의 국가별 대내 FDI]

<단위 : 백만 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U	5,006	14,489	12,600	11,051	4,604	4,762
기타 유럽	1,646	85	373	291	295	243
아프리카	3	21	5	82	0	0
미주	122	1,002	4,717	946	304	379
아시아 및 중동	1,756	1,927	1,405	2,361	560	873
기타	2	115	36	2	12	3
합계	8,535	17,639	19,136	14,733	4,796	6,260

자료원 : 터키 재무성, 터키중앙은행(부동산투자제외)

○ 한국기업의 대 터키 투자 동향

1) 한국 기업 터키 투자 개요

- 1980년대 초반 이후 종합상사(삼성물산,대우 등)를 시작으로 한국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하기 시작함

- 1992년 전자저울 제조기업인 “카스”가 최초로 터키 시장에 생산 기지를 세우면서 진출함

- 이후 1997년 현대자동차, 2000년 LG전자(에어컨생산법인)가 협력업체들과 함께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제조업 투자가 시작됨

- 2011년 현재, 주로 자동차(및 부품), 가전제품(에어컨 및 부품), 섬유(스판덱스), 철강(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전동차량, 담배 등의 분야에서 20여개의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2) 한국기업 투자 현황

○ 한국기업 對터키 투자현황(1980~2010년까지 누계)
- 신고건수 : 251건(신고금액 : 786,451천불)
- 투자건수 : 339건(투자금액 : 611,114천불)
- 신고 법인 수 : 77개

*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
*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기업 주요 투자 내역

<단위 : 천불>

연번	회사명	투자시기	투자내역	신고금액	투자금액
1	(주)카스	1992	전자저울 조립	1,500	1,500
2	현대자동차	1997.10	자동차공장 합작투자 (2002년 증설완료)	102,000	102,000
3	한일이화	1997	자동차내장제품 생산 합작투자	1,420	920
4	경인양행	1997.8	염료생산 합작투자	1,906	1,606
5	만도기계	1997.9	자동차용 Shock Absorber 합작투자	4,500	1,500
6	LG전자	2000.5	에어컨생산 합작투자	25,000	12,435
7	CJ	2004	사료공장 단독투자	2,140	2,124
8	미스도스	2004	장갑공장	200	2,500
9	한라공조	2005	자동차용에어컨	2,991	2,990
10	(주)일진	2005	에어컨 부품	1,000	500
11	KCC	2006	도료 단독투자	32,000	32,000
12	현대로템(주)	2006	전동차량	2,040	2,040
13	KT&G	2006	담배	78,900	15,541
14	효성	2007	스판덱스 (2010.8 증설완료)	160,000*	160,000
15	DYSK (대양금속)	2007	스테인레스 냉간압연제품 (2010.11 증설완료)	68,000	68,000
16	우리텍	2007	에어컨 부품	1,600	1,598
17	호원	2007	자동차 차체 프레스	-	20,000*
18	YG-1	2007	절삭공구, tool holder	-	200
19	포스코	2010	철강재 가공 서비스(코일 센터)	23,000	23,000
20	포스코	2011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350,000*
21	서일	2011	음료용 빨대		2,0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및 KOTRA 자체조사

* 총 투자 예정금액

4) 주요 진출기업 : 50개사 내외

- 이스탄불 지역 :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전자, LG DISPLAY, LG화학, 대우인터내셔널, 카스,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효성, 대한항공, TK CHEMICAL,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KT&G, KCC, 범한판토스, 글로비스,

솔상무역, YG-1, 귀뚜라미보일러, 파카유로, STX, LG상사, LG 하우시스, SK건설, 제일기획, 이노션, 오토닉스, 한화, 유코카 캐리어, 고려상사

- 이즈미트, 게브제, 부르사 지역 : LG-ARCELIK, 한일아산, 한라공조, 만도, CJ, 일진, 우리텍, 호원, SIMPAC, 성진사, 한일CF, SKMT, (현대자동차 공장), (KCC 공장), 포스코

- 데킬다 및 체르케즈쾨이 : 미스도스, 대양금속(SK), (효성 공장)

- 이즈미르 : (KT&G 공장)

- 아다나 지역 : 경인양행

- 앙카라 지역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5) 터키 투자 진출 검토 주요 한국 기업

- 삼성전자 (기초 조사 단계로 여러 후보국 중의 하나로 검토 중)
- 효성 (스판덱스 이외의 다른 제품군 투자에 대해 기초 조사 단계)
- 현대자동차 (현재 연 10만대의 생산 용량 추가 확대 검토 중)
- 만도기계 (추가 투자 방안 검토 중)

[터키 자동차 산업 주요 해외 업체 M&A 진출 사례(2002~2010)]

	해외업체	소재국	현지업체	시기	인수 지분	인수 금액 (백만불)
1	Auto Sueco (Coimbra) Lda	포르투갈	Volvo Otomotiv Turk(ASC Turk Makina)	10년7월	100%	61.5
2	ALJ Lubnasti	사우디 아라비아	Toyotasa Toyota-Sabanci Pazarlama ve Satis	09년8월	65.0%	85.0
3	Mayer's Cars and Trucks	이스라엘	Isotlar Group	09년5월	49.3%	NA
4	Pirelli Group	이태리	Turk Pirelli	09년1월	25.8%	39.2
5	Pirelli Group	이태리	Celikord	08년8월	48.0%	24.0
6	Pirelli Group	이태리	Turk Pirelli	08년8월	3.2%	3.4
7	Continental	독일	Otomotiv Lastikleri Tevzi	08년7월	89.7%	8.2
8	Fuji Heavy Industries	일본	Baytur	08년4월	10.0%	5.0
9	Unicredit	이태리	Martur	08년3월	20.0%	NA
10	Bekaert	벨기에	Beksa Celik Kord	08년2월	50.0%	59.3
11	Mahle Group	독일	Mopisan Motor Gomlek Piston	08년2월	60.0%	NA
12	Gestamp Automocion	스페인	Beycelik Kalip	07년6월	50.0%	NA
13	Bancroft Private Equity	영국	Standard Profil Otomotiv	06년9월	100%	90.0
14	Kennametal	미국	Kennametal Turkiye	06년1월	36.0%	NA
15	Nursanlar Holding	터키	Takosan Otomobil Gostergeleri	05년12월	42.5%	1.3
16	Brose	독일	Pressan	05년12월	40.0%	NA
17	Hayes-Lemmerz	미국	Jantas Aluminyum Jant	05년11월	20.0%	NA
18	Access Turkey	네덜란드	Olgun Celik	05년10월	100%	NA
19	Toyota Boshoku	일본	Takanichi Otomotiv Ic Doseme	05년8월	73.2%	NA
20	Magneti Marelli	이태리	Mako Elektrik	05년2월	51.0%	18.0
21	Michelin Kronprinzwerke	독일	Tekersan Jant Sanayi	04년7월	62.7%	2.6
22	Honda Motor Company	일본	Honda Anadolu Motorsiklet,Anadolu Honda	02년4월	50.0%	37.0

3. 기타

○ 터키 정부 및 언론에서도 BMW 생산 공장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터키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BMW가 터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음

- 독일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터키의 1위 수출국, 2위 수입국)
- 독일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다대
- EU와의 관세동맹으로 인한 유럽 수출 용이성
- 독일 관련기업 (메르세데스-벤츠, MAN 등)의 터키 기 진출 사례
-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될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CIS, 북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교두보 확보

II. 인도

1. 인도 자동차 산업 현황

□ 완성차 산업

○ **시장 특성**

- 인도의 자동차시장은 78%가 소형차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 승용차 시장은 3배로 성장

- 기 진출한 세계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인도의 폭증세를 보이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인도 투자확대를 추진 중

○ **시장 규모**

- '08~'09 회계연도 기준 인도 자동차산업 시장 규모는 382억 달러이며 '16년에는 1,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0년 내수시장에서 승용차 판매는 전년 대비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의 성장세를 기록

○ **수출입 현황**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대수)

분류	2008-09	2009-10	2010-11
승용차	335,729	446,145	453,479
상용차	42,625	45,009	76,297
삼륜차	148,066	173,214	269,967
이륜차	366,407	513,169	619,644
합계	1,530,594	1,804,426	2,339,333

- 자동차 수입시장 규모는 234백만달러로 한국은 4.12%를 차지

- 159.67%의 높은 관세로 인해 대부분 글로벌 메이커의 완성차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현지생산 체재 구축

○ **최근 시장 동향**

- 금년 3월 인도의 대표적인 유틸리티차량 제조업체인 Mahindra & Mahindra사는 한국 쌍용자동차 인수를 완료

○ **시장 전망**

- 인도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 등은 인도 자동차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인도시장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

○ **인도내 BMW 생산/내수/수출입 현황 등**

- BMW사는 인도내에서 첸나이 생산공장 및 판매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억루피(약 275억)을 기 투자 완료

- '07년 설립된 첸나이 BMW 생산공장은 연간 8,000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으며 400명의 종업원을 보유

○ 조업중인 완성차 업체 리스트

기업명(한/영)	현대/Hyundai Motor India Ltd.	마루티 스즈키/ Maruti Susuki India	타타 모터스/ Tata Motors	마힌드라/ Mahindra & Mahindra
설립연도	1996	1981	1945	1945
공장소재도시	Tamil Nadu	Gurgaon, Manesar	Jamshedpur, Pantnagar, Lucknow, Ahmedabad, Sanand, Dharwad and Pune	
종업원수(명)	15,000	7,600	24,000	14,355
생산차종	승용차, SUV	SUV, Van, Truck	SUV, Van, Truck	utility vehicles, Jeep
매출액(백만US$)	589	6,500	8,000	4,300
생산능력(국내,천대)	700	1,200	1,117	-
생산(천대)	536	1,148	716	319
내수(천대)	328	1,022	668	303
수출(천대)	209	126,738	52	15
홈페이지	www.hyundai.com	www.marutisuzuki.com	www.tatamotors.com	www.mahindra.com
해외공장*			서울	

주) 기준연도: 2010년 4월~11년 2월

□ 자동차 부품산업

○ 시장 특성

- 인도 자동차 부품시장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OEM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허브로 각광받기 시작

- 부품별 점유율은 바디 및 구조제품 40%, 엔진과 배기기관 20%, 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트랜스미션 및 전기 등이 각각 10%

○ 시장 규모

- '09~'10년 자동차 부품시장은 220억 달러이며 '10~'11년에는 18%가 성장한 2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 확대로 인한 글로벌기업의 투자로 인해 인도의 자동차 부품시장은 '20년까지 1,13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수출입 현황

- '09년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은 80억달러 규모로 20%가량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중국, 한국 등에서 저가품을 주로 수입

-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04~'05년 2%에서 '09~'10년 9%로 4.5배 증가하였고 한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5.4%에서 17%로 증가

○ 최근 시장 동향

- 인도 시장에는 6,400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0업체가 부품 생산의 77%를 점유

○ 시장 전망

- 다국적기업들이 인도에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기술제품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품시장도 확대 예상

○ 국제경쟁력

- 대표적인 부품업체인 Ashok Minda Group은 독일 Aksys Koengen을 인수하고 크라이슬러, 르노, GM 등에 부품 공급 중

○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리스트

기업명	생산품목	매출액	주납품대상	자국/외투	비고
Caparo Engineering India PVT.	Sheet metal stampings, steel tubes	166백만불	Honda, Tata, GM, BMW	Caparo UK	
Automotive Stampings & Assemblies	Sheet metal components, BIW	61백만불	Tata, Piaggio India, Ford Europe		Tata 자회사
Spicer India	Light axles, Driveshafts	151백만불	Tata, GM India, OEM	Dana holding Corporation USA	
ESTEE Auto Pressings	Sheet metal pressed parts & assemblies	7백만불	OEM, Toyota automotive India		
Autoline Industries	Sheet metal components, exhaust systems	34백만불	Tata, Mahindra & Mahindra		
Jay Bharat Maruti	Body in White, skin panels	47백만불	Maruti Suzuki, GM	Maruti Suzuk	

□ 자동차 내수 판매 최근 3개년 정량 데이터

(단위: 대수)

분류	2008-09	2009-10	2010-11
승용차	1,552,703	1,951,333	2,520,421
상용차	384,194	532,721	676,408
삼륜차	349,727	440,392	526,022
이륜차	7,437,619	9,370,951	11,790,305
합계	**9,724,243**	**12,295,397**	**15,513,156**

(자료원: SIAM)

2. 인도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유치(Inward FDI) 지원정책

○ 외국인 투자 환경

- UNCTAD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는 2010년도 세계 제 2위의 FDI 유치국이며, 투자매력도 세계 Top 5 국가 위치를 유지

- '10년은 인도의 기본 인프라부족, 아시아 17개국 중 부패지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악화요인으로 35% 감소

-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투자 장애 요소들은 인도의 노동법,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유통업, 통신업, 보험업 등), 부동산 취득 및 개발의 제한, 인프라의 부족 등이며 이 중 어떤 한 가지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전반적 (외국인) 투자지원 정책방향**

-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완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투자개방 및 투자환경개선 노력중. 전임 BJP 주도 연립정부에 이어 현 인도 국민회의 주도 UPA정부 집권 이후에도 Singh 총리 등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사들은 FDI 유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인식

-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차츰 줄여나가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군에 있어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승인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정부승인이 필요로 한 산업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방을 단행. 예를 들어 통신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74%로 조건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민간항공 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도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하였음(2005년). 또한 소매업에 대해서 일부 개방(단일 브랜드에 대한 51%까지 투자 허용)이 단행되었으며 보험업 역시 개방이 검토되고 있음.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영세기업 고유업종의 수를 줄이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중임

- 단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방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 정부의 지지 세력 및 협력 세력이 서민층과 좌파 정당을 포함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볼 때 인도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가 급속히 개선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인도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투자 제한 산업에 대한 점진적 개방, 각종 대형 인프라 개선사업의 시행(Ultra Mega Power Project, 공항 개선 사업, 지하철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인도 정부는 '10년 4월, 통합외국인투자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

- 인도에서는 FDI의 승인이 필요하며 중앙은행(RBI)에 신고하는 자동승인방식(사전승인이 불필요)과 정부(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로 나뉨

  *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중

  * FIPB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투자 분야:

  ・담배 제조

  ・전자,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

  ・영세기업 고유 업종(Small Scale Sector)으로 유보된 산업

  ※ 24% 지분까지는 승인 없이 투자 가능

  ・이미 인도에 합작 투자, 기술 이전・상표권 계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기술 협력과 동일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업종별 정책 또는 지분제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 **FDI 승인 절차**

- 자동승인 대상 투자의 경우 인도중앙은행(RBI) 지방사무소에 인도로의 송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 발행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으로 투자가 승인됨

- 정부 승인 대상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FC-IL 서식을 작성하여 재무부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DEA)에 제

출(재외 인도 대사관에 제출도 가능)하면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로 이송되어 검토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투자 주체가 NRI(Non Resident Indian)이거나 수출촉진지역(EOU)에 대한 투자인 경우 혹은 소매업(단일 브랜드)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FIPB가 SIA로 서류를 이송함. 정부 승인을 득하면 자동승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송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RBI에 통보하고, 주식 발행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역시 RBI에 제출해야 함.

○ 각종 사업 관련 규제

가. 산업 허가제

- 인도 정부는 산업법(Industries Act, 1951)에 의거하여 산업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

① 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 및 방산품,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동분야 기업주는 사업 수립 시 오염 통제와 환경에 관련 법적 허가를 취득해야 함. 1986 년의 환경(보호)법 1986에 의거한 공시(94 년 1 월 27 일자의 SO 60(E))에는 인도 환경청으로부터 취득되어야 할 환경 허가에 관련된 30 여 개의 사업목록이 제시되어 있음. 이 목록에는 석유화학 단지, 정유공장, 시멘트, 화력 발전소, 벌크 약제, 비료, 염료, 제지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② 영세기업 고유 업종

・5,000만 루피(약 11억 원)미만 투자 기업은 영세기업(SSU, small scale unit)으로 분류되며 주정부의 산업국에 등록하면 영세기업으로 특혜를 받게 됨. 즉 영세 기업은 영세기업

고유 업종으로 유보된 품목을 모두 생산할 수 있고, 입지 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음. 하지만 외국인투자 기업이 SSU를 설립할 경우 납입 자본의 24% 이상 투자할 수 없고 이 이상의 투자를 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영세기업 고유업종 품목에 대해 일반기업도 산업허가를 얻어 제조 및 영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 인도는 영세기업 고유 업종의 수를 점차 축소하는 추세로, 2007.3 기준 114개 존재

③ 입지 제한을 받는 지역

- 1991년 인구 센서스 기준 인구 100만이 넘는 23개 대도시의 경계(Standard Urban Area Limit)로부터 25㎞ 이내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산업 허가를 받아야 함 (단, 1991.7.25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인 경우와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 기타 비 공해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은 예외)

* 산업 허가 신청은 Form FC-IL을 작성, 상공부 산업지원국 (SIA: Secretariat of Industrial Assistance)에 작성 제출하면 되고, 산업 허가의 취득이 면제된 경우에는 SIA에 IEM (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류 제출 후 최종적으로 영업신고 필증을 얻어야 함

나. 외국인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 투자 장려 분야

- 인도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 관련 분야이며,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상태임.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제조업은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

・인프라 개발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100% 단독투자를 허용한다는 차원을 넘어 상당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법인세 감면, 자본재 수입 시 관세면제 또는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포함.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는 발전(원자력 제외), 송전, 배전, 고속도로, 유료 도로, 교량, 항만, 호텔 및 관광, 도시 개발 프로젝트, 주택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며, 이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투자 규모, 고용 창출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

・투기 도박업, 복권 비즈니스, 대부업, 주택 및 부동산업, 소매 유통업, 원자력 에너지 업종임. 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주택 건설 등 일부 사업은 허용하고 있으며, 소매 유통 또한 단일 브랜드에 한하여 51%까지 규제를 완화하였음

-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

・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되지 않는 업종, 즉 외국인 단독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투자 상한선 이내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총 23개*이며, 이들 업종은 투자 조건과 한도 비율이 각각 정해져 있음

* 1)공항, 2)광물, 3)농업,(플랜테이션 포함), 4)방송, 5)석탄/갈탄, 6)국내 항공, 7)방위/ 전략 산업, 8)약품/제약, 9)위성 설치/가동, 10)주택/부동산, 11)인프라/서비스, 12)보험, 13)복권 및 도박, 14)광업, 15)비 은행 금융회사, 16)석유, 17)우편업, 18)인쇄매체, 19)민간은행, 20)통신, 21)무역업, 22)도시개발사업, 23)벤처 캐피탈

[산업별 FDI 제한 현황]

제한 종류	해당 업종
투자 금지 업종	・도박, 복권, 소매업(단일브랜드는 제외) ・주택건설 및 부동산(소도시, 주택 건설, Built-up infrastructure, 건설 개발은 예외) ・양도가능개발권(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거래 ・Nidhi Company(신용조합의 일종) ・담배 ・원자력, 공공철도 등 민간투자가 금지된 업종 ・원예, 차, 특수분야 축산 등을 제외한 농업
정부 승인(FIPB) 필요 업종 (주요 산업 예시)	・공항(기존 공항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인 지분 74% 이상인 경우) ・자산 구조조정 회사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투자 회사(지분 제한 49%) ・방위산업(지분 제한 26%) ・출판매체(뉴스・시사 분야는 지분 제한 26%) ・방송(세부 분야별 지분 제한 있음) ・배달 서비스 ・통신(지분 제한 49% 초과 시, 지분 49% 이하는 자동 승인) ・ISP(지분 49% 초과 시) ・소매업(단일 브랜드, 승인 후 최대 51%까지 투자 가능) ・민간은행(74% 지분제한, 단, 49%이하는 자동승인) ・유무선통신(74% 지분제한, 단, 49%이하는 자동승인) ・신용정보제공(지분 49%) ・정유(공기업과 합작시 지분제한 49%)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한 74%)
자동 승인이긴 하나 지분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26%), 항공(49%)

자료 : FDI Policy, 2011.4, DIPP Min. of Commerce & Industry, Govt. of India

○ 투자인센티브

가. 특별 경제 구역

- 특별 경제 구역은 외화 순취득 의무를 달성할 경우 입주할 수 있으며 각종 조세 인센티브 (관세, 법인세. 소비세, 서비스세, 중앙 판매세 등), 운영상의 인센티브(영세기업(SSI) 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 허가 면제, 수입 시 별도 허가 불요 등)를 제공

- 인도 정부는 2000년 4월 특별 경제 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설립 및 입주 실적이 저조하자 특별 경제 구역법(SEZ Act 2005)과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동 법은 2006년 2월 발효되었다. 특별 경제 구역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 경제 구역법 개괄
    - 종래 입주 기업에게 수출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5년 내 외화 순취득 의무만 달성토록 간소화
    - 법인세 감면 범위를 확대
    - 영세기업 고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
    - 자본재 등 수입 시 관세를 면제

  * 조세 인센티브
    - 면세지역으로 지정 받아 무역활동, 관세, 조세 등에서 외국 영토로 간주
    -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 (spares)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 국내 시장으로부터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 조달시 소비세(Excise Tax)를 면제

・SEZ기업의 수출활동을 위한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세를 면제. 수출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세를 면제

・수출이익에 대해 초기 5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 향후 5년간 50% 면제, 추가 5년간 재투자 이익의 50%까지 면제

・제품의 주간(Interstate) 이동시 중앙 판매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는 주별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다르나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운영상의 인센티브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동승인

・SSI(소규모기업)유보 품목에 대한 투자 상한선 및 산업허가를 면제

・수입 시 별도의 허가 불요

・SEZ내 자체 통관시설 이용 가능

* 입주 기업의 의무

・SEZ 입주기업은 제조, 무역, 서비스업에 종사 가능

・SEZ 입주기업은 5년 내 외화 순취득(NFE) 의무

・개발구 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와 관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주기업의 사업성과를 감시

・면세수입품목의 5년 이내 실사 의무

나. 수출전용기업(EOU)

- 100% 수출기반기업(EOUs, Export Oriented Units)이나 STP(Software Technology Park)를 이용한 인센티브도 가능. EOU는 특별한 공단에 입주해 있지 않아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

단, 수출을 전제로 하며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협력업체도 EOU를 승인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OU는 보수업체, 재가공업체, 리엔지니어링업체를 포함한 재화를 생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면 어느 업체나 신청할 수 있으나 무역업체는 EOU가 될 수 없음. EOU도 조업 개시 5년 이내에 외화순수취(NFE)의무가 있음

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

-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I)는 IT산업의 육성을 위한 독특한 제도로서 인도 전역에 40여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인도 IT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입주한 기업이나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으로 등록된 기업은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데 다만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STP/EOU정책에 의한 지원은 애당초 200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한이 지난 현재(2011년 6월), 예정대로 지원이 만료된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제조 및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Back Office, 콜센터, 컨텐츠 개발, 데이터 처리 등 IT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단독기업, 합자기업, 외국기업의 자회사, 외국기업의 지사 등은 STP에 입주 가능

[STPI/EOU기업과 SEZ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STPI/EOU 입주기업	SEZ입주기업
지원기간	・설립 후 최장 10년 ・조세 혜택 중 소득세는 2009년 3월 31일까지로 만료. 다른 혜택은 지속 지원중	・제조 개시시점부터 15년
법인세 감면	・수출이익에 대한 100% 법인세 면세	・최초 5년간 수출이익 100%면세 ・추가 5년간 수출이익 50% 면세 ・재투자이익면세 (최대 수출이익의 50%까지)
관세 감면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서비스세	・입주기업에 의해 사용된 서비스는 서비스세 면세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입주기업이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세 면세 ・수출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세 면세
소비세	・자본재나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 S/W제작시 소비세 면세	・자본재나 원자재 구입시 소비세 면세 ・S/W제작시 소비세 면세

자료: NASSCOM, 2007 및 무역관 STPI 디렉터 인터뷰

라. 주정부별 인센티브

-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주들이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나두(Tamilnadu), 구자라트(Gujrat), 카트나타카 (Karnataka),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등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주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로는 부지공급, 지방세 면제 등의 방법이 일반적임

마.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

- 인프라/전력/주택 개발업

  · 도로, 고속도로, 교량, 철도, 용수 공급 및 처리 시스템, 관개시설, 위생시설과 하수처리 시스템 또는 고체 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의 시설 개발,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하여 총 20년 한도 내 10년 연속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짐

  · 내륙 항구 또는 수로, 공항, 항구의 개발,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기업에게도 총 15년 기간의 한도 내에서 10년간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짐

  · 재정법(Finance Act, 2007)은 인도 전역에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 등을 포함한 천연가스의 배급망을 운영 및 설치하는 회사에 대하여 10년간 면세혜택을 제공

- 식품 가공업

  · 2001년 4월 1일 사업을 게시한 과일, 야채의 포장·저장·가공업 또는 식품 곡류의 운송·저장업 종사기업에게는 최초 5년간의 면세혜택과 추가 5년간 수익의 30%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

- R&D

  · R&D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10년 연속 연구비용의 15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 가능 항목으로는 바이오 기술, R&D 시설, 화학·통신 장비, 컴퓨터 전자장비, 제약 등이 해당. 동혜택은 2011/12 회계연도까지 유효

- 호텔 및 컨벤션 센터

  · 재정법(Finance Act, 2007)은 비즈니스 호텔(2성급에서 4성급 호텔)과 특정 지역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로부터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사업 개시연도부터 5년간 100%의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

바. 관세 지원 제도

-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감면 (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 EPCG 제도에 따른 관세 감면을 신청한 제조 또는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를 5%만 납부. 2007/08년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5% 가량의 감면혜택. 이 자본재를 이용하여 수출품목을 생산해야 하며 관세 감면금액의 최소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8년 내에 수출완료해야 함.

  · EPCG 신청은 인도 상공부 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http://dgft.delhi.nic.in)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Infodrive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www.infodriveindia.com/tradelaw/exim/handbook/Forms/index.htm)

-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 면제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DFIA)

  · DFIA는 수출용 원자재의 면세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에만 적용됨. 이 제도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and Output Norms, SION)에 따른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제도임. 즉 SION으로 미리 규정된 품목에만 면세수입이 가능하며 규정되지 않은 품목은 설령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음. SION 리스트는 DGFT (http://dgft.delhi.nic.in/)에 명시. 또한 수입 원재료 대비 최소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함. DFIA 신청을 위해서는 인도 상공부를 통해 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제출

- 수출 간주 (Deemed Export Schemes)

  · 수출전용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s),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혹은 소프트웨어 파크 (STP, Software Technology Park)등에 입주한 기업과 여타 인도 국내기업간의 거래는 수출입거래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관세가 부과. 그러나 각종 수출촉진전용공단에 위치해 있어도 외환 순취득 조건 등의 입주조건을 준수하면 수입관세가 면제.

- 관세 환급 (Duty Drawback Scheme)

  · 대부분의 관세 지원제도가 관세 면제 또는 관세 경감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유일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관세환급법에 의거 운송서류, 수출면장 등을 제출하면 수출품에 관련된 원재료 수입 시 지불한 관세 및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환급신청서는 www.cbec.gov.in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CBEC(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 제출한 후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

- 관세 권리 장부 제도 (DEPS, Duty Entitlement Passbook Scheme)

  · 신청한 수출기업에 대해 개별 장부를 부여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완제품 수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를 플러스(+)로 기록하여 장부상에 잔고가 충분히 있다면 그 만큼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20달러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관세를 6달러 납부하였다면 장부에 -6으로 기재하고 추후 국내 원자재를 포함

하여 가공 후 6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30달러의 완제품을 수출하였다면 +6으로 기재하게 됨. 이로써 장부 상 잔고는 0이 되어 관세 납부가 면제. 이 예에서는 편의상 최소 발생 부가가치를 20%(수출액의 20%만 잔고로 누적)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품목에 따라 다름. DEPS 역시 인도 상공부 무역국(DGFT, http://dgft.delhi.nic.in/)을 통해서 신청

※ 그 밖에도 수출증가율이 20%이상인 기업에 대해 수입액의 5% 관세면제 혜택을 주는 Target Plus제도가 있음

□ 외국인 투자 동향

○ 자동차분야 FDI

- 인도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외국인 주식투자는 100% 자동승인을 하며 자동차부품수입을 자유롭게 허용

- 이는, 자동차미션플랜(AMP) '06~'16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분야 성장을 강조하는 인도정부의 의지를 반영

- '00년 ~ '10년 기간동안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산업분야에 총 4,710백만불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짐

- 최근에는 글로벌기업인 Honda, Volkswagen, Mercedes, Ford 등이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인도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

○ FDI 확대요인

- 자동차분야 FDI 확대요인으로는 ①생산기지로서 편리함, ② R&D 연구능력, ③친환경차 개발능력 등으로 분석

- 인도는 소형차 생산기지에 적합한 저임금 구조이며,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내수 및 수출기지로서의 유리함 동시 확보

- 또한, 신차 개발을 위한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4~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소프트웨어 역량 등 연구인력이 풍부

- 글로벌기업은 친환경 그린카 개발을 위한 생산과 연구개발이 동시에 가능한 국가를 인도로 판단하며 FDI를 확대

□ 해외주요자동차업체(완성, 부품) 인도내 주요투자 사례 및 현황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2011.6 (투자발표)	Hyundai Motor India	Hyundai Motor	한국	89.1	설비 투자	추가
2011.5	GM India	GM	미국	300	6개 신규제품 생산설비 확대	추가
2011.3	Toyota Kirloskar Motors	Toyota	일본	713.8	내수시장 공급을 위한 생산설비 확대	추가
2011.3 (투자발표)	Daimler India	Daimler	독일	981 (5년간)	부품공장 설치	추가
2011.1	Bosch	Bosch Group	독일	517.5	생산설비 투자	단독

3. 기타

○ 참고 사항

- BMW의 타겟시장인 중대형차분야는 도요타, 혼다, 아우디, BMW 등의 럭셔리 세단이 경쟁중이나 전체 시장비중은 아직 낮음

- 그러나, 글로벌기업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자동차 시장을 꾸준히 주목하고 있으며 럭셔리 세단의 시장확대를 기대

- 인도시장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인도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BMW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한국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III. 브라질

1. 브라질 자동차 산업 현황

□ 완성차 산업

○ 시장 특성

-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는 9년 전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피아트를 비롯하여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포드가 '빅4'를 형성하며 시장 전체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음. 이밖에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 및 혼다가 각각 3% 안팎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브라질에 본격 진출한 중국 체리가 2013년까지 시장 점유율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억 9천 200여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시장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아직 인구 7명당 1대에 못 미치는 약 3천여만대여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업계의 "Big 4"로 불리는 폴크스바겐, GM, 포드, 피아트에게조차 수익 보장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 경제 불안으로 많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시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계 어느 곳보다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함

- 최근 브라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폴크스바겐, GM, 포드 등 3개사와 르노에게 브라질이 매출액 순위 세계 3위 시장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피아트의 경우는 브라질이 세계에

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피아트 자동차의 경우는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보다 브라질에서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가격이 저렴한 국민차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나 경제 호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장기 할부 판매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최근에는 대형차, 고급차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SUV 차량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 1990년까지만 해도 브라질 자동차 생산의 대부분이 상파울루 주에 집중됐으나 최근 수년 사이 미나스 제라이스 주와 파라나 주 등 여타 지역에도 공장이 세워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저변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0년 주(州)별 자동차 생산비율은 상파울루 주 74.8%, 미나스 제라이스 주 24.5%, 파라나 주 0.5%, 리우 그란데 도 술 주 0.2% 였음.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상파울루 주 45.4%, 미나스 제라이스 주 24%, 파라나 주 10.9%, 리우 그란데 도 술 주 6.9%, 바이아 주 6.5%, 리우 데 자네이루 주 5.1%, 고이아스 주 1.2%로 나타나 상파울루에 집중되었던 자동차 생산기반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게다가 조만간 페르남부코 주에도 피아트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산 지역은 8개 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임

○ 시장 규모

-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주요국의 자동차 시장이 급격한 부진에 빠진데 반해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자동차 판매량 기준 세계 4위 시장으로 부상함

* 브라질은 세계 3위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떠오르기에 충분한 내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브라질 헤알화의 강세와 높은 세금, 생산 인프라 부족, 자동화 설비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음. 일례로 현재 브라질의 자동차 1대 당 생산비는 높은 세금과 자동화 설비 부족으로 중국에 비해 50%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현황**

- 자동차 수입량은 2006년 14만1천대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브라질 헤알화의 강세로 인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현지 컨설팅 업체인 RC Consultores는 "2011년 수입차 수요는 작년보다 30% 가량 늘어나면서 수입량이 108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함. 한편 2011년 자동차 수출량은 헤알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년대비 25% 증가한 98만4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시장 동향**

-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신기록을 달성하며 호황을 누린 것으로 집계됨. Anfavea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363만8천대, 판매량은 351만5천대로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사상 최대치로 기록함. 2009년 실적과 비교할 때 생산량은 14.3%, 판매량은 11.9% 증가함. 특히 판매량은 4년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함

- 2010년 자동차 판매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Big 4” 브랜드에 속하는 피아트가 22.84%, 폴크스바겐이 20.95%, 제너럴모터스(GM)가 19.75%, 포드가 10.1% 등으로 나타남. 그밖에 르노가 4.82%, 혼다가 3.8%, 현대차가 3.18%, 도요타가 2.99%, 푸조가 2.71%, 시트로엥이 2.52%의 점유율을 나타냄. 특히 지난해 판매량 7만 1000대를 기록한 현대차는 판매시장 점유율은 7위지만 판매량 증가율은 49.2%로 자동차 업체 중 가장 성장률이 높았음

- 3월부터 브라질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중국 기업 JAC는 브라질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기어박스, 연료 탱크 뚜껑, 에어컨, 타이어 등을 242개 부품을 교체 또는 보완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저가 중국산 자동차의 대거 진출과 더불어 포르투갈 등 유럽 자동차 브랜드 들도 다수 브라질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조만간 브라질 중소형 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임

[중국산 자동차 판매 동향]

브랜드	판매량(대)	
	2009년	2010년
Chana	304	868
Effa	452	3953
Chery	497	7000
Hafei	1248	4207

자료원: Folha de Sao Paulo

- 한편 수차례 연기되었던 현대 자동차 브라질 공장 기공식이 지난 4월에 개최됨. 현대 자동차는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생산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계획임. 한편 현대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피라시카바시는 현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 전망

- 올해 브라질 자동차 산업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Anfavea는 “내수시장 소비 확대로 인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됨

- Anfave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363만8천대, 판매량은 351만5천대로 집계됨. 그러나 올해는 생산량이 368만대인 반면 판매량은 369만대로 추정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국산차 공급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수입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산 자동차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66만100대로 전년의 48만9천대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차 비중은 2009년 15.6%에서 지난해는 18.8%로 늘어났고 올해는 22% 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브라질은 경쟁력 있는 노동력, 풍부한 자원,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경제 등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계속 성장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서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2014년까지 59억 달러 규모의 대 브라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18억 달러를 투입하여 제 2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차와 중국의 체리 자동차도 브라질 공장 건설을 시작함. 이에 따라 현재 연간 364만대로 세계 6위인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도 조만간 대폭 증가할 전망임

-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다양한 모델의 중소형 자동차가 수입되면서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3만7천990헤알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J3 해치형 자동차는 브라질 현지 모델 Gol, Palio, Fiesta 등의 국민차 모델과 경합하고 있으며 3만9천990헤알에 판매되는 J3 세단형은 Siena, Voyage 등과 경합 중 한편 올해 6월에는 J5와 J6가 수입돼 도요타의 Corolla, 혼다의 Civic 등 중형차 모델과 경쟁할 전망임

- 달러 안정세 유지, 신용확보 용이, 자동차 시장 활황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려는 자동차 업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음

  *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지 10여년 되는 포르투갈업체 Auto Sueco의 경우, 대형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는 상파울루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북동부 지역에서 입지를 굳힌 후 상파울루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한편 브라질 개발 통상 산업부는 최근 자동 수입 허가 발급 대상이던 자동차를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수입 허가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조치를 발표함. 동 조치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수입 규제 조치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브라질 수출업체의 탄원을 받아들여 취해진 것임

  *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수입 심사제는 최근 수입량이 폭증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산 차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1/4분기 약 3억 990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자동차가 수입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국자동차는 263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수입됨. 특히 중국차량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국제경쟁력

-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0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4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승용차와 경트럭을 포함한 2010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345만대에 달해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위 자동차 판매국으로 부상함

- Anfavea는 최근 “2015년에는 브라질 자동차 판매시장이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2010년 브라질의 자동

차 판매량은 351만대를 기록해 중국(1천800만대), 미국(1천160만대), 일본(500만대)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함. 그러나 2015년에 이르면 브라질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내 BMW 생산/내수/수출입 현황**

- 브라질에서는 BMW 자동차 생산시설이 없음. 2010년 기준 수입량은 8,401대로 조사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입량(대)	2,106	1,450	1,125	1,291	1,859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량(대)	2,043	2,707	2,906	5,542	8,401

자료원: Abeiva

[2010년 Abeiva 회원사 업체 별 자동차 수입 동향]

제조업체 명	단위: 대
ASTON MARTIN	18
AUDI	3,272
BENTLEY	10
BMW	8,401
CHANA	1,824
CHERY	8,733
CHRYSLER	658
DODGE	2,955
EFFA CHANGHE	646
EFFA HAFEI	5,471
FERRARI	41
HAFEI MOTOR	6,246
JAGUAR	76
JEEP	969
JINBEI AUTOMOBILE	273

제조업체 명	단위: 대
KIA MOTORS	57,626
LAMBORGHINI	18
LAND ROVER	5,102
LIFAN	1,131
MASERATI	26
MINI	1,743
PAGANI	1
PORSCHE	1,504
SPYKER	1
SSANGYONG	5,810
SUZUKI	4,973
VOLVO	2,198
Total	**119,726**

자료원: Abeiva 회원사 차량 수입 통계로
현대, 토요타 혼다 등 비 회원사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음

○ 조업중인 완성차 업체 리스트

기업명 (한/영)	현대자동차 /Hyundai CAOA*	피아트 /Fiat	포드 /Ford	지엠 /GM	혼다 /Honda	도요타 /Toyota	르노 /Renault	푸조 /Peugeot Citroën
설립연도	N/A	1976	1919	1925	1997 (공장가동)	1958	1998 (공장설립연도)	1997
공장소재도시	Anáapolis (GO)	Betim (MG) Campo Largo (PR)	Camaçcari (BA) Horizonte (CE) São Bernardo do Campo (SP) Taubatée (SP) Tatuíi (SP)	São Caetano do Sul (SP) São José dos Campos (SP) Mogi das Cruzes (SP) Gravataíi (RS) Indaiatuba (SP) Sorocaba (SP) Porto de Suape (PE)	Sumaré (SP)	São Bernardo do Campo (SP) Indaiatuba (SP) Guaíiba (RS)	São José dos Pinhais (PR) São Paulo (SP)	Porto Real (RJ)
종업원수(명)		14,905	9,997	21,291	3,416	3,277	4,897	3,894
생산차종		승용차 경차	승용차 경차 트럭	승용차 경차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 경차	승용차 경차

매출액(백만 USD)		20,600	15,537	8,431	4,851	5,427	3,570	3,859
생산능력(국내,천대)	N/A	800	N/A	N/A	N/A	N/A	N/A	150
생산(천대)	24	757	353	651	131	64	172	149
내수(천대)	111	767	358	661	130	99	158	177
수출(천대)	-	66	71	78	26	10	56	17
홈페이지	www.hyundai-motor.com.br	www.fiat.com.br	www.ford.com.br	www.chevrolet.com.br	www.honda.com.br	www.toyota.com.br	www.renault.com.br	carros.peugeot.com.br
해외공장*	인도,중국,미국,터키,체코							
외국완성차 업체와의 자본·기술제휴 관계								

자료원: Anfavea, Abeiva, 각 기업 공식사이트 참조

* Hyundai-Caoa는 브라질 현지 업체 Caoa가 현대자동차의 기술 지원은 받아 설립한 업체로 이미 조업 중이며, 순수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현재 공장 건설 중임

□ 자동차 부품산업

○ 시장 특성

- 90년 대 중반부터 자동차 부품 업계에는 다수업체 들의 합병 및 인수 등으로 많은 구도 변화가 있었음. 2000년에 접어들어 철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2004년 이후 달러화 가치 하락 등 주변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해 시장이 소폭 위축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증가세를 지속해 오고 있음

- 1981~83년 자동차 부품 업계 불황 이후, 내수 시장용 생산은 거의 50% 이상 감소한 반면 완성차를 통한 간접 수출 및 해외 소재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수출이 날이 갈수록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

- 해외 시장 수출이 늘어나면서,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외국 업체에 부응하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부품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제조사 들은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생산 단계에 이르면, 공개 입찰을 통해 부품 업체를 선발하게 되는데, 제품 가격, 업체의 재정적 기반, 납품 기한 등의 여러 조건을 비교 분석한 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사하는 업체에게 공급권이 주어짐

- 자동차 제조업체는 최근 들어 부품 공급 업체와 더욱더 관계를 좁혀나가는 추세로, 특히 핵심 부품 모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들과는 “모듈러 컨소시엄(Modular Consortium)”을 구성하여 자동차 제조에 관련된 비용 및 위험을 함께 분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브라질 폴크스바겐은 이러한 모듈러 컨소시엄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업체로 8개의 모듈러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트럭 제작에 직접 참여함.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폴크스바겐은 우수한 부품 업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제작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하지만 업체 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스스로 도태하는 업체 및 인수, 합병을 통해 합심,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성공하는 경우도 다수 생겨남.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요 모듈을 공급하는 대형 부품 전문 업체 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부품 생산업체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거나 부품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의 수익 마진은 낮은 편인 반면, 수출용 부품이나 사후 서비스 (After Market)시장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마진은 비교적 높은 편임

- 현재 브라질 자동차 부품업체의 30%는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업체로 외국자본 비중은 1999년에는 약 60%까지 달했으나 현재는 30%정도로 감소함

  * 특히 핵심 부품을 취급하는 Tier 1 그룹에 속하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100% 외국 자본이며 일부 소수만이 브라질 현지 기업과 joint venture 형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밝혀짐.

  * 외국 계 자본은 독일 21.7%, 미국 20.9%, 스페인 8.7%. 이탈리아 7.9%, 일본 7.5%, 프랑스 5.9%, 우루과이 3.5%, 기타 24.0%로 구성됨

- 브라질 자동차 부품협회(Sindipeças) 및 지리통계원(IBGE) 통계에 의하면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의 70.5%는 제조공정에 사용되며, 14.6%는 사후 서비스 시장, 7.5%는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짐

- 부품 시장은 자동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상파울루 주에 전체의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음
  * 부품 업체 729개사 중 510개 업체가 상파울루에 소재, 69개 업체가 미나스제라이스에, 40개 업체가 리오 그란테 도 수르 주에 소재함

-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따라 부품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사후 시장(After Market)용 부품 수입량은 달러 약세에 힘을 받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엔진, 변속기, 트랜스미션 부분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핵심 부품의 경우는 주로 유명 다국적 기업 들이 독점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부품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기업이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브라질 현지 기업임
  * 현지 생산중인 차의 대부분이 유럽기업의 것으로 유럽산 부품비중이 높음

[브라질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Sales						
Value in currency (R$ million)	61,464	62,121	68,283	75,171	75,668	86,387
Value in dollars (US$ million)	25,263	28,548	35,064	40,992	37,895	49,767
Percentage distribution per destination(%)						
Assemblers OEMs	61.7	61.5	65.8	66.3	68.8	70.5
After market	12.3	12.0	13.6	13.2	14.3	14.6
Exports	18.7	19.0	13.1	12.0	9.3	7.5
Inter -Sectorial	7.3	7.5	7.5	8.5	7.6	7.3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Trade balance(US$ million FOB)						
Exports (direct and indirect)	7,486.2	8,764.0	9,131.3	10,071.3	6,636.2	9,602.6
Imports	6,655.0	6,779.2	9,215.6	12,610.2	9,124.0	13,149.4
Balance	831.2	1,984.8	(84.2)	(2,538.9)	(2,487.7)	(3,546.8)
Investments (US$ million)	1,413.0	1,300.0	1,385.0	2,104.0	631.0	1,492.0
Share of Investments on sale results (%)	5.6	4.6	3.9	5.1	1.7	3.0
Employees(thousand employees)						
Hourly Workers	141.5	143.3	156.2	149.9	123.2	146.4
Monthly Workers	55.0	55.7	60.8	57.6	76.3	78.2
Total	196.5	199.0	217.0	207.5	199.5	224.6
Idle capacity (%)	13.0	15.0	13.0	15.0	23.8	17.2
Electric energy consumption (billion kWh)	5.5	5.8	6.1	6.2	4.3	6.4

자료원: Sindipecas, IBGE

* 추정치

○ 시장 규모

- 2009년 브라질 자동차 부품 총 매출액은 379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하락함. 한편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난 2010년의 경우 매출액이 약 500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대비 3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브라질에는 SINDIPEÇA(자동차 부품업체 조합) 소속 504개 사(741개 생산 공장)의 부품 생산 회사가 있으며 약 22만 4600 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브라질 전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유통업체는 약 250개사, 소매상은 3만 여개 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브라질 전체 자동차 부품 생산 시설 741개 중 약 70%에 해당하는 516개가 상파울루 주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별 자동차 부품 생산 시설 분포 동향]

자료원 : Sindipeça

- 상파울루 주의 경우 약 12,000여개 자동차 부품 전문 판매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중 65%에 가까운 업체가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밀집되어 있는 상파울루 시 외곽의 ABC 지역 (Santo André, São Bernardo, São Caetano do Sul)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현황**

- 2009년 브라질 자동차 부품 수입은 91억 달러, 수출은 66억 달러로 약 25억 달러 상당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2009년 전체 부품 수입액의 17.5%에 해당하는 15억 9200만 달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됨. 2위는 독일(13억 4000달러), 3위는 미국(10억 6500만 달러)로 나타남

* 한국은 14위로 115만 달러 상당의 부품이 수입됨 (시장 점유율 1.3%)

[주요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단위: US$ FOB 1000 >

순위	HS Code	2000	%	2009	%	2010	%	2000/2010 %
1	8798.40.90	22,756	5.4	94,253	10.3	130,301	9.9	472.6
2	8708.99.90	64,605	15.2	75,607	8.3	106,559	8.1	64.9
3	8708.29.99	26,111	6.2	67,897	7.4	91,503	7.0	250.4
4	8407.34.90	21,186	5.0	23,834	2.6	31,751	2.4	49.9
5	8483.40.10	67,725	1.6	17,700	1.9	30,538	2.3	350.9
6	8409.91.90	86,365	2.0	21,242	2.3	26,147	2.0	202.7
7	8708.30.90	N/A	0	18,351	2.0	24,435	1.9	0
8	8409.99.90	98,665	2.3	13,781	1.5	24,147	1.8	144.7
9	9032.89.29	68,725	1.6	20,673	2.3	23,843	1.8	246.9
10	8536.50.90	86,319	2.0	16,672	1.8	23,572	1.8	173.1

자료원: SINDIPEÇAS

[주요 자동차 부품 수출 동향]

<단위: US$ FOB 1000>

순위	HS Code	2000	%	2009	%	2010	%	2000/2010%
1	8708.99.90	44,293	11.6	59,341	8.9	74,725	7.8	68.7
2	8708.29.99	62,461	1.6	38,957	5.9	53,612	5.6	758.3
3	8409.99.12	12,251	3.2	21,675	3.3	48,625	5.1	296.9
4	8407.34.90	10,859	2.8	23,205	3.5	48,454	5.0	346.2
5	8708.34.90	89,739	2.3	23,809	3.6	48,172	5.0	436.8
6	8481.80.99	11,909	0.3	36,334	5.5	37,179	3.9	3,022.0
7	8707.90.90	17,993	4.7	24,450	3.7	30,845	3.2	71.4
8	8708.30.90	N/A	0	24,450	3.7	29,735	3.1	0
9	8708.50.80	N/A	0	16,304	2.5	25,189	2.6	0
10	8483.10.19	N/A	0	10,717	1.6	24,452	2.5	0

자료원: SINDIPEÇAS

○ 최근 시장 동향

-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다수 부진하던 자동차 완성차 산업 및 부품 산업은 2010년에 접어들어 활기를 띄고 있으며, 신규 투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브라질 자동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품 공급 업체의 현지 진출 및 생산 시설 확장이 증가하고 있음.
  * Johnson Electric의 경우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의 상당 부분을 조만간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Delphi는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Minas Gerais 주, Conceição dos Ouros 지역에 차량용 배전 시스템 신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함

- 한편, 얼마 전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브라질 소재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여타 업체들은 부품 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시장 전망

- 브라질 경제 회복, 중산층 소비자 증가, 소비자 구매력 향상, 자동차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 등 다수의 요인에 따라 2011년 자동차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현대자동차 피라시카바(Piracicaba) 공장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으로 향후 현대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다수가 브라질 시장에 동반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현대 자동차 및 협력사 투자 총액은 12억 달러로 추정됨
  * 현대 및 협력사 투자 진출로 피라시카바 인근지역 대규모 자동차 산업단지가 설립될 전망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중 증가 등이 외국기업들이 브라질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경쟁력

-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일본산 부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며(수입액 기준) 이어서 독일, 미국 등으로 부품이 다수 수입됨. 동 수입품들은 자국 브랜드 자동차 조립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덩달아 부품 수입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 브라질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최근 10년간 유럽산 부품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음

- 브라질 자동차부품수입시장에서 한국은 랭킹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1.3%로 나타남

  * 2009~2010년 한국산 부품 판매율은 한국산자동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무려 487.1% 증가함

○ **브라질내 부품업체 대BMW 납품 현황**

- 브라질에서 BMW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Autostar"를 통해서 반입됨. BMW 차량의 고장 수리나 부품교체는 Autostar이 직영하고 있는 차량정비소를 통하거나 Autostar로부터 공식허가를 취득한 차량정비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됨

- Autostar 상파울루 지역 차량 정비소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BMW 자동차 부품은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 일체가 BMW가 생산한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리스트

기업명	생산품목	매출액 (백만)	주납품대상	자국/외투	비고
Visteon Sistemas Automotivos Ltda	엔진 모듈, 차량용 멀티미디어, 에어컨, 연료 펌프 등	US$ 1,026 (브라질)	Ford, GM, Fiat 등	Visteon Corporation	
Schaeffler	라디에이터, 에어컨디셔닝시스템, 변속기, 점등시스템 등	9,500유로 (전세계)	Renault, Honda, GM 등	Schaeffler Technologies GmbH&Co. KG	
Dana Industria Ltda	샤시, 프론트 엔드 모듈, 도어 등	US$ 1,000 (남미)	Toyota, Citroen, Peugeot, Honda, Volkswagen 등	Dana Holding Corporation	
Bosch Autopeças	엔진 모듈, 카 오디오 제품, ABS 시스템 등	R$ 4,500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 대부분	Robert Bosch GmbH	
Delphi Automotive Systems	차량용 에어컨, 엔진 냉각 시스템, 라디에이터, 컨덴서, 히터 등	US$ 1,171 (브라질)	Fiat, Volkswagen , Honda 등	Delphi Automotive LLP.	
Trw Automotive Ltda	에어백, 브레이크, 실린더, 연료 탱크 등	R$ 1,700 (브라질)	Toyota, VW, GM, FIAT, Honda 등	TRW Inc.	
Valeo Sistemas Automotivos Ltda.	라디에이터, 냉각 시스템 모듈, 엔진 연료 점화 시스템, 점화 코일, 속도 측정 센서 등	R$ 1,300 (브라질)	DaimlerChrysler, Fiat, Ford, GM, Iveco,Honda, Mitsubishi, PSA 등	Valeo Group	
Denso Do Brasil	차량용 에어컨, 콘덴서, 필터, 차량용 튜브 등	R$ 1,200 (남미)	Fiat, , Iveco Renault-Nissan, Peugeot-Citroën, Scania 등	DENSO Corporation	
Johnson Controls	카 시트	US$ 40,000 (전세계)	Toyota, Renault, Mitsubishi 등	Johnson Controls, Inc	
Maxion S/A	샤시, 잠금장치, 바퀴용 부품 등	R$ 2,227 (브라질)	Ford, Fiat, Mercedes Benz, Volkswagwen, GM, Volvo, 등	-	
Magneti Marelli	연료 모듈 전문 업체로 관련 부품도 생산함.	R$ 2,245 (브라질)	Fiat, GM, Ford Mercedes Benz 등	Magneti Marelli S.p.A	

자료원: Kotra 자체 조사

□ 자동차 산업 최근 3개년 정량 데이터

연도	2008	2009	2010
업체수(개) *제조업체만 포함	25	25	25 (자동차 부품 포함 자동차 관련 산업 전체: 20만 여 개사)
종업원수(명) *직접고용만 포함	126,000	124,000 (직・간접 고용 인력 합산: 150만 명)	136,000
매출액(백만US$)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N/A	79,000	N/A
생산액(백만US$)	N/A	N/A	N/A
출하액(백만US$)	N/A	N/A	N/A
수출액(백만US$)	13,932	8,318	12,865
승용차 수출(대수)	558,207	373,747	614,636
승용차 수입(대수)	362,411	442,624	486,421
승용차 판매(대수)	1,962,369	2,160,421	2,213,617
고급차(2000cc이상) 판매(대수)	31,599	31,973	31,597
인구(천명)	189,613	191,481	193,253 *추정치
가구수(천)	N/A	N/A	56,500
자동차보유(대)	N/A	N/A	약 3000만
자동차1대당 인구(명)	N/A	N/A	약 7명
자동차1대당 가구	N/A	N/A	N/A
천명당 승용차 보유(대)	N/A	N/A	315

자료원: Sindipeça, IBGE, Anfavea, Abeiva, KBC 보유자료 종합

□ 자동차 부품 산업 최근 3개년 정량 데이터

연도	2008	2009	2010
업체수(개)	N/A	509	N/A
종업원수(천명)	207.5	205.0	N/A
생산액(백만US$)	40,992	34,927	49,090
출하액(백만US$)	N/A	N/A	N/A
수출액(백만US$, FOB)	10,071.3	6,636.2	N/A

자료원: Sindipeça

2. 브라질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유치(Inward FDI) 지원정책

○ 외국인 투자 환경

1) 대 브라질 투자 매력요인

- 남미최대시장

브라질에 대한 투자 장점으로는 우선 거대한 내수시장을 들 수 있음. 즉 인구와 면적 면에서 세계 5위 대국이고 GDP면에서도 남미 최대국가임

- 남미진출거점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최적의 남미진출 거점으로 꼽히고 있음

- 남미경제통합의 중심

브라질은 1995년 1월부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켰고 멕시코와 800개 품목에 달하는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안데스공동체(CAN)와도 FTA를 체결함. 또한 미주 자유무역지대, 메르코수르-EU 자유 무역협정 등을 다수의 자유 무역협정을 추진 중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함

-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기반 최고

중남미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남미 인근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음. 그러나 브라질 주 정부와 시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음

□ 왜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투자 이점이 있는가 :

○ 정부가 모든 형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견지
○ 외국기업이나 자본에 대한 차별이 없고 국유화 가능성 없음
○ 많은 인구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용역의 대규모 판매시장 형성
○ 대부분의 남미국가와 접경하고 있어 중남미진출 생산거점지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기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중남미 최대의 산업기반시설로 투자진출이 용이함
○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세계광산
○ 전 세계의 경작지 중 22%를 차지함. <=세계목장 및 대체에너지자원
○ 중남미 최대의 통신, 전력기반 시설 갖춤
○ 위성, 항공기 등 첨단산업발달 및 전문 인력의 조달풍부
○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크고 가장 다변화된 산업 기반을 갖춤
○ 커피, 오렌지, 사탕수수 세계 최대 생산국
○ 수많은 항구를 갖춘 연안망과 강 운송망 보유
○ 세계 식량 생산대국 중 하나
○ 소비재 생산 대국
○ 우수한 관광 인프라 보유
○ 연간 5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세계 제일의 지역 제트기 생산국

○ 주요 투자 사례

* 하기 정보는 통상개발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RENAI(투자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투자 사례로 2010년 상반기에 발표된 정보임.

1) 숙박시설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Accor Hotels	프랑스	516,129,032	64개의 호텔 건설-Ibis, Formule 1, Mercure, Novotel	다수지역 2010-2012
2	Grupo Ebx	브라질 한국	68,571,429	Glória호텔 보수	RIO DE JANEIRO /RJ 2010-2011
3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Ihg)	영국	388,601,036	브라질 내 체인 확장을 위한 투자	정보입수불가 2010-2018

2) 자동차, 기계 장비의 임대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Solaris (sullair)	아르헨티나	40,000,000	수익확대를 위한 투자 / 3개의 지점 개점	북부,RJ,SP 2010-2012

3) B2B 서비스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ABB LTDA	스위스	128,000	디젤모터, 터보과급기 보수유지 서비스	Manaus/AM 2010-2010	
2	DEDIC GPTI (GRUPO PORTUGAL TELECOM)	포르투갈	30,857,143	건물, 기술 관련 인프라 투자	Londrina/PR 2010-2010	7천개 일자리 창출 예상
			14,857,143	2800명 규모의 call center 설립	Campinas/SP 2010-2010	
3	TELEPERFORMANCE	프랑스	15,544,041	지점 건설	다수/SP	

4)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와 판매/ 연료 소매판매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Lojas renner	브라질 미국	80,059,880	14개 상점 개점	다수지역 2010
			3,772,455		SÃO PAULO - SP 2010
2	Vocal (auto sueco)	포르투갈	62,430,939	Grupo Auto Sueco의 Vocal인수합병을 위한 투자	다수지역 2010-N/A

5) 소매상/ 개인용품, 가정용품의 수리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Bridgestone Bandag Tire Solutions (Bbts)	영국 일본	15,000,000	브라질 내 상점 증설	다수지역 2010-2014
2	Carrefour	프랑스	1,428,571,429	전자시장과 유통센터, 상점 증설	다수지역 2010-2011
3	Cavalleria Toscana	이탈리아	1,362,850	Vila Olimpia쇼핑 내 상점 개설	São Paulo - SP 2010-NA
4	Leroy Merlin	프랑스	598,802,395	19개 상점 확장, 보수 20개 상점 개점 온라인 판매 실시	다수지역 2010-2014
5	Lojas Renner	브라질 미국	1,612,903	2개 매점 개점	다수지역 2010-2010
6	Squarestone Brasil	브라질 영국	376,344,086	B,C계층 대상 전략투자	미정

6) 플라스틱, 고무제품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Amanco Brasil (Grupo Meichem)	멕시코	103,626,943	Uberaba(MG)의 공장활성화와 생산력 20%향상	다수지역 2010-2010
2	Pirelli	이탈리아	100,000,000	농업용 타이어 생산기술 투자	정보입수불가 2010-2013
3	Vitopel	아르헨티나	55,000,000	포장필름 개발	미정 - SP 2010-2010

7) 종이, 제지, 펄프 산업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International Paper do Brasil (IP)	미국	300,000,000	공장생산력 2배 확장	Tres Lagoas -MS 2010 -N/A
2	SIG Combibloc (rank)	뉴질랜드	107,000,000	브라질 내 첫 생산공장	Campo Laro-PR 2010-2016

8) 코크스, 석유 정제, 핵 연료 및 에탄올 생산 제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Bunge Alimentos	네덜란드	750,000,000	에탄올 공장 3개 확장	정보입수불가 2010-2013

9) 제조장비, 의료기구, 정밀 광학 장비, 시계, 자동화기계 생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Essilor	프랑스	43,433,000	유기 렌즈와 다층적 치료분야 투자	Manaus-AM 2010-2012

10) 전자기기와 통신산업장비기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Elcoteq	핀란드 룩셈부르크	37,264,000	휴대폰단말기 생산투자	Manaus-AM 2010-2012
2	LG Eletronics	한국	4,116,000	자동차오디오와 DVD생산확대	Manaus-AM 2010-2012
3	LG Eletronics	한국	10,995,000	에어컨 생산설비 현대화	Manaus-AM 2010-2012
4	LG Eletronics	한국	27,512,000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 DVD 플레이어, 카세트 및 컴팩트 디스크. 컬러 TV, 라디오 생산설비 현대화	Manaus-AM 2010-2012
5	Panasonic	일본	87,940,000	LCD 컬러 TV생산 확장	Manaus-AM 2010-2012
6	Philips Eletronica da Amazonia	네덜란드	411,428,571	LCD생산 500개의 일자리 창출	Manaus-AM 2010-2012
7	Philips Eletronica da Amazonia	네덜란드	21,897,000	디지털비디오디스크, DVD blu ray생산 확작	Manaus-AM 2010-2012
8	Procomp(Diebold)	미국	1,876,000	LCD모니터 생산확대	Manaus-AM 2010-2012
9	Procomp(Diebold)	미국	151,000	자동화시스템의 절단기 설치투자	Manaus-AM 2010-2012
10	Procomp(Diebold)	미국	1,415,000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제어기기 생산	Manaus-AM 2010-2012
11	PST Industria Eletronica a Amazonia (Stoneridge)	미국	704,000	전자동문 생산	Manaus-AM 2010-2012
12	PST Industria Eletronica a Amazonia (Stoneridge)	미국	916,000	경비, 보안, 안전장치 생산	Manaus-AM 2010-2012
13	Samsung	한국	261,439,000	휴대폰 단말기 투자	Manaus-AM 2010-2012
14	Unicoba	한국	7,255,000	GPS 생산	Manaus-AM 2010-2012

11) 기계, 장비 생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General Electric	미국	35,000,000	GE Celma터빈 유지, 확장 투자	Petropolis-RJ 2010-2010
			62,000,000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의료장비 생산공장 설립	다수지역-MG 2010-2010
			21,000,000	석유 생산, 탐사 기기 생산	다수지역 2010-2010
2	Gree Electric Appliances do Brasil	중국	8,835,000	벽걸이 에어컨 생산투자	Manaus-AM 2010-2012
3	JCB do Brasil	영국	55,248,619	생산설비 확장	Sorocaba-SP 2010-N/A
4	LG Eletronics	한국	6,511,000	전자레인지 생산	Manaus-AM 2010-2012
5	Metro Paper	핀란드	29,940,120	서비스, 운영체계 투자 - Aker Solutions가 Curitiba공장 설립 담당	Araucaria-PR 2010-2015
6	Sany	중국	200,000,000	기기, 장비 생산공장 설립	미정-SP 2010-N/A
7	Siemens	독일	600,000,000	지하철산업분야 투자	다수지역 2010-2015
8	Subsea 7	노르웨이	59,880,240	지하 석유관 건설	Pontal do Prana- PR 2010-N/A
9	Sumitomo Heavy Industries	일본	57,600,000	에너지전송장비 건설	Sao Paulo-SP 2010-N/A
10	Terex	미국	77,720,207	생산공장 설립, 기존 생산력 확장	Guaiba-RS 2010-2011
11	Volvo Equipamentos de Construcao (grupo volvo)	스웨덴	10,000,000	상파울로 공장시설 현대화	PEderneiras-SP 2010-2010

12) 사무기기와 컴퓨터 장비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Jabil do Brasil Industria Eletroeletronica	미국	948,000	컴퓨터 자판 생산	Manaus-AM 2010-2012

13) 기계, 장비, 전기기기 부품 제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LS Cable	한국	250,000,000	케이블, 전선 생산공장 설립	Resende-RJ 2011-N/A
2	Siemens	독일	150,000,000	생산규모 20%확장	다수지역 2010-2010

14) 운송장비 생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ANGA(Triumph)	브라질 영국	1,786,000	4륜자전거 생산	Manaus-AM 2010-2012
2	Consorcio Galictio (Atein, Rayma, Gabadi, Indasa)	스페인	179,115,000	선박 수리 센터	Ipojuca-PE 2010-2013
3	Federal Mogul Eletrical do Brasl	미국	177,000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용 랜턴 생산	Manaus-AM 2010-2012
4	Haobao Motor	중국	1,288,000	오토바이 생산	Manaus-AM 2010-2012
5	Helibras(Eurocopter/Eads/Bueninves/Mgi)	브라질 프랑스	420,000,000	생산부지 확장	Itajuba-MG
6	Kasinski(grupo zongshen)	브라질 중국	41,854,000	모터사이클, 스쿠터 생산	Manaus-AM 2010-2012
7	Kawasaki Motores Brasil	일본	68,771,000	모터사이클 생산	Manaus-AM 2010-2012
8	Sodecia da Amazonia Ltda.	포르투갈	14,812,000	오토바이용 부품생산	Manaus-AM 2010-2012
9	STX	노르웨이	100,000,000	조선소건설	Quissama-RJ 2010-2010

15) 식음료 생산

No.	투자가	투자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기타
1	AMBEV	브라질 벨기에	194,300,518	13개 주, 맥주 생산확대	다수지역-SP
			651,813,470	1개의 공장 설립	다수지역
			78,756,477	기존 공장 생산규모확대	Viamao-RS
2	Arosuco Aromas e Sucos(AMBEV)	브라질 벨기에	3,552,000	포장재품 생산	Manaus-AM 2010-2012

16) 식품 및 음료분야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Industria de Bebidas Sao Miguel	페루	14,099,944	비알코올 음료 .공장 건설	Alagoinha/BA 2010- N/A
	Nestle	스위스	18,134,715 253,886,010	가루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생산시설 증대	Ibia/MG 2010-2015
	Shree Renuka	인도	117,204,301	사탕수수 분쇄시설 증대	정보입수불가 2010-N/A

17) 금속제품(중장비 제외)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Novelis do Brasil(Hindalco)	인도	8,000,000	금속가공 시설 확대	Santo Andre/SP 2010-2010
	S o n o c o For-Plas	미국	1,000,000	신규생산라인 설치	Araras/SP 2010 - N/A

18) 비금속 제품 생산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C o m p a n h i a Brasilrira de Cristal-Cebrace	프랑스	337,078,652	유리생산시설 확대 및 신규 공장 건설	정보입수불가 2010-2011

19) 담배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Souza Cruz	영국	1,036,269,430	물류인프라 보강, 생산시설 증대, 장비 근대화 등	정보입수불가 2010 - 2014

20) 의약품 생산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BASF	독일	7,772,021	생산시설 현대화	SaoBernardo do Campo/SP 2010-2010
	Bayer	독일	11,797,753	농약연구센터 설립 data center 설립 본사시설 확충 등	Belford Roxo/RJ

21) 화학제품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Ferring Pharmaceuticals	스위스	50,000,000	신규공장 건설 및 시설확장	정보입수불가 2010-2011
	Givaudan	스위스	8,982,036	시설확충	Sao Paulo/SP 201-2010
	Nycomed	스위스	300,000,000	병원용 의약품 개발	정보입수불가 2010-2015
	Sanofi-Aventis	프랑스	55,000,000	Suzano, Sumare, Campinas 공장 생산시설 확충	다수 지역 2010-2012
	Sika	스위스	5,181,347	공장시설 확충	Osasco/SP 2010- N/A
	Tintas Coral (Akzo Nobel)	네덜란드		공장인프라 확츙, 기술 투자, 페인트 생산시설증대	정보입수 불가 2010-2010
	Valeant	미국	5,000,000	신규장비구매	정보입수 불가 2010-2010

2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조립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료젝트 착수 종료일
	Dephi do Brasil	미국	40,000,000	컴프레셔 생산시설 확충	Jaguariuna/SP 2010-2010
	Fiat do Brasil	이탈리아	3,626,943,005	자동차, 부품, 농기계 생산시설 확대	다수지역 2010-2014

	Magal(Honsel)	독일	5,988,024	주조작업 라인 확충	정보입수불가 2010-2010
	Mitsubishi	일본	414,507,772	신차생산 시설 확충 *약 1000명의 직접고용창출 예상	Catalao/GO 201-2015
	MWM Interna-tional Motores (Navistar)	미국	345,000,000	신기술 개발, 바이오디젤/에탄올 엔진개발	정보입수불가 2010-2014
	Nc2Global LLC (Navistar&Cate-pillar)	미국	120,000,000	중형 및 대형 트럭 개발	정보입수불가 2010- N/A
	Parker Hanni-fin	미국	10,000,000	유통센터 및 판매매장 건설	Sao Jose dos Campos/SP 2010-2010
	PSA Peugeot Citroen	프랑스	725,388,601	신차 개발, 생산량 확대	Porto Real/RJ 2010-2012
	TI Automotive	영국	23,952,096	신제품개발, 장비 확충	정보입수불가 2010-2015

23) 기초금속산업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Acelor Mital Bioenergia	영국 인도	33,707,865	재조림사업, 식물성석탄 생산, 인력개발 등	정보입수 불가 2010 - 2010
	Novelis do Brasil(Hindalco)	인도	57,000,000	소수력발전시설 확충	Ponte Nova /MG 2010-2012
	Usuminas	일본		철강사업 확대 및 다양화	정보입수불가 2010-2011

24) 금속 재활용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Novelis do Brasil(Hindalco)	인도	15,000,000	알루미늄재활용 시설 확충	Pindamonhangaba/SP 2010-2010

25) 철 금속 채굴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Hondridge Holding	중국	2,600,000,000	철광석 채굴 및 광물 운반로 건설	다수지역 2010-2014
	Yamana Gold	캐나다	140,000,000	바이아주 및 마토그로소주 금광 개발	Santaluz/BA 다수지역/MT 2010-2012

26) 석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Petrobras/ Chevron	브라질 미국	5,200,000,000	Papa-Terra 광구 석유개발	미정/RJ 2010 - 2013
	Sonangol	앙골라	500,000,000	Starfish 인수, 23개 광구 석유 개발	다수지역 2010-2014

27) 금융, 중개업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Banco Santander	스페인	248,618,785	데이터 처리 센터 설립	Campinas/SP 2010-2012

28) 보험, 사회연금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Mongeral Alegon	브라질 네덜란드	23,952,096	사무실 건축, 인력 채용 등	정보입수불가 2010-2010

29) 문화, 오락, 스포츠 분야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Cinepolis	멕시코	276,243,094	영화관 건설 (290개 상영실)	다수지역 2010-2012
	Loro Parque	스페인	80,000,000	리오 그란테 도 노르테 주에 수상공원 건설	미정/RN 2010- 미정

30) 전기, 가스, 수도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AES Tiete (Grupo AES)	미국	342,857,143	열병합 발전소 건설	미정/SP 2010 - 미정
	Chesf (Eletrobras) Marti	브라질 포르투갈	135,483,871	풍력발전단지 2개 건설	Areia Branca /RN 2010-2011
	Cia.Transmissao Eletrica Paulista-CTEEP (ISA)	콜롬비아	984,455,959	기존송전시설 확충 및 신규 송전망 건설	다수지역 2010-2012
	Cobras Instalaciones e Servicos	스페인	239,520,958	신규 송전소 건설 및 송전망 설치	다수지역/MG 2010 -미정
	Companhia de Gas Santa Catarina-SCGAS(Mitsui)	브라질 일본	153,142,857	가스 수송망 확충	다수지역/SC 2010-2014
	Companhia Elergetica de Minas Gerais	브라질 미국	388,601,036	가스운송관 건설	Sao Carlos/SP Uberaba/MG Uberlandia/MG 2010-미정
	EDP	포르투갈	135,680,000 900,589,430	리오 데 자네이로 지역 발전소 건설, 리오 그란데 도 수르 지역 풍력 발전시설, 소수력 발전소 건설 등	다수지역 2010-미정

	Elecnor	스페인	479,041,916	리오 그란데 도 수르 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건설, 송전시설 건설 등	다수지역 2010-미정
	Eletrosul(Eletrobras)/Wobben(Enercon)	독일	220,994,475	풍력발전 시설 건설	Santana do Livramento/RS 2010-2011
	Gas Natural Sao Paulo Sul	스페인	107,098,446	가스 공급 시설 확충	다수지역/SP 2010-2015
	Gestamp	스페인	100,376,000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 바이아 지역 풍력발전 시설 건설	다수지역 2010 - 미정
	RM Eolica(Grupo Gonvarri)	스페인	179,640,719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 바이아 지역 풍력발전 시설 건설	다수지역 2010-2012
	Tractebel Energia (GDF Suez)	벨기에 프랑스	49,222,000	바이오매스연료 발전시설 및 소수력 발전소 건설	정보입수불가/MG 및 SP 2010-2010
	Wind Power Energia-WPE(Impsa)	아르헨티나	606,217,617	세아라 주 풍력단지 8개 지역 건설	미정/CE 2010-2012
	Wind Power Energia-WPE(Impsa)	아르헨티나	1,036,269,430	세아라 주 풍력단지 11개 지역 건설	미정/CE 2010-2015

31) 의료 및 사회 서비스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Hospitais das Clinicas/Getinge Group	브라질 스웨덴	4,213,483	의료 기구장비 소독 센터 건설	정보입수불가/SP 2010-2011

32) 우편업무/정보통신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Telefonica	스페인	1,881,720,430	유선 및 무선 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 확대	정보입수 불가 2010-2010
	Vivo	스페인 포르투갈	1,338,709,677	3G 통신망 확대	정보입수불가 2010-2010

33) 운송, 보관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가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투자 내용	기타 -투자지(도시/주) -프로젝트 착수 종료일
	Cargo Ventures	미국	34,285,714	축산제품 보관소 건설	Sao Goncalo do Amarante/CE 2010- 미정
	Alianca Navegacao e Logisticaa (Alianca Hamburg SUD)	독일	21,467,000	화물 운송, 보관 및 배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	Manaus/AM 2010-2010

○ SWOT 분석

- 강점(S): 브라질은 방대한 면적의 인구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브라질은 중남미 경제를 리드하는 국가로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하여 여타 중남미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약점(W): 세금 종류도 많고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투자비용 지출이 높으며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법인 설립 기간도 여타 국가에 비해 많이 걸리는 편임

- 기회(O):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치러야 되는 브라질은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 투자가 시급함

- 위협(T): 브라질은 일찌감치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대거 받아들인 국가이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항상 견제의 시선을 게을리 하지 않는 편임. 최근 들어 특히 광물, 석유 등의 자원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등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증가하는 편임

○ 전반적 (외국인) 투자지원 정책방향

-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연방제도의 특성상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별로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및 법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투자를 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인센티브를 검토하여 적절한 투자인센티브와 투자지역을 선정해야 함. 시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사실상 주정부에 부속된 것으로 투자할 州가 결정되면 市정부와의 투자협상은 비교적 수월함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환영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법에 차별대우의 근거와 그 범위를 정해야 함

- 브라질은 이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특히, 브라질이 실질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연 4%이상의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만한 국내저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자유치는 브라질 경제성장에 필수적임

- 그러나,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모든 투자유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해당됨. 이러한 이유는 브라질이 원래 이민국가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심이 덜 하다는 이유 외에도, 연방국가의 특성상 州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연방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ZFM)나 정보 진흥법 (Informatic Law), 북부지역 투자우대정책 등 특정 정책목적을 위한 것이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각 주별로 벌이고 있는 독자적인 투자유치 정책임.

-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가 자신의 투자대상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하여 가급적 연방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다음에 주정부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비교 검토하여 입주해야 할 州를 확정해야 하는데, 주가 확정되면 실제로 회사 또는 공장이 입주하는 시市의 확정은 주정부를 통해 입주지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님

- 그리고 브라질은 원칙적으로 외국 자본도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국경 지역 등 제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

-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정부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하위 법으로 주와 브라질리아 특구는 각각의 주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주법의 내용은 유사점이 많으나 일치되지는 않으며 각주의 법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되며, 주내의 지방 정부인 시 등도 각각의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브라질정부는 대통령궁 정무실장주재로 주요정부부서가 모여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논의할 수 있는 소위 민간 투자촉진 위원회(Comissao de Incentivos aos Investimentos Produtivos Privados no Pais)를 2004년에 신설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외무부가 외국인투자 및 대외교역의 증진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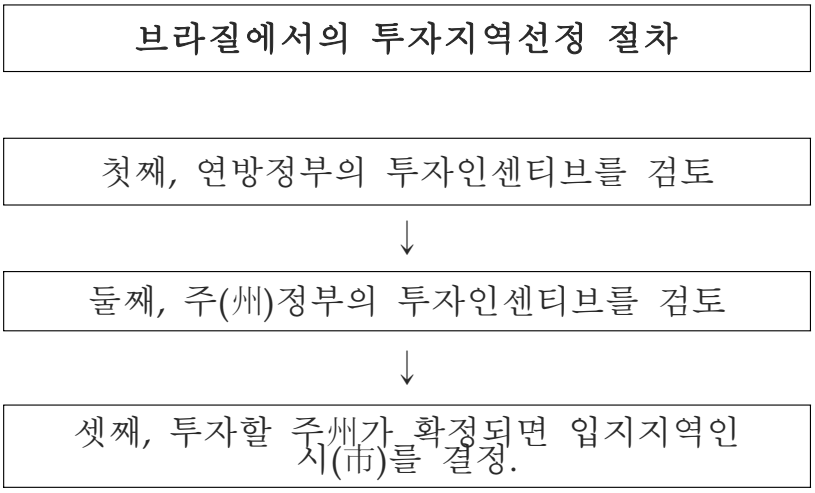
- 외무부의 통상진흥국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asilglobalnet (www.brazilglobalnet.gov.br)이라는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SIPRI (Sistema de Promocao de Investimentos e Transferencia de Tecnologia para Empresas)라는 투자·기술이전 진흥제도 (SIPRI)를 만들어 외국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하거나 기술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주재공관의 통상진흥부서**(SECOM- Setor de Promoção Comercial)** 들이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통상산업개발부는 국가투자 정보망 (Rede Nacional de Informacoes sobre o Investimento – RENAI)을 설치하여 산하 기관인 APEX(무역진흥청)를 주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州)는 별도의 투자 및 통상진흥부서를 정부기관 또는 독립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알선 기관
○ 대 브라질 투자 관련기관은 크게 재무부・개발통상부 등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일률적으로 정해진 인센티브는 없으며 관련 연방정부 및 지방 정부와 협상여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관련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투자진출전에 가능한 많은 혜택(세제감면, 공장부지 무상제공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프렌차이징, 거래알선 등을 위해 브라질 외무부에서 투자장려 및 기술이전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브라질 내 각주 및 해외 브라질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알선업무를 수행중임 - 연방 외무부의 통상진흥국: SIPRI(투자・기술이전진흥제도) - braziltradenet운영, 각 주정부에 투자진흥부서 운영 - 개발상공부: 국가투자정보망 (Rede Nacional de Informacoes sobre o Investimento, RENAI)을 설치하여 산하 APEX(무역진흥청)을 주축으로 운영 - Investe Sao Paulo: 상파울루 주 정부 투자 유치국 - CODIN/Investe Rio: 리오 데 자네이로 주 정부 투자 유치국

- 브라질의 주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브라질의 주 단위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Estrangeiro (Foreign)" 이라는 말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만을 의미한다기보다 는 "Out of State", 즉 외국기업을 포함한 자기 주 이외의 기업이나 투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관은 주로 해당 주 소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어 일을 하고 있음. 기업유치 책으로 입지선정과 토지취득을 위한 편의 제공, 토지취득 후 세제상의 특전 제공, 회사설립 또는 공장건설에 따른 편의 제공, 공장건설을 위한 투자금 융자알선, 종업원의 고용과 훈련에 관한 편의 제공, 연방정부나 시정부와의 투자협상을 지원하는 등 그 활동범위는 광범위함. 하지만, 이러한 특혜는 해당 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창출과 세원 확보가 목표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분야별 세부 지원 내역

1) 세제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없으나 다만 시정부 차원에서 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세(ICMS)환급, 가옥세(IPTU) 및 토지세(ITBI) 감면 등 조세혜택을 국내 및 외국 기업 차별 없이 부여함

2) 인센티브

- 시정부 차원에서 공장 설립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 무상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음
- 공장부지 기본 인프라 건설(전기 및 수도 설치, 고속도로 진입로 건설, 도로 포장 등)

[분야별 주요정책 내용]

구분	주요정책내용
세제	- 브라질 정부는 외환 관리법 (Lei 4131)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자본을 관리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세제 혜택은 없으나 다만 시정부 차원에서 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세(ICMS)환급, 가옥세(IPTU) 및 토지세(ITBI) 감면 등 조세혜택을 국내 및 외국 기업 차별 없이 부여함
인센티브	- 시정부 차원에서 공장 설립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 무상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음 - 공장부지 기본 인프라 건설(전기 및 수도 설치, 고속도로 진입로 건설, 도로 포장 등)
제도개선 · 규제완화	- 통신, 금융, 방송 등 일부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적임. 브라질 정부는 이같이 외국인 투자가 제한 분야에 대해 제한 폭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시장개방	- 브라질은 일찌감치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대거 받아들인 국가이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항상 견제의 시선을 게을리 하지 않는 편임 - 특히 광물, 석유 등의 자원분야의 경우 최근 들어 브라질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증가하는 편임

구분	주요정책내용
중점유치 분야	- 교통, 스포츠, 통신 등 주요 인프라 건설 분야 - 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기계 장비 등 조선 분야 전반 - 발전 및 송배전 등 전력 시설 확충
유치체계 조직	- 연방정부, 각 주정부 및 시정부 산하 투자개발국이 있어 투자유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주요 투자 기관 - 연방정부 -> Apex - 상파울루 주정부 ->Investe Sao Paulo - 리오 주정부 -> Investe Rio -> CODIN

□ 외국인 투자 동향

- 2010년 브라질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금리에 힘입어 중앙은행이 외국인 투자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1947년 이래 최고 금액인 485억 달러 상당의 FDI를 유치하는데 성공함

- 글로벌 기업 연구 및 컨설팅 업체 Sobeet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남. 작년 한 해 동안 브라질 산업에 투자된 중국자본*은 약 170억 달러로, 전체 FDI 유입액 526억 달러의 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브라질 유력 경제지 Valor은 2010년 브라질에 유입된 중국 FDI액이 190억 달러라는 의견을 제시함).

  *주) “중국자본”은 중국기업 및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가 중국인 경우와 제3국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합산한 금액임

- 특히 작년 12월 대브라질 FDI 순 유입액은 153억 달러로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71억 달러가 중국 석유 개발업체 Sinopec이 브라질 Repsol 지분의 40%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비용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브라질에 유입된 중국 자본의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발표한 투자 규모와 일치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대부분은 투자금의 출처가 중국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를 통해 투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임

-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브라질 중앙은행에 "중국자본"으로 공식 보고된 금액은 겨우 3억9200만 달러로 Sinopec의 Repsol 지분 인수 금액의 1/18밖에 되지 않는 금액임. 나머지 투자금액은 룩셈부르크 등 제3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중앙은행에는 중국자본으로 기록되지 않았음

- 현재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는 석유 및 광산 개발, 농업 분야 등 대부분 원자재 부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최근에는 원자재 투자이외에도 화장품, 중장비 등 투자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드러남

중국의 2010년 주요 투자 내용

○ 석유

- 2010년 5월 중국 화학업체 Sinohen은 브라질 페레그리노(Peregrino) 유전에 투자한 노르웨이 Statoil 지분의 40%를 30억 달러에 인수함

○ 전력

- 2010년 5월, 중국의 에너지 업체 State Grid는 스페인에 의해 운영되던 브라질 기업 플레나(Plena) 소속 송전업체 7개사를 17억 달러에 인수함

○ 광산

- 2010년 2월, 중국업체 Wuhan Iron&Steel(Wisco)은 브라질 최대갑부 Eike Batista 소유 에너지 업체 MMX 지분 21.5%를 4억 달러에 인수

- 중국 광산업체 Honbridge는 브라질 업체 Votorantin이 바이아 주에서 진행하는 철광 개발사업인 'Salina 프로젝트'를 약 4억 달러에 인수함

- 중국업체 ECE는 브라질 이타미나스(Itaminas) 광산을 12억에 매입함

○ 화장품

- 중국업체 East Stan Holding는 브라질 Tocantins 주에 화장품 제조 유통업체를 4억 레알에 설립할 예정임

○ 기계장비

- Sany Heavy Industries 는 상파울루에 2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 XCVMG는 Pernambuco 주 Suape 조선산업단지 내에 1200만 달러 규모의 유통센터 건설할 예정이며, Espirito Santo 주에는 브라질 기업 BCM와 협력을 통해 2200만 달러 규모의 제조공장 건설

○ 조선

- Jurong Aracruz 는 Espirito Santo 주에 3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 설립 계획

○ 자동차

- Chery는 상파울루 Jacarei 시에 4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공장 설립계획

- Miza Motos는 Bahia 주 São Francisco do Conde 지역에 660만 달러 규모의 모토사이클 공장 설립

- Kasinski는 마나우스 공장 확충에 1억2500만 달러, Rio de Janeiro 공장에 2000만 달러 투자 예정

- Shinerary는 Pernambuco 주에 2400만 달러 규모의 모토사이클 공장 설립

- Dayun는 Santa Catarina 주 Içara 지역에 600만 달로 규모 공장 설립

- 오는 2014년에는 월드컵, 2016년에는 올림픽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브라질은 각종 스포츠 시설 및 도로, 공항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숙박 시설 등을 조속히 확충해야 된다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어 이 같은 인프라 보강을 위해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음

- 특히 올림픽 개최지인 리오 데 자네이로 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동 행사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

- 그밖에도 2007년 리오 데 자네이로 연해에서 대형 심해 유전(Pre- Sal) 발견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석유개발 플랫폼 건설 및 시추선, 각종 조선 장비 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시도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광물, 농산물, 에너지 등 브라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음. 이같이 브라질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 및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반가워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내심 우려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해외주요자동차업체(완성, 부품) 브라질내 주요투자 사례 및 현황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US$)	투자내용	투자 형태
2010	Delphi do Brasil	Delphi	미국	40,000,000	컴프레셔 생산 시설 확충	단독
2010	Fiat do Brasil	Fiat	이탈리아	3,626,943,005	자동차, 부품, 농기계 생산 시설 확대	단독
2010	Magal (Honsel)	Magal	독일	5,988,024	주조작업 라인 확충	단독
2010	Mitsubishi	Mitsubishi	일본	414,507,772	신차생산 시설 확충 *약 1000명의 직접고용창출 예상	단독
2010	MWM Interna-tional Motores (Navistar)	MWM	미국	345,000,000	신기술 개발, 바이오디젤/에탄올 엔진개발	단독
2010	Nc2Global LLC	Navistar&Cate-pillar	미국	120,000,000	중형 및 대형 트럭 개발	합작
2010	Parker Hanni- fin		미국	10,000,000	유통센터 및 판매매장 건설	단독
2010	PSA Peugeot Citroen		프랑스	725,388,601	신차 개발, 생산량 확대	단독
2010	TI Automotive	TI Automotive	영국	23,952,096	신제품개발, 장비 확충	단독

자료원: 통상개발 산업부

*주) 상기 투자는 모두 2010년에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로 투자월 관련 구체적인 정보 입수 불가. 끝.

IV. 러시아

1. 러시아 자동차 산업 현황

□ 완성차 산업

○ 시장 특성

-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시장으로 성장할 정도로 유망한 대형 판매 시장이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009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2010년 경기회복 및 정부지원에 힘입어 회복 추세

- 자국산 자동차 생산 기술 및 기업을 보유한 나라로 자동차 산업은 국가 주요산업 중 하나이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국업체 육성을 통해 장기적인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입차 관세인상, 자국업체 지원정책, 현지생산 조건 강화 등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 규모

1) 판매 시장 규모

-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20% 성장으로 BRICs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5대 자동차 시장(약 300만대)을 넘봤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구매력이 크게 감소하며 위축됐음. 2010년에는 판매량 190만대로 세계 10위에 그침

- 아직까지 러시아산 브랜드(특히, Lada 브랜드)의 생산 및 판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경제가 되살아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격 뿐만 아니라 성능 및 디자인도 중요시 되고 있어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임

2) 생산 시장 규모

- 경제위기전인 2008년에는 총 생산 규모 179만대(승용차 147만대, 상용차 32만대)로 세계 12위 자동차 생산국을 차지한 바 있음

- 현재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BRICs 국가 중 가장 작은 편이며, 2010년 승용차 생산규모는 120만대로 전년대비 100% 성장하여 내수 생산시장이 회복세임을 나타냄

-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외국 승용차의 비중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기준 34%까지 증가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외국기업의 신규 공장 증설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입 현황**

- 2008년까지 약 180만대의 규모를 보이던 러시아 자동차 수입시장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 완성차 관세율 인상, 루블화 약세로 인한 수입차 가격 상승, 외국기업의 러시아내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2009년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약 89만대로 감소함

- 상용차 중심의 수출시장 경우도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67만대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인 CIS지역에서의 외국자동차사의 현지 생산 증가로 감소 추세임

[러시아 자동차 교역 추이]

<단위 : 천대>

	2005	2006	2007	2008	2009
완성차 수출	159	193	203	210	167
완성차 수입	414	749	1,410	1,790	891

자료원 : Interfax,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otor Vehicle Manufacturers, 수출입은행, '러시아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54p 재인용

- 러시아 연방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 승용차 수입시장은 전년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승용차 수입 : 69만대(CIS국가에서 15%), 114억 달러 규모, 신차의 경우 일본(27%), 한국(14%) 순임

- 상용차 수입시장의 경우 약 2배 성장을 하였으며, 약 5만 4천대, 12억 달러규모를 기록함

- 2010년 승용차 수출 시장은 5.4% 증가하였으며, 약 4만 3천대가 수출됨. 상용차의 경우 1만대 수출에 그침

○ **최근 시장 동향**

- 유럽 비즈니스협회 자동차생산위원회(AEB)는 2011년도 1~4월 러시아내 자동차 판매가 754,081대를 기록하였으며, '10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2011년 4월 한달간의 판매량만 놓고보면 전년동기대비 42% 상승한 165,565대가 판매되었음. 한편 2010년 전체 러시아내 자동차 판매는 191만 573대를 기록하였었으며, 전년대비 30% 증가함

[2011년 1~4월 러시아 자동차 신차판매량]

브랜드	2011년 1-4월	2010년 1-4월	증감률 (%)	2011년 4월	2010년 4월	증감률 (%)
LADA	176,410	124,808	41%	54,093	52,743	3%
CHEVROLET	46,629	32,187	45%	15,626	11,648	34%
RENAULT*	45,503	25,257	80%	14,472	9,147	58%
KIA*	44,309	25,990	70%	14,059	8,331	69%
HYUNDAI*	42,336	24,585	72%	14,845	6,696	122%
TOYOTA*	39,175	18,691	110%	12,071	6,645	82%
NISSAN	37,396	15,578	140%	9,767	5,089	92%
FORD*	30,786	22,345	38%	9,867	7,536	31%
DAEWOO	26,903	17,389	55%	8,751	6,503	35%
VW	24,895	12,942	92%	8,112	4,301	89%
ГАЗ*	24,149	17,161	41%	8,009	6,021	33%
MITSUBISHI*	21,878	7,790	181%	7,362	3,143	134%
SKODA*	19,362	11,199	73%	5,947	4,232	41%
OPEL*	17,927	8,113	121%	5,810	2,226	161%
УАЗ*	15,542	10,605	47%	4,371	3,879	13%
PEUGEOT*	13,009	8,083	61%	3,877	2,380	63%
SUZUKI	11,816	6,948	70%	3,518	2,033	73%
MAZDA*	11,718	5,665	107%	2,656	685	288%
ИЖ (*вкл. ВАЗ 2104*)	10,105	26	38,765%	2,506	5	50,020%
FIAT*	8,606	5,032	71%	2,736	2,055	33%
MERCEDES-BENZ	7,764	4,383	77%	2,401	1,505	60%
CITROEN*	7,570	3,547	113%	2,126	1,360	56%
AUDI	7,234	6,030	20%	2,821	2,072	36%
BMW	7,090	6,050	17%	2,131	1,555	37%
HONDA	5,621	6,504	-14%	1,696	2,522	-33%
SSANGYONG	5,339	2,481	115%	1,765	676	161%
CHANCE**	4,906	3,474	41%	1,678	1,433	17%
LEXUS	4,720	2,529	87%	1,669	1,186	41%
LIFAN*****	4,128	1,131	265%	1,431	475	201%
VOLVO	3,884	2,178	78%	1,339	717	87%
LAND ROVER	3,870	2,679	44%	1,196	810	48%
SUBARU	3,488	2,536	38%	987	729	35%
VW ком. автмб.*	3,361	1,267	165%	1,011	430	135%
БОГДАН******	2,710	695	290%	885	695	27%
VORTEX****	2,668	1,285	108%	839	233	260%
INFINITI	2,355	1,150	105%	389	260	50%
GREAT WALL*	1,674	653	156%	489	235	108%
CHERY	1,284	2,523	-49%	374	973	-62%
GEELY	1,013	911	11%	418	405	3%
HAIMA*********	878	0	-	227	0	-
CADILLAC	681	333	105%	260	118	120%

브랜드	2011년 1-4월	2010년 1-4월	증감률 (%)	2011년 4월	2010년 4월	증감률 (%)
ТАГАЗ***	666	3,784	-82%	64	1,316	-95%
PORSCHE	607	336	81%	245	123	99%
MERCEDES-BENZ ком. автмб.*	467	518	-10%	204	138	48%
SEAT	422	261	62%	180	81	122%
MINI	404	216	87%	165	43	284%
JEEP	316	156	103%	92	42	119%
JAGUAR	299	217	38%	99	73	36%
ISUZU*	103	49	110%	35	18	94%
DODGE	72	78	-8%	31	25	24%
CHRYSLER	33	87	-62%	9	19	-53%
총계	**754,081**	**458,435**	**64%**	**235,711**	**165,565**	**42%**

자료원 : AEB(유럽 비즈니스 협회)

*주) including light commercial trucks

- 수입 차량을 포함해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는 러시아 현지브랜드인 라다(LADA)로 총 176,410대(전년동기대비 41% 증가)를 판매해 1위를 지켰으며, 그 뒤를 이어 Chevrolet, Renault, 기아, 현대, Toyota, Nissan, Ford, 대우, Volkswagen 등이 기록하였음

- 한편, 자동차 순수 수입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이는 많은 외국 자동차메이커들의 러시아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입액으로 잡히는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 자동차 생산 및 수입 동향추이]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판매 차량 중 자국에서 생산된 러시아 브랜드 및 외국브랜드 점유율(수량측면)	78%	71%	60%	50%	46%	54%	66%
판매 차량 중 자국에서 생산된 러시아 브랜드 및 외국브랜드 점유율(금액측면)	49%	43%	36%	28%	27%	36%	50%
자국에서 생산된 차량 중 외국브랜드의 점유율(수량측면)	10%	11%	16%	18%	21%	26%	34%
순수 수입산 외국브랜드의 점유율(수량측면)	22%	29%	40%	50%	54%	46%	34%
순수 수입산 외국브랜드의 점유율(금액측면)	51%	57%	64%	72%	71%	64%	5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2011년1~4월 인기 모델 25위까지의 자동차 신차 판매량]

	모델명	브랜드	2011년 1-4월	2010년 1-4월	증감률 (%)	2011년 4월	2010년 4월	증감률 (%)
1	Kalina	LADA	46329	22151	109%	15158	9962	52%
2	Priora	LADA	41565	35373	18%	13373	14543	-8%
3	2105/2107	LADA	39011	22554	73%	10378	10533	-1%
4	Samara	LADA	31720	31063	2%	9789	12784	-23%
5	Logan	RENAULT	25804	18793	37%	7850	6223	26%
6	Focus	FORD	22179	17370	28%	6836	5952	15%
7	Solaris	HYUNDAI	19464	0	-	9296	0	-
8	4x4	LADA	17785	13460	32%	5395	4858	11%
9	Nexia	DAEWOO	15703	9774	61%	4901	3652	34%
10	Niva	CHEVROLET	14615	10616	38%	4456	3544	26%
11	Rio	KIA	14117	6557	115%	5060	2194	131%
12	Astra (incl. Astra Cabrio)	OPEL	12797	5589	129%	4147	1466	183%
13	Sandero	RENAULT	11940	2974	301%	3948	1693	133%
14	Lacetti	CHEVROLET	11650	8871	31%	3737	2938	27%
15	Polo	VW	11507	512	2147%	3480	210	1557%
16	Matiz	DAEWOO	11200	7615	47%	3850	2851	35%
17	Octavia A5	SKODA	11102	4865	128%	3383	1720	97%
18	Qashqai	NISSAN	10346	4231	145%	2324	1810	28%
19	Cee'd	KIA	9920	6320	57%	2824	2173	30%
20	RAV 4	TOYOTA	9472	2951	221%	2453	1363	80%
21	Aveo	CHEVROLET	9450	5475	73%	3432	2381	44%
22	Corolla	TOYOTA	8815	3490	153%	2449	1374	78%
23	2104	IZH	8479	23	36765%	2080	5	41500%
24	Cruze	CHEVROLET	8294	4728	75%	3281	2067	59%
25	ASX	MITSUBISHI	7179	0	-	1967	0	-

자료원 : AEB(유럽 비즈니스 협회)

- 상위 브랜드의 판매실적에서 보듯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EB는 2011년 4월 러시아 총 자동차판매가 235,711대로 전년동기대비 42% 늘었다고 밝힘.

- 1~4월 누적판매는 754,081대로 전년대비 64% 증가했음. 중고차 보조금 프로그램(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 10년 이상 및 3.5톤 이하의 노후화 차량을 러시아산 신차로 교체시 사용할 수 있는 5만 루블(약1,700달러)짜리 바우처를 지급하는 소위'Cash-for-Clunkers' 정책)을 연장하고 현지생산 차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정부 산업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봄

- 모델별 차량판매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약진이 지속되었음. 현대차의 경우Solaris가, 기아차의 경우 Rio, Cee'd 등이 베스트셀링 모델 25위 명단에 이름을 등재하였음

-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현대자동차를 포함, 대부분의 메이저 외국자동차기업들은 러시아 내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베스트셀링 톱 10 모델 중9개의모델은 러시아 내에서 현지 생산되고 있음

-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현지 전략모델인 'Solaris (국내명 엑센트)'가 출시 3개월 만에 월간 수입차 판매 1위에 등극함

- 12일 유럽기업인협회(AEB)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지난 2월 9일 출시된 Solaris는 지난 4월 한달간 9,296대를 판매량을 기록하며 수입브랜드 베스트셀링카 1위를 차지함(러시아 브랜드 포함 전체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 러시아에서 국내 완성차업체가 생산한 모델이 월간 수입브랜드 판매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올 1~4월 누적판매에서도 Solaris는 약 두 달 반의 판매량만으로도 수입브랜드 3위, 전체 7위를 차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임. 이같은 Solaris의 인기에 힘입어 현대차는 지난 4월 러시아 수입브랜드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2위에 올랐음. 쉐보레(1만5,626대)가 수입차 선두를 차지했으며 현대차(1만4,845대, 2010년 4월 대비 122% 증가), 르노(1만4,472대), 기아차(1만4,059대), 도요타(1만2,071대)가 그 뒤를 이었음

- 지난해 9월 준공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Solaris는 춥고 겨울이 긴 러시아 특유의 기후여건과 운전문화를 반영한 전략형 기술과 사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0년 3월 8일부터 실시된 러시아 정부의 중고차 보

조금 프로그램 대상 모델로 2011년부터 지정되면서, 현대차는 올해 러시아에서 약 6만 6천~7만대의 Solaris모델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아자동차의 리오는 올 4월 5060대 팔려 지난해 4월보다 무려 131%나 판매가 늘어남. 2011년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는 115% 증가한 1만 4117대가 팔리면서 누적 기준 판매순위 11위에 올랐음.

- 기아차는 2011년 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8,000대, 2월에는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한 10,200대를판매하면서 2개월 연속 외국브랜드 1위 및 전체순위2위를기록하였었으나, 3~4월에는 다른 경쟁 브랜드들의 판매선전으로 인해 2011년 1~4월간 44,309대를 판매, 전년동기대비 70% 성장한 전체 4위(수입브랜드 중에서 3위)로 밀려남

○ **시장 전망**

- 2011년 1분기 러시아 신차 판매시장의 경우 7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비즈니스협회 자동차생산위원회(AEB)의 David Tomas 위원장은 러시아의 2011년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를 당초 224만대에서 235만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한편,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러시아 자동차시장이 빠르게 회복, 2020년엔 연 판매량 400만대로 세계 6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2월 초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11년 러시아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약 14.8%가 더 늘어나서 약 219만대 이상이 팔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2010년 10월 산업통상부 장관빅토르 흐리스텐코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2014년경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판매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정부의 보호정책에 힘입어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2013년경에는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이고, 독일과 함께 유럽의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제경쟁력**

-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구소련 시대에 설립이 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인지도는 낮은 편임

-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주요업체들이 최근 외국 제조업체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및 디자인 노하우를 습득코자 노력중임

회사명	내용
Avtotor사	- '08년 10월 GM과 합작 - BMW 조립생산
AvtoVAZ사	- '08년 Renault사에 25% 지분매각, 이를 통해 Lada 승용차 신제품 생산 관련 협력 시작
GAZ사	- Chrysler와 협력, 조립생산
Izhmash사	- '10년 기아자동차와 Izh-Avto 합작생산법인 가동중

○ **러시아내 BMW 생산/내수/수출입 현황 등**

- 2010년 러시아내 BMW 판매대수는 20,584대이며, 2011년 1~4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7,090대가 판매됨

- 러시아 서부 칼리닌그라드 특별경제구역에 소재한 압토토르(Avtotor)사는 BMW를 SKD방식으로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부품수입 관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 생산 규모 및 모델명은 다음과 같음

연도	생산규모(대수)	생산 모델
2004	2,449	E65/66 (7 시리즈),E60 (5 시리즈),E46 (3 시리즈)
2005	2,293	E65/66 (7 시리즈), E60 (5 시리즈), E46 (3 시리즈)
2006	3,831	E65/66 (7 시리즈), E60 (5 시리즈),E90 (3 시리즈),(X3)
2007	4,521	E65/66 (7 시리즈), E60 (5 시리즈), E90 (3 시리즈),E83 (X3)
2008	6,414	E60 (5 시리즈); E90 (3 시리즈), E83 (X3)
2009	5,963	E60 (5 시리즈); E90 (3 시리즈), E83 (X3),E70 (X5),E71 (X6)
2010	10,359	F01/F02 (7 시리즈),F10 (5 시리즈)E90 (3 시리즈), E83 (X3),E70 (X5),E71 (X6)

○ 조업중인 완성차 업체 리스트

기업명 (한/영)	AvtoVaz OJSC	GAZ Group OJSC	Avtotor OJSC	Avtoframos OJSC	Sollers Group OJSC
설립연도	1966	2005	1996	1998	2002(2008년 이전에는 Severstal Auto로 알려짐)
공장소재도시	Togliatti, Samara-region (main facilities); additional production in Izhevsk (IzhAvto) and Chechnya	Nizhny Novgorod (main facilities)	Kaliningrad-region	Moscow	Ulyanovsk, Tatarstan (Naberezhnye Chelny, Yelabuga), Vladivostok, Nizhny Novgorod
종업원수 (명)	72,000	88,000	5,000	2,300	8,900 (울랴놉스크 공장 종업원수만 파악됨)
생산차종	승용차, engines, spare parts	승용차, small and large 버스, light and heavy 트럭,특장차, engines, spare parts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 SUV, small 트럭, small 버스, engines
매출액 (백만US$)	RUR 137,000 million (2010)	RUR 231,300 million (2008)	2010: RUR 96,200 million	2009: RUR 24,400 million	2009: RUR 34,700 million 2010: 55,266 million
당기순이익 (백만US$)	RUR 3,600 million (2010)	minus RUR 3,350 million (2008), net loss	N/A	2009: RUR 900 million	2009: minus RUR 5,000 million (net loss); 2010: minus 1,241 million (net loss)
생산능력 (국내,천대)	700	160 (승용차)	170	160	300
생산(천대)	545.450(완성차) 77.626 (car kits)	2.161 (승용차, 2009) 2010: 88.347 (승용차, small 버스, light 트럭)	2009: 60.258	2008: 73 2010: 87.6	2010: 98.1
내수(천대)	517.147	2009: 2.161 (승용차)	N/A	N/A	N/A
수출(천대)	41.577	N/A	N/A	N/A	N/A
홈페이지	www.lada-auto.ru	www.gazgroup.ru	www.avtotor.ru	www.renault.com	www.sollers-auto.com
해외공장*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집트	N/A	N/A	N/A	N/A
외국완성차 업체와의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Renault and Nissan (자본 제휴관계)	GM and Volkswagen (moves currently made to launch assembling some of the GM and VW modesl)	**BMW**, GM, KIA, Opel (기술 제휴관계)	Renault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Fiat, SsangYong, Isuzu, Toyota (Mitsui & Co., JV), Ford (JV)

기업명 (한/영)	Tagaz LLC	GM-AvtoVaz CJSC	Derways LLC	Ford Motor Company CJSC	PSMA-RUS (Peugeot, Ciroen/Mitsubishi) LLC
설립연도	1997	2001	2002	1997	2008
공장소재도시	Taganrog	Togliatti, Samara-region	Cherkesk, Karachaevo-Cherkessiya Republic	Vsevolzhsk, Leningrad-region	Kaluga-region (the "Rosva" Industrial Park)
종업원수 (명)	8,500	1,400	2,500	1,700	3,000
생산차종	승용차, SUV small 트럭, heavy 트럭, 버스 (county mini-buses)	SUV	승용차, SUV	승용차	승용차
매출액 (백만US$)	2009: RUR 11,000 million	2009: RUR 8,300 million	N/A	2009: RUR 53,493 million	N/A
당기순이익 (백만US$)	2009: minus RUR 5,900 million (net loss)	2009: RUR 282 million	N/A	2009: minus RUR 5,162 million (net loss)	N/A
생산능력 (국내,천대)	180	102	75	125	2010: 45 Future Plan: 125
생산(천대)	2009: 29.240	2010: 36.996	2010: 11.713	2010: 80.4	2010: 26 2011 (1-3): 7.577 2011: 41 (est.)
내수(천대)	N/A	N/A	N/A	N/A	N/A
수출(천대)	N/A	CIS	N/A	N/A	N/A
홈페이지	www.tagaz.ru	www.gm-avtovaz.ru	www.derways.ru	www.ford.ru	www.peugeot.ru www.citroen.ru
해외공장*	N/A	N/A	N/A	18 factories in various countries	N/A
외국완성차 업체와의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Hyundai, BYD Auto (기술 제휴관계)	GM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Lifan and Hainan Mazda (기술 제휴관계)	-	-

기업명 (한/영)	Toyota Motor Manufacturing Russia LLC	Nissan Manufacturing Rus LLC	General Motors Auto LLC	Hyundai Motors Manufacturing Rus LLC	Volkswagen Group LLC
설립연도	2005	2006	2006	2009	2009
공장소재도시	Saint-Petersburg (the "Shushary-2" Industrial Zone)	Saint-Petersburg (the "Kamenka" Industrial Zone)	Saint-Petersburg (the "Shushary" Industrial Zone)	Saint-Petersburg (the "Kamenka" Industrial Zone	Kaluga-region (the "Grabtsevo" Technical Park)
종업원수 (명)	750	900	1,000	1,000	3,000
생산차종	승용차	승용차, SUV	승용차, SUV	승용차	승용차, SUV, Multivan
매출액 (백만US$)	N/A	N/A	N/A	N/A	2009: RUR 82,055 million
당기순이익 (백만US$)	N/A	N/A	N/A	N/A	2009: RUR 1,360 million
생산능력 (국내,천대)	20	50	70	2010: 100 Future Plan: 200	2010: 150 Future Plan: 300
생산(천대)	2009: 8.3 2010: 14.7	2010: 24.5	2008(1-9):30.575 2010: 29	N/A	2009: 48.5 2010: 95
내수(천대)	N/A	N/A	N/A	N/A	N/A
수출(천대)	N/A	N/A	N/A	N/A	N/A
홈페이지	www.toyota.ru	www.nissan.ru	www.generalmotors.ru	www.hyundai.com	www.volkswagengrouprus.ru
해외공장*	51 manufacturing companies in 26 countries	Manufacturing companies in Spain, England etc.	Cars and trucks produced in 31 countries	Six factories around the worlds	48 plants in 15 countries
외국완성차 업체와의 자본 및 기술 제휴관계	-	-	-	-	-

자료원: RAExpert, Related companies' Web-sites, Mass-media reports.

주) 2011.5월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

*해당 완성차 업체가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공장은 생략

□ 자동차 부품산업

○ 시장 특성

- 자동차 시장과는 달리 러시아 자동차부품 판매 시장은 경제 위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음. 2009년 러시아 내 신차 판매 규모는 절반 이상 떨어졌으나, AvtoStat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시장(2차 자동차 부품 시장. 즉, 자동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은 달러로 가치를 매겼을 때 총 9% 정도만 감소하였고, 151억 달러 규모까지 떨어졌음. 이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 폭락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성장은 러시아 시장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음. 국제 컨설팅 조사 회사인 GIPA(Global Innovation & Presentation Accosiation)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은 것이며, 이 자동차들의 부품 및 모터 등을 더 자주 갈아야 하기 때문에 부품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임. GIPA에 의하면 러시아 실제 사용 자동차 대수(단순히 등록된 자동차 수가 아닌 실제로 사용되는 자동차)가 2,400만여 대임. 이 2,400만여 대의 자동차 중에 1,200만여 대의 자동차는 매우 낡은 자동차임

- 자동차 부품 판매 상승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예전부터 러시아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임. 겨울의 추위, 기온의 심각한 하락 등 러시아의 기후 또한 자동차 부품 판매에 영향을 미침. 러시아의 추위는 자동차 부품의 변형 혹은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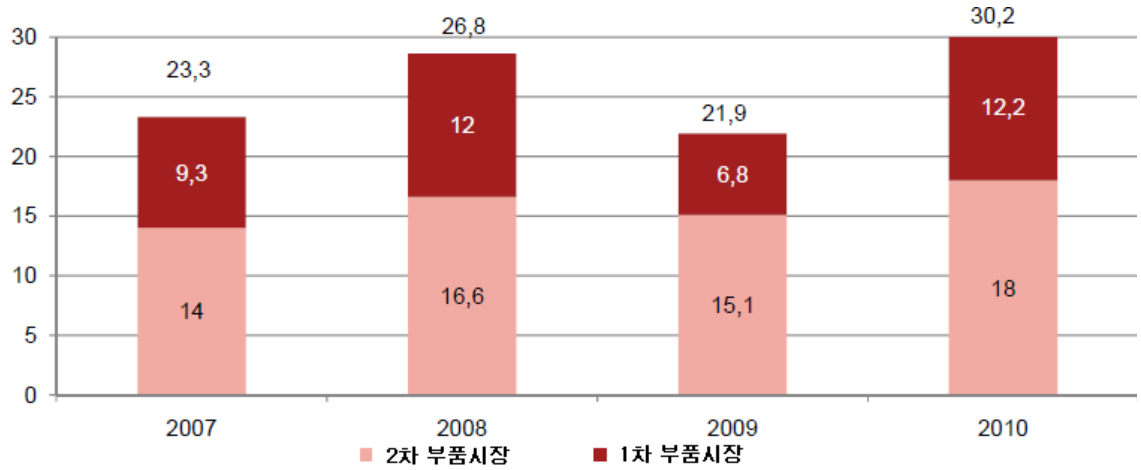
- 자동차 부품 판매 상승과 관련이 있는 마지막 사실은 러시아는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임. 교통사고로 훼손된 자동차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도 자동차 부품이 필요함

○ **시장 규모**

- 2010년 Autostat, PwC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부품 시장은 약 20% 성장한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1,2차 부품시장을 합하여 약 300억 달러 이상임

[러시아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

<단위 : US$ 10억>



자료원 : Autostat, PwC

○ **수출입 현황** (전체 부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 확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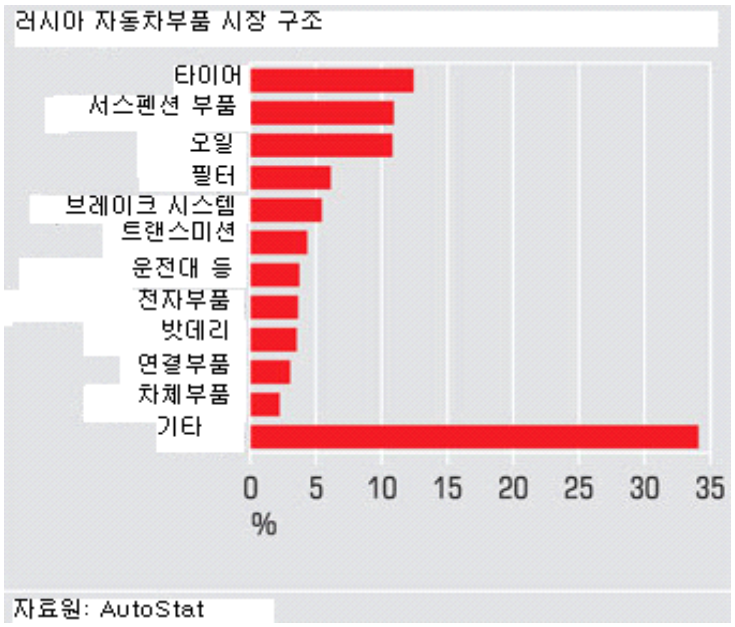
- 러시아의 주요부품 수입국 통계 첨부

○ **최근 시장 동향**

- 최근 외국 브랜드 자동차를 위한 부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 내 외국 자동차 부품 점유율은 총 판매량의 45.4%를 차지했다면, 2010년에는 57%까지 상승함

- 이러한 러시아의 특수성 속에 러시아에서의 자동차 사용은 자동차 부품의 인기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고 매출이 큰 타이어, 오일 및 서스펜션 부품 등 3가지 유형의 자동차 부품을 국내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부품들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거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타이어 시장은 총 시장 규모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러시아 타이어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음. AvtoStat사의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시장 규모는 연간 2,900만개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18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의 좋지 못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서스팬션 부품 또한 러시아 부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노드 및 서스펜션 부품은 총 부품 시장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판매 총액 규모는 16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됨. 이 분야 내 절반 이상인 55%를 전반부 및 후반부 완충기가 차지하였으며, 완충기 시장은 러시아 시장 내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오일 분야 및 액체류 시장이 3위를 차지하였음. (2009년 집계 자료 : 10.8%, 16억 달러) 이 분야 또한 러시아의 기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즉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엔진 오일을 교체하여야 함

- 러시아 소비자 행동의 특징은 부품 판매 경로의 구체적인 구조 또한 결정함. 선진국에서는 부품이 대부분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20-30%의 부품만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그 외에는 대형 유통망, 상점, 시장, 소규모 카센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오늘날 러시아 부품 시장은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미 자동차 부품 전체 판매량의 약 45% 정도가 대형 유통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판매 또한 급속히 발달하고 있음. 5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은 시장 및 소규모 유통라인을 통한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었음

- 러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 자동차 생산 업체 혹은 자동차 부품 소비자를 위한 부품 운송 업체가 있었음. (SOK 그룹의 계열사인 부품 공장, OAT 그룹, AvtoCom 등이 가장 큰 회사임) 그러나 자동차 부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외국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은 러시아에 자사 직영 공장을 설립하거나 합작 회사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세계 거대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중 하나인 Magna사는 러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오픈하기 시작하였음. 2010년 가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근처인 Shushary, Kamenka, Kollino에서 세 개의 공장이 오픈하였고, 추가로 칼루가 지역 및 니즈니 노브고로드에도 공장이 설립될 예정임. 현재 Magna사는 러시아에서 인기 상품인 차체 부품, 안전 시스템, 차체 외부 및 내부 부품, 기타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이 외에도 2010년 9월 현대 자동차가 상트 뻬쩨르부르크 근처에 부품 생산 공장을 오픈하였음. 또한 거대 아시아 기업인 Deawon, Donghee, Doowon, Sejong, NVH 등의 업체가 현재 러시아에서 범퍼, 자동차 좌석, 연료 탱크, 소음 장치, 에어컨 및 히터, 전기 장치, upholstering 등을 생산하고 있음. 한편, Bosch, Delphi, Siemens, Valeo사는 이전에 러시아에서의 생산 라인을 재개하였음

- 최근 러시아 최대의 상용차 생산업체인 KAMAZ사(2010년 생산량 : 32,148대, 주요주주 : Postechnology (49,9%), Troika Dialog (27,3%), Daimler (11%), EBRD (4%), 자본 : 581억 루블(약 20억 달러), 2010년 상반기 매출액 : 319억 루블(약 11억 달러))는 최근Daimler사가 11%의 주식을 매입한이후 향후 Daimler사의 엔진, 차축, 캐빈 등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 러시아 자동차 부품 생산 시장을 위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조품, 유사품의 점유율이 높아져 간다는 것임. 시장 조사자들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부품의 약 20~30%가 국내에서 불법 생산 되거나 중국 등지에서 정품이 아닌 유사품이 수입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불법 제품은 대부분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소규모 개인 상점에서 판매됨

- 최근 불법 제품 문제와 관련하여 정품 및 아날로그 제품 판매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정품 부품은 브랜드 자동차 생산자가 인증받은 자사 공장에서 컨트롤 하에 생산하고 있는 부품을 일컬음. 몇몇 조사에 따르면 총 시장의 20-30%만이 정품 인증 제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음

- 아날로그 부품은 정품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은 하지만, 브랜드 자동차 생산자가 컨트롤 하지 않는 제품을 일컬음. 아날로그 부품은 전체 판매량의 4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관련하여 개인 수입 업체들이 정품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그렇지 않으면 정품 부품은 자동차 생산 업체나 계열사만이 수입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Honda, Mercedes-Benz, BMW, Toyota, Porsche, Subaru 와 같은 거대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현재 개인 수입 업체들이 러시아로 정품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에 대한 소

송을 건 상태임. 이 자동차 기업들은 이번 소송이 불법 제품 운송과의 싸움과 고객들의 안전,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개인 수입업자들이 정품 부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 업체들이 이를 저지하거나 처벌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정품 부품을 러시아로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위조 문제와 관련하여 진품(부품) 및 유사품 판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원조 부품이란 공인된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체의 감독 및 라벨링 하에 생산된 부품임. 몇몇 계산에 따르면 진품은 전체 시장에서 20~30%를 점유함

- 유사품이란 진품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인데, 이는 자동차 생산업체에 의해 감독되지 않고 자동차 브랜드의 회사 로고가 라벨링되지 않음. 유사품은 전체 부품 판매량의 40-60% 가량을 차지함. 여기서 독립 수입업자는 원조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가 혹은 원조부품 수입은 자동차 생산업체 혹은 그 자회사만 가능한 것인가란 질문이 발생함. 최근 유명 자동차 생산기업(Honda, Mercedes-Benz, BMW, Toyota, Porsche, Subaru) 대표들은 재판을 청구했고 자사의 참여 없이 러시아로 수입되는 원조 부품과 더불어 수입하는 독립 기업들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들은 이러한 태도를 위조 제품 공급과의 사투, 자사 고객들의 안정 보장 및 자사 제품 브랜드 보호로 설명함

- 한편 아직 체포 및 독립 기업들에 의해 공급되는 원조 제품에 대한 폐기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수입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러시아로 원조 부품 수입을 계속하고 있음.

○ 시장 전망

- 향후에도 자동차부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상트 페테르부르그 현대차공장 생산용 부품 및 기타 지역의 한국차 KD 생산용 부품 대량 반입 예상되며, 자동차 수출회복에 따라 동반증가세가 예상되며, 2010년 9월 현대모비스도 상트페테르부르그에 물류센터를 준공하여 금년부터 자동차부품 수출증가 기대 중

- 또한 러시아에는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현대모비스 차령분석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내 차령 20년 이상 차량은 6%, 10~20년은 29%, 5~10년은39%, 5년 미만이 26%임) AS 및 수선, 유지부품 등도 증가가 예상되며, 2010년 한국의 자동차부품 대러 수출은 전년대비 135.9% 증가하였고, 2010년 신차 판매 호조로 신차 A/S 부품 수요도 확대될 전망임

-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은 일본 및 한국산 중고차량 판매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중고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현대차 공장이 준공되면서 동반진출한 현대자동차 협력 부품업체들이 있음. (성우하이텍-바디, 동희산업-연료탱크, 신영금속-프레스, 세종공업-머플러, NVH 코리아-음향/내장재, 두원공조-에어컨, 대원산업-시트, 유라코포레이션-전선, 한일튜브-튜브 등) 이밖에 타이어 취급업체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가 현지에 진출해 있음. 현대모비스도 물류창고 및 생산공장을 현지에 보유하며 A/S용 부품 등을 현지에서 공급하고 있음

○ 국제경쟁력

- 부품기술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편이나 최근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수입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부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향후 러시아 내 생산 차종의 러시아산 부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러시아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외국 브랜드 자동차들은 대부분 수입 부품을 활용하고 있음

○ 러시아내 부품업체 대BMW 납품 현황 등

- 러시아 자동차 부품업체의 대BMW 납품기업은 없음

○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 리스트

기업명	생산품목	매출액	주납품대상	자국/외투	비고
AGC BORSK Glass Factory OJSC	Automobile glass	2006: RUR 5,500 million; 2011(1-3): RUR 1,237 million.	Ford, Toyota, AUDI 등	외투: AGC Flat Glass Europe(Glaverbel, Belgium)	RUSSIA's largest car glass maker; 60 % of cars, produced in the CIS countries are equipped with the glass.
Salavat Glass OJSC	Automobile glass	2009: RUR 3,371 thousand	AvtoVAZ (LADA) 등	자국	RUSSIA's second largest car glass maker;
Skopinsky Auto Unit Plant OJSC	Shock absorbers	2010: RUR 2,605 million	AvtoVAZ (LADA), GM-AvtoVAZ, GAZ, Sollers (UAZ) 등	자국	RUSSIA's largest shock absorber maker; over 70 % of Russian- designed cars now in home and CIS use are equipped with these absorbers
Belebeevo "Autonormal" Plant (BelZAN) OJSC	Automobile fasteners	2009: RUR 2,224 million	AvtoVAZ (LADA), GM-AvtoVAZ, GAZ, Sollers (UAZ), IzhAuto (LADA), KAMAZ	자국	RUSSIA's largest car fastener maker;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Italian CIMA in making suspension springs
Krasnaya ETNA, OJSC	Automobile fasteners	2010 (1-6): 281.6 million	GAZ, Sollers (UAZ) 등	자국	RUSSIAN TOP 3 car fastener maker

기업명	생산품목	매출액	주납품대상	자국/외투	비고
INTERKOS IV LLC	Punches and moulds for automobile manufacturing	N/A	Ford, VW, GM, Nissan, Hyundai, Renault, PSA, Tenneco, Magna 등	외투: Magnetto Automotive (Italy)	This a joint- venture, established by Russian INTERKOS and Magnetto in April 2008; Now it is controlled by Russian steel leading producers MMK; The first stage of the INTERKOS iV-MMK factory was commissioned in November 2010 near Saint-Petersburg with the second stage under construction now
VATI OJSC	Brake shoes	2010: RUR 800.4 million	Trucks (GAZ, MAZ) and buses (LAZ, LiAZ) 등	자국	RUSSIA's largest brake shoe maker; 30% of products are exported.
FRITEX OJSC	Brake shoes	2010: RUR 775.2 million	AvtoVAZ (LADA) 등	자국	RUSSIA's second largest brake shoe maker;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REINZ (Cermany)
Heat-Resistant Products and Engineering Designing Solutions (TIIR), OJSC	Brake shoes	2010: 609.1 million	AvtoVAZ (LADA), GM-AvtoVAZ, GAZ, Sollers (UAZ), KAMAZ 등	자국	RUSSIA's third largest brake shoe maker; Brake shoes are applicable for such brands as FORD, Toyota, AUDI, Iveco, MAN, DAF.
Kaluga Automobile Electric Units OJSC	temperature sensors, voltage regilators, commutators, relays 등	2010: 153.0 million	AvtoVAZ (LADA) 등	자국	One of the most recognisable maker of automobile electric units.
Kaluga Autoelectronics OJSC	condenser filters, controllers, commutators, relays 등	N/A	AvtoVAZ (LADA), GAZ, Sollers (UAZ), ZAZ (the Ukraine), UZ DAEWOO 등	자국	One of the most recognisable maker of automobile electronics units
AVAR OJSC	relays, switches, safety devices, control units 등	2009: 504.0 million	AvtoVAZ (LADA), GAZ, Sollers (UAZ), GM-AvtoVAZ,, GM-Uzbekistan 등	자국	One of the most recognisable maker of automobile electronics units
Autocomponent Group LLC	Climatic equipment, heaters, mirrors, gage panels, steering wheels, ventilators	N/A	AvtoVAZ (LADA), GAZ, Renault (Avtoframos), FIAT (JV with Sollers in Yelabuga)	자국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EPAG Engineering (Germany) ,FICOSA International (Spain), TAKATA-PETRI (Japan, Germany).

기업명	생산품목	매출액	주납품대상	자국/외투	비고
NPP Sotex CJSC	Car seats and elastic polyurethane for car seats	N/A	AvtoVAZ (LADA), GAZ, Renault (Avtoframos),Sollers (UAZ), Ford, VM, FIAT, Hyundai 등	자국	Acquired by the Russian Machine Systems, owned by billionaire Deripaska.
TPM LLC	Car radiators and radiator heaters	N/A (commissioned in the middle of 2010)	plans of increasing suppliers to car makers in automobile clusters in Saint-Petersburg, Kaluga, Togliatti, Naberezhniye Chelny	외투: T.RAD., Ltd (Japan)	JV of the Russian Machine Systems and T.RAD., Ltd (Japan)
Magna Technoplast CJSC	Front and rear car bumpers, gitters 등	2007: EURO 29 million	GAZ, AvtoVAZ, GM-AvtoVAZ, Avtoframos, Ford, VW, PSA, Renault	외투: Magna International	Five production facilities have been opened in Russia (three in Saint-Petersburg, one in Nizhny Novgorod and one in Kaluga)
NPP Avtel LLC	Engine control systems, sensors 등	2005: EURO 35 million; 2006: EURO 50 million	Ford, VW, GM, AvtoVAZ, GAZ, Sollers (UAZ), KAMAZ 등	외투: Siemens VDO Automotive	A 51%-share was purchased by Siemens VDO Automotive2006
Dimitrovgrad Window Raiser Plant LLC	Window Raisers	N/A	GAZ, AvtoVAZ, GM-AvtoVAZ 등	자국	One of the recognisable makers of automotive parts
Dimitrovgrad Braking Gear Plant LLC	Braking and clutch hoses	N/A	GAZ, AvtoVAZ 등	자국	One of the recognisable makers of automotive parts

자료원: Russian Market of Autoparts in 2005-2009 by Amiko Consulting, Autostat, Company Web-sites.

□ 자동차산업 (완성,부품 포함) 최근 3개년 정량 데이터

연도	2008	2009	2010
업체수(개) 주: 각종 교통수단, 객차 등 및 관련 장비류 제조업	5,445	5,720	N/A
종업원수(명) 주: 각종 교통수단, 객차 등 및 관련 장비류 제조업	1,156,000	1,042,000	997,000
생산액(백만US$) 주: 각종 교통수단, 객차 등 및 관련 장비류 제조업	N/A	N/A	N/A
출하액(백만US$) 주: 각종 교통수단, 객차 등 및 관련 장비류 제조업	51,497.6	37,004.0	52,460.6
승용차 제조 업체수(개) 주: 대러 진출 외국 업체 포함; 승용차 제조 공장수, 공장 몇 개씩 관리중인 업체 있음	16	17	23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수(개)	약 2,000		
승용차 판매액(백만US$) 주: 소매 기준	29,871.9	21,953.4	26,077.9
수출액(백만US$) 주: H.S.Codes 8703, 8706,8707, 8708	1,504.5 (완성차: 910.2)	499.5 (완성차: 236.6)	557.0 (완성차: 271.2)
승용차 생산(대수)	1,470,295	600,016	1,209,000
승용차 수출(대수) 주: H.S.Codes 8703, 8706,8707	146,223 (완성차: 128,4180)	42,515 (완성차: 40,481)	45,422 (완성차: 42,651)
승용차 수입(대수) 주: H.S.Codes 8703, 8706,8707	2,369,919 (완성차: 1,992,819)	636,165 (완성차: 521,341)	965,237 (완성차: 686,613)
승용차 판매(대수)	3,290,000	2,046,000	N/A
최신 승용차 (신차) 판매(대수) 주: 상업용 소형자동차 포함	2,897,459	1,465,742	1,910,573
고급차* 판매(대수)	N/A	N/A	N/A
인구(천명) 주: 2010년 경우 6월말 기준	141,904.0	142,962.4	142,914.1
가구수(천) 주: 2002년 기준	52,779.5		
자동차보유(대) 주: 2009, 2010, 2011년 1월 1일 기준	30,300,200	31,340,600	33,800,000
자동차1대당 인구	4.7	4.6	4.2
자동차1대당 가구	N/A	N/A	N/A
천명당 승용차 보유(대)	213.5	219.2	236.5

자료원: R.F. Federal Statistics Service, R.F. Federal Customs Service, ACM-Holding, Autostat.

*고급차는 2000cc 이상 승용차 기준

2. 러시아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 현황

□ 외국인투자유치(Inward FDI) 지원정책

○ 외국인 투자 환경

- 최근 러시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 국제 기구, 외국 컨설팅 기관 등에 의해 조사된 2010년 러시아 투자환경은 전년 대비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남

[해외 주요 기관의 러시아 투자환경 평가]

지표명	순위		평가기관
	2009	**2010**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46위 (180개국 조사)	**154위** (178개국 조사)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별 투자 리스크	181위 (196개국 조사)	**186위** (196개국 조사)	영국 컨설팅 기관 Maplecroft사
2010 FDI Confidence Index	9위 (2007년 기준)	**18위** (44개국 조사)	A.T. Kearney

- 전반적으로 러시아 투자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사유로는 테러, 시위의 위협 고조, 정부연관 부패 만연, 법의 취약성(사법부의 행정부 예속), 불필요한 행정 절차, 관리책임 불명확성 등을 언급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자본 투자관련 법규 간소화,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10년 9월 외국인 투자 제한 전략자산 목록을 200개에서 50개로 대폭 감소시키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

- 또한, 향후 500억 달러 상당의 루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2015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자산 민영화 계획 추진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전반적 (외국인) 투자지원 정책방향

- 2010년 러시아 정부는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 규정의 대폭 수정을 계획하였음

- 또한, 푸틴 총리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 마련, 관료주의적 규제 폐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체계의 수정입니다."라고 언론에 언급하며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보임

- 기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정부는 2010년 중 외국인 자본 투자 관련 법규 간소화, 자본이득세율 인사 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2010년 9월 외국인 투자제한 전략자산 목록을 200개에서 50개로 대폭 감소시킨 바 있음

- 또한, 2010년 6월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 전략기업을 208개에서 41개로, 국영기업은 230개에서 159개로 대폭 축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기준 전략기업이 208개에서 49개로, 국영기업은 230개에서 149개로 축소되었음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들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2010년 러시아 정부는 보다 더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복잡하고 수많은 사업허가 과정들을 수정하여 투자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많은 투자가들은 아직도 러시아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음. 왜냐하면, 과거 일부 외국 기업의 투자진출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 현

장에서 부딪히는 투자장벽들로 인해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 벨랴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투자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2011년 들어서도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국영기업 개혁조치 추진,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련 제도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관련 개선 조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제한 완화 지속, 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마련 등의 조치를 마련 중에 있음

[분야별 주요정책 내용]

구분	주요정책내용
세제	- 자본 이득세율 인하 - 부가세법 개정 시행(2009년 12월 22일 공표) 및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 연방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은 특별경제구역(2011년 3월 기준 24개 지역)과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이며,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투자 기준을 낮추고,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스콜코보 단지로의 입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연 이윤이 1천억 미불 미만이고 연매출이 3천억 미불 미만일 경우, 최고 10년까지 부가가치세·소득세 면제 * 러시아 영토내로의 자재 수입시 납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 OECD 기술 규정 적용
제도개선·규제완화	**- 투자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행정장벽 완화** * 구비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표준 설계 규정 완화 * 국가감정 및 기술조사 기한 단축, 민간기관 감정서로 건축 허가서 발급 **- 통관절차 간소화** * 전자 세관 신고 보급 * 수출 수속 및 고기술 장비 임시 수입절차 간소화 * 무관세 수출품에 대해 통관 금액 확인 규정 폐지 **-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 간소화** * 고급 전문인력 유치 쿼터 폐지 * 고용 계약서 소지시 비자 및 노동허가서 기한 3년으로 확대

	* 비자 및 노동 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 -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 마련** * 상하수도, 전기등 공공 인프라 이용시 차별 방지 법규 제정 등 **※ 한·러간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 체결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10.11월 서명, '11.4월 현재 러측 국내절차 진행중)
시장개방	-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내에 WTO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 (customs duty on imports)의 점진적 인하 가능성과 함께 경제 위기로 인한 보호 무역 조치도 차차 없앨 계획임을 강조함.
중점유치분야	- 자원의존 경제 탈피 및 산업 현대화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너지효율성, 원자력, 의료기술·장비, IT, 우주·통신 기술)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10년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상기 산업들을 중점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음.
유치체계조직	- 정부 차원의 특별한 유치체계 조직은 없으며, 경제개발부의 투자담당부서에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음. - 2011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수행을 위해 2011년6월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투자펀드 설립을 지시하였으며, 동 펀드를 5년내 100억 달러로 증대시킬 계획임. 이후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분야별 세부 지원 내역

1) 자동차 산업관련 지원제도

- 2011년 3월 25일 러시아 정부가 노후차량 보상제도에 올해에만 50억 루블(약 1억 7천 6백만 달러)을 추가할당(2010년의 경우 250억 루블(약 8억 8천만달러) 예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성장 지속 전망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 2011년 4월 7일자 Vedomosti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 버스, 화물차, 농기계에도 노후차량 신차교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보조금 규모를 2012년부터 3년 동안 버스-연 35억 루블, 화물차 - 연 74억 루블로 추산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경우 5년 동안 100억 루블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임

2) 특별경제구역 입지지원

- 입주 요건 : 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러시아 기업에게 특별경제구역으로의 입주 요건은 동등함

산업・생산 SEZ (Industrial and Production Zones)	- 투자금은 최소 삼백만 유로 이상(과거 천만 유로에서 조건을 완화시킴), 첫해 최소 투자금은 백만 유로 이상 - 운영면적 : 20㎢ 이하 - 운영기간 : 20년 이하
기술・혁신 SEZ (Technical & Innovation Zones)	- 최소 투자금 규정 없음 - 운영면적 : 4㎢ 이하 - 운영기간 : 20년 이하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Tourist & recreational Zones)	- 최소 투자금 규정 없음 - 운영기간 : 20년 이하
항만 SEZ (Port Zones)	- 투자금은 최소 삼백만에서 천만 유로 - 운영기간 : 49년 이하

자료원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 조세 감면

[Tax Incentives *]

<단위:%>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
Profit tax	20	15.5 **
Property tax	2.2	0 **
Land tax	1.5	0 **
Transport tax (Euro per horse power)	0.1~3.5	0 **
Salary related taxes (for innovation SEZ only)	34	14

* 산업・생산 SEZ, 기술・혁신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는 20년간, 항만 SEZ는 49년간

** 지방정부의 경우 10년까지만 세제 유예기간 보장

[SEZ 투자자 혜택]

Special administrative regime	Simplified relations with governmental authorities, "one stop shop" principle
Ready-made infrastructure	Investors are provided with land and office buildings with all the utility connections necessary
Free customs zone regime	No import duty, refundable VAT
Tax incentives	Reduced profit tax. Property, land, and transport tax exemption for up to 10 years. State guarantee from adverse tax changes
Discounts for land acquisition and office lease	Reduced land and office lease rates, a right to acquire the leased land at a discount to the market price
Accelerated depreciation option	Investors of industrial SEZ and SEZ for tourism and recreation are entitled to apply accelerated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자료원 :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SEZ 기본 인프라 시설]

3) 재정 지원

- 임대용지 및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10년까지만 감면 혜택 적용

□ 외국인 투자 동향

[대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액]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5,700	8,200	11,180	14,290	27,797	27,027	15,906	13,810
성장률	20.5	32	43.8	27.8	94.5	-2.8	-41.1	-13.2

자료원 : 러시아 연방 통계청

- 상기 투자환경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러시아로의 FDI 유입액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음

- UNCTAD에 따르면, 2009년 러시아로의 FDI유입액은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2009년의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FDI 순위에서는 오히려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57위를 차지함.

- 이는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짐

- 2010년 러시아 시장에는 전년대비 40.1% 늘어난 1,14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짐. 이중 FDI는 138억 달러(전년대비 13.2% 감소, 12.1% 차지), 포트폴리오 간접투자는 11억 달러(전년대비 21.9% 증가, 0.9% 차지), 기타 투자는 999억 달러(전년대비 53.3% 증가, 87.0% 차지)를 기록함.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동향(2010)]

구분	2010			2009	
	백만 달러	배 혹은 %		2008년 동기대비	비중
		2009년 동기대비	비중		
외국인투자액합계	**114,746**	**140.1**	**100**	**79.0**	**100**
외국인직접투자(FDI)	13,810	86.8	12.1	58.9	19.4
기초자본투자	7,700	96.3	6.7	50.4	9.8
재투자	743	79.3	0.7	151.5	1.1
리스	108	105.4	0.1	60.8	0.1
외국인합작자본	4,610	71.6	4.1	65.8	7.8
기타 직접투자	1,392	101.9	1.2	114.3	1.7
포트폴리오(간접투자)	1,076	121.9	0.9	62.3	1.1
주식 등 기타	344	91.0	0.3	33.6	0.5
채무증권	680	137.1	0.6	173.2	0.6
기타	99,860	153.3	87.0	86.5	79.5
상업 대출	17,594	126.2	15.3	86.2	17.0
기타 여신	79,146	155.7	69.0	87.8	62.0
(180일 단기여신 이하)	41,239	6,2배	36.0	99.8	8.1
(180일 장기여신 이상)	37,907	85.7	33.0	86.2	53.9
기타	3,120	8.5배	2.7	29.1	0.5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

[산업별 외국인 투자액(201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0 기준 누계	비중
총계	**114,746**	**300,106**	**100**
농업,임업	466	2,249	0.7
어업	16	121	0.0
제조,가공업	33,157	107,267	35.7
기초자원(전력, 가스, 수력 생산)	543	5,899	2.0
숙박, 요식업	229	829	0.3
운송, 통신업	6,576	29,864	10.0
금융업	37,913	11,287	3.8
부동산, 임차,임대업	7,341	31,580	10.5
공공행정, 국방안보	25	1,073	0.4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

[주요국별 대 러시아 투자통계(누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말 누계					2010년 투자액
	총	비중	직접	포트폴리오	기타	
총 투자액	**300,106**	**100**	**116,199**	**8,920**	**174,987**	**114,746**
상위10개국 투자액	**253,242**	**84.4**	**89,913**	**7,568**	**155,761**	**93,660**
사이프러스	61,961	20.7	44,737	1,732	15,492	9,003
네덜란드	40,383	13.5	22,401	8	17,974	10,696
룩셈부르크	35,167	11.7	661	203	34,303	5,374
중국	27,940	9.3	942	0.1	26,998	7,631
독일	27,825	9.3	9,254	11	18,560	10,435
영국	21,578	7.2	3,501	4,481	13,596	40,770
아일랜드	11,488	3.8	568	4	10,916	2,557
프랑스	10,343	3.4	2,922	28	7,393	3,702
일본	9,022	3	824	2	8,196	1,109
버진군도(영국령)	7,535	2.5	4,103	1,099	2,333	2,383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

[주요국별 대러시아 투자 통계(2006~2009)]

<단위 :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백만 달러	비중
총 투자액	55,109	100	120,941	100	103,769	100	81,927	100
룩셈부르크	5,908	10.7	11,516	9.5	7073	6.8	11,723	14.3
영국	7,022	12.7	26,328	21.7	14,940	14.4	6,421	7.8
사이프러스	9,851	17.9	20,654	17.0	19,857	19.1	8,286	10.1
네덜란드	6,595	12.0	18,751	15.5	14,542	14.0	11,640	14.2
프랑스	3,039	5.5	6,696	5.5	6,157	5.9	2,491	3.0
미국	1,640	3.0	2,839	2.3	2,773	2.7	N/A	N/A
독일	5,002	9.1	5,055	4.1	10,715	10.3	7,366	9.0
스위스	2,047	3.7	5,340	4.4	N/A	N/A	N/A	N/A
중국	N/A	N/A	N/A	N/A	N/A	N/A	9,757	11.9
일본	695	1.3	N/A	N/A	864	0.8	3,020	3.7
아일랜드	N/A	N/A	5,175	4.2	2,903	2.8	748	0.9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

- 2010년 러시아 시장에서의 외국자본 투자누계액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3,001억 달러로 집계됨. 기타 투자 누적액이 1,750억 달러로 외국자본 투자누계에서 가장 큰 비율인 58.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2009년 말 55.5%)

- 직접투자 누계액은 1,162억 달러로 38.7%를 차지하였고(2009년 말 40.7%), 포트폴리오 간접투자는 89억 달러로 3.0%(2009년 말 3.8%)를 차지함

- 독일과 미국은 에너지 및 건설부문, 네덜란드는 석유 및 가스 판매부문, 영국, 프랑스는 상품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버진군도(영국령) 등의 투자액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러시아 기업이 해당 국가의 기업에 투자하여 그 투자기업이 러시아의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행태에 기인함. 사이프러스 등에 투자된 자본은 러시아에 재투자되면서 역투자되고, 경제위기상황 등에는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투자운용을 하게 됨. 한마디로 해외로 유출된 러시아 자금이 돈세탁을 거쳐 러시아로의 역투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말 누계기준 러시아로의 주요 투자국가는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중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버진군도(영국령) 등이며, 이 주요 국가들의 투자금액이 러시아 총 투자금액의 84.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투자산업은 유통, 소매업, 제조업, 자원개발, 교통 및 통신 분야임. Expert지는 향후 유망한 외국인 투자 분야로서는 식음료 생산, 소매 체인점, 자동차 등 기계 조립, 건자재 등 제시한 바 있음

- 주요 기업들의 대러 투자 현황 : 개방초기에는 식료품, 의류 등 생활용품 위주, 소득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2000년 중반전후부터 자동차, 건자재 등 투자 확대

*모스크바지역 : 폭스바겐, 르노, 푸조, 네슬레, 이케아, 미셸린, 마스터푸드, 시트로엥, 미쓰비시, 삼성, LG, KOYA, 오리온, 롯데, KT&G 등

*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 : GM, 토요타, 닛산, 포드, 스즈키, 보쉬, 펩시, 현대차, Atria 등

- 러시아 시장의 안정화에 따른 현지 생산 활성화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현지 생산이 활발해지고 내수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러 투자 증가 예상

□ 해외주요자동차업체(완성, 부품) 러시아내 주요투자 사례 및 현황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해외주요자동차업체(완성차)						
2011	Fiat	Fiat Group Automobiles	Italy	N/A	The FIAT-branded cars have been assembled for some years by Sollers in Yelabuga (FIAT Ducato) and Naberezhniye Chelny (FIAT Albea). The JV agreement between Sollers and FIAT, signed in February 2010, failed a year later. FIAT is now looking for na Russian partner for JV	합작
2008 (November)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PSMA-RUS LLC	PSA Peugeot Citroen,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France, Japan	EURO 470	Manufacturing the models of Peugeot 308/4007, Citroen C4/C-Crosser, Mitsubishi Outlander XL;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April 2010.	단독 신규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2007 (June)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2010년 계획 취소	Suzuki	Suzuki, Itochu	Japan	115	Having decided to open the factory near Saint-Petersburg (the "Shushary-2 Industrial Zone") to produce Suzuki Grand Vitara and SAX4 (yearly production capacity: 25,000 units), Suzuki had actually to give up the project some time in 2010 because of the world economic crisis.	단독 신규 주: 2010년 계획 취소
2007 (June)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VOLVO East CJSC	VOLVO Group, VOLVO Trucks	Sweden	EURO 100	Initially the production of Volvo trucks was launched in Zelenograd near Moscow, but lack of facilities there led the company to the Kaluga-region (the "Kaluga-South" Industrial zone. The factory came on streams in January 2009.	추가
2007 (September)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Hyundai Motors Manufacturing Rus LLC	Hyundai Motors	Korea	EURO 330	Manufacturing "Solaris";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September 2010; a "KIA"-branded model to be made in 2011 too.	단독 신규
2006 (June)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Nissan Manufacturing Rus LLC	Nissan	Japan	USD 200	Manufacturing the models of "Teana" and X-Trail;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June 2009	단독 신규
2006 (May)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General Motors Auto LLC	General Motors	USA	USD 300	Manufacturing the models of "Chevrolet-Captiva", "Chevrolet-Cruze" and "Opel Antara";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November 2008.	단독 신규
2006 (May)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Volkswagen GROUP RUS LLC	Volkswagen GROUP	Germany	EURO 570	Manufacturing the models, branded VW, Skoda;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November 2007.	단독 신규
2005 (April)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Toyota Motor Manufacturing Russia LLC	Toyota Motor	Japan	EURO 100	Manufacturing the "Camry" model;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December 2007	단독 신규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1999 (July) 주: 투자협정 체결연월	Ford Motor Company CJSC	Ford Motor	USA	USD 330	Manufacturing the models of Ford FOCUS and Ford MONDEO; regular operation started in 2002	단독 신규
1998 주: 투자협정 체결연	Avtoframos OJSC	Renault	France	EURO 230	Establishing a joint-venture with the Moscow-city government to manufacture the "Logan" modelled-sedan	합작/단독 신규
해외주요자동차업체(부품)						
2011 (May)	Gestamp-Russia	Gestamt Automicion	Spain	N/A	The company signed an investment agreement in Nizhny Novgorod on a factory to be built there for production of punched autoparts.	추가
2009	Gestamp-Severstal Kaluga LLC	Gestamt Automicion	Spain	89	A joint-venture of Gestamp and Severstal was put into operation in the Kaluga-region July 2010 to produce punched car body autoparts for VW, PSA and Avtoframos (a yearly production capacity: 13 million pieces).	합작
2007	Tenneco Automotive Saint-Petersburg	Tenneco Automotive Inc.	USA	30	The company opened a factory in Saint-Petersburg to make 1.5 million exhaustion systems a year for Toyota, Nissan and GM.	추가
2006 (December)	Magna Technoplast CJSC	Magna International	Canada	250	Five production facilities have been opened in Russia (three in Saint-Petersburg, one in Nizhny Novgorod in August 2008 and one in Kaluga in November 2010) to manufacture front and rear car bumpers, gitters 등	신규단독
2006	NPP Avtel LLC	Siemens VDO Automotive	Germany	N/A	Siemens VDO Automotive acquired a 51%-share in was NPP Avtel LLC to make Engine control systems, sensors 등	합작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2005	Knorr-Bremse RUS LLC	Knorr-Bremse	Germany	110	The company has been making two-cylinder compressors for commercial vehicles in Nizhny Novgorod since June 2005 (investment value USD110 million). Besides, a joint-venture was set up with KAMAZ in December 2007 to make braking systems for trucks.	단독 신규 and 합작
2003	Tenneco Automotive Volga	Tenneco Automotive Inc.	USA	3	The company opened a factory in Nihzny Novgorod to make 300 thousand exhaustion systems a year for AvtoVAZ and GM-AvtoVAZ	단독 신규
1998	Lear LLC	Lear Corporation	USA	N/A	Since 1998 the company has founded three factories in Russia (Nizhny Novgorod, Moscow-region and Leningrad-region) to make cable plaits and seats.	단독 신규

자료원 : Vedomosti, RBC Daily, Company Web-sites.

주) 투자연월기준 최근사례로 부터 역순으로 나열. 완성차 투자건은 반드시 포함하되 부품업체 투자사례는 많을 경우 주요사례만 포함. 1개 모기업에 의해 중복 추가 투자 시 투자 건별로 작성.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2010년 9월 21일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	Hyundai Motor	한국	약 500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신규
2010년 4월 26일	PCMA Rus	PSA Peugeot Citroen 및 Mitsubishi	프랑스 및 일본	약 680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합작, 신규
2009년 6월 2일	Nissan Motor Rus	Nissan Motor	일본	약 200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신규

투자연월	현지 기업명	모기업명	모기업 국적	투자금액 (백만US$)	투자내용	투자형태
2009년 1월 19일	Volvo Trucks Russia	Volvo Group	스웨덴	약 145	화물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추가
2008년 11월 7일	General Motors	General Motors	미국	약 300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추가
2008년 11월	Avtotor	General Motors	미국	약 115	Chevrolet Lacetti 자동차 생산	단독, 추가
2008년	Sollers-Elabuga	FIAT S.p.A	이탈리아	N/A	FIAT Ducato 자동차 생산	단독, 추가
2007년 11월 28일	Volkswagen Group Rus	Volkswagen Group	독일	약 825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신규
2005년	Sollers-Naberezhnye Chelny	FIAT S.p.A	이탈리아	약 110	FIAT Albea 및 FIAT Doblo Panorama 자동차 생산	단독, 신규
2005년	Toyota Motor Manufacturing Russia	Toyota Motor Corporation	일본	N/A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신규
2004	Avtotor	General Motors	미국	약 390	Hummer H2, Chevrolet Trail Blazer, Chevrolet Tahoe, Cadillac 자동차 생산	단독, 추가
2003년	CJSC VTS-Zelenorgad	Volvo Trucks	스웨덴	N/A	화물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신규
2002년 7월 9일	Ford Motor Company	Ford Motor Company	미국	약 30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단독, 신규
2001년 7월 30일	GM-AVTOVAZ	General Motors	미국	약 338,2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합작, 신규
1999년 8월	Avtotor	BMW GROUP	독일	N/A	BMW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자동차 생산	합작, 신규
1998년	OJSC Avtoframos	Renault	프랑스	N/A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합작, 신규

3. 기타

○관련기사 : 2011.5.13일자 칼리닌그라드시
보도자료

- 러시아에 BMW의 공장이 세워지면,
압토토르사에서의 조립생산은 중단될 수도 있음

- 독일 BMW사는 러시아내에서 자사의 자동차 조립 공장 건설을 검토중에 있음. 러시아 언론은 이것이 결정될 경우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압토토르사의 BMW 조립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밝힘

- 러시아 외에 브라질, 인도, 한국,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있음. 러시아에는 이미 칼리닌그라드에 1999년부터 BMW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공장이 조업해 왔음.

- 투자전문회사인 Finam의 전문가 알렉세이 자하로프에 따르면, 현재 칼리닌그라드의 압토토르사 공장에서 BMW 자동차 조립생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새로운 회사 설립은 거의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게다가, 기존 공장은 연간 35만대 이상, 신규 조립생산 공장은 30만대 이상 생산토록하는 새로운 산업 조립관련 법규는 BMW사의 계획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러시아에서 소량 생산 브랜드는 결코 연간 30만대의 생산규모를 넘지 않음. 만약 새로운 법규에 따라 부품 수입 혜택이 없다면,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알렉세이 자하로프는 주장함.

- 2010년말 RUGRAD.EU는 압토토르사가 향후 6년동안 자사 생산량 증대를 위해 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음. 압토토르사는 합작기업 설립에 대해 외국 제조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음. 대상기업은 BMW, KIA, GM이었으며, 압토토르의 발레리야 고르부노바 대표에 따르면, 압토토르는 BMW사와의 협상이 많이 진전되었다고 함

○관련기사 : 2011.5.13일자 압토토르사 보도자료

- 세계적 자동차 생산기업인 BMW사는 러시아 영토에 자신의 자동차 조립 생산 공장 건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BMW사는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경제개발국 중에 새로운 공장을 세울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브라질 자동차 조립공장과는 별개로 BMW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한국, 터키 중 한곳에 공장 설립 가능성을 연구중이라고 함

- 자동차 제조사들은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같이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임

- 올해 BMW는 기록적인 판매, 매출,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함. 그러나 자동차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
- 아직 러시아에 독일 자동자 제조사는 칼루가주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이 대표적임. 프리미엄 클래스 자동차 제조사들은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모델을 조립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상당히 비관적인 편임

- 예를 들어, 과거 폭스바겐 공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생산을 했던 Audi는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Daimler AG사는 러시아 시장에서 높지 않은 판매규모로 인해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생산 계획을 철회하였음

- 칼리닌그라드의 압토토르사는 러시아에서 BMW 모델을 SKD 조립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정부부처에서도 그 수요를 가지고 있음

[첨부] 러시아의 주요부품 수입국 통계

- HS 8708 자동차부품 수입통계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5,287.088	2,706.946	5,313.610	100.00	100.00	100.00	96.30
1	Germany	842.825	501.355	864.368	15.94	18.52	16.27	72.41
2	Japan	544.683	385.999	742.381	10.30	14.26	13.97	92.33
3	Korea, South	1,370.876	349.311	723.817	25.93	12.90	13.62	107.21
4	China	363.815	178.823	430.234	6.88	6.61	8.10	140.59
5	European Union	340.398	187.943	373.217	6.44	6.94	7.02	98.58
6	Slovakia	207.456	214.075	354.772	3.92	7.91	6.68	65.72
7	Italy	172.496	117.939	201.379	3.26	4.36	3.79	70.75
8	Romania	233.434	115.929	200.196	4.42	4.28	3.77	72.69
9	United States	218.844	102.583	174.957	4.14	3.79	3.29	70.55
10	Unidentified Country	2.871	33.105	155.457	0.05	1.22	2.93	369.58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40999 (기타(압축점화식 엔진 및 부품 등))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166.853	84.269	144.307	100.00	100.00	100.00	71.25
1	Germany	40.498	21.224	39.946	24.27	25.19	27.68	88.21
2	United States	15.340	9.008	22.446	9.19	10.69	15.55	149.19
3	Ukraine	22.902	8.434	17.131	13.73	10.01	11.87	103.11
4	China	32.312	8.792	15.474	19.37	10.43	10.72	76.00
5	Japan	7.802	4.725	10.115	4.68	5.61	7.01	114.08
6	United Kingdom	4.273	3.166	5.342	2.56	3.76	3.70	68.74
7	European Union	3.705	4.479	3.293	2.22	5.32	2.28	-26.47
8	Italy	3.720	1.762	3.060	2.23	2.09	2.12	73.66
9	Brazil	1.661	1.124	2.674	1.00	1.33	1.85	137.78
10	Czech Republic	3.594	2.014	2.565	2.15	2.39	1.78	27.35
11	Turkey	4.248	1.443	2.485	2.55	1.71	1.72	72.29
12	Korea, South	2.504	2.457	2.289	1.50	2.92	1.59	-6.86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41330(연료, 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펌프)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131.828	59.810	118.753	100.00	100.00	100.00	98.55
1	Germany	72.931	21.059	42.043	55.32	35.21	35.40	99.65
2	China	10.397	6.255	17.706	7.89	10.46	14.91	183.05
3	Japan	6.895	5.215	12.320	5.23	8.72	10.37	136.22
4	United States	6.344	4.083	7.807	4.81	6.83	6.57	91.23
5	European Union	5.050	5.789	6.348	3.83	9.68	5.35	9.65
6	Czech Republic	4.220	2.252	6.057	3.20	3.77	5.10	168.92
7	Hungary	2.208	1.408	3.387	1.68	2.35	2.85	140.51
8	Korea, South	4.358	1.865	2.914	3.31	3.12	2.45	56.24
9	Poland	1.375	1.518	2.910	1.04	2.54	2.45	91.74
10	Italy	1.365	0.835	2.372	1.04	1.40	2.00	184.10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47989 (기타(기계류 등))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770.100	463.947	610.522	100.00	100.00	100.00	31.59
1	Germany	165.278	90.955	157.720	21.46	19.61	25.83	73.41
2	Italy	77.740	63.537	59.681	10.10	13.70	9.78	-6.07
3	China	36.511	26.718	48.910	4.74	5.76	8.01	83.06
4	European Union	80.827	71.331	39.195	10.50	15.38	6.42	-45.05
5	Korea, South	19.432	4.886	37.920	2.52	1.05	6.21	676.07
6	United States	59.770	24.981	29.248	7.76	5.39	4.79	17.08
7	Spain	6.660	1.584	27.466	0.87	0.34	4.50	1,633.93
8	Japan	6.376	26.711	25.671	0.83	5.76	4.21	-3.89
9	Finland	31.993	24.394	25.171	4.15	5.26	4.12	3.19
10	France	33.995	26.238	19.941	4.41	5.66	3.27	-24.00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47990 (부분품)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61.433	42.020	60.308	100.00	100.00	100.00	43.52
1	Germany	14.654	7.360	12.137	23.85	17.52	20.13	64.90
2	United States	6.426	5.046	8.346	10.46	12.01	13.84	65.41
3	United Kingdom	3.737	9.056	8.031	6.08	21.55	13.32	-11.32
4	Italy	5.501	3.119	5.248	8.96	7.42	8.70	68.26
5	Ukraine	6.725	2.022	4.175	10.95	4.81	6.92	106.42
6	European Union	3.702	3.215	3.423	6.03	7.65	5.68	6.46
7	Japan	3.348	0.918	3.309	5.45	2.19	5.49	260.47
8	China	1.981	1.555	2.849	3.23	3.70	4.72	83.14
9	Sweden	0.912	0.250	1.891	1.48	0.59	3.14	657.23
10	Netherlands	0.963	0.593	1.691	1.57	1.41	2.80	185.04
11	Singapore	0.556	2.530	1.373	0.91	6.02	2.28	-45.75
12	Unidentified Country	0.117	1.032	1.324	0.19	2.46	2.20	28.29
13	France	1.955	0.647	1.284	3.18	1.54	2.13	98.44
14	Finland	3.181	0.633	0.714	5.18	1.51	1.18	12.93
15	Korea, South	0.211	0.172	0.642	0.34	0.41	1.07	273.93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48310 (전동축과 크랭크)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97.012	71.692	92.237	100.00	100.00	100.00	28.66
1	Germany	24.972	16.971	18.802	25.74	23.67	20.39	10.79
2	Ukraine	18.875	9.537	16.155	19.46	13.30	17.52	69.40
3	United States	7.066	5.581	8.328	7.28	7.79	9.03	49.22
4	Italy	6.987	5.318	6.927	7.20	7.42	7.51	30.25
5	China	4.181	3.387	5.687	4.31	4.72	6.17	67.91
6	Japan	3.832	3.289	5.065	3.95	4.59	5.49	54.01
7	European Union	5.023	7.388	4.006	5.18	10.31	4.34	-45.77
8	India	0.287	2.637	3.366	0.30	3.68	3.65	27.64
9	Czech Republic	0.903	1.856	2.276	0.93	2.59	2.47	22.61
10	Poland	0.884	0.950	2.140	0.91	1.32	2.32	125.42
11	Korea, South	2.463	1.807	2.038	2.54	2.52	2.21	12.74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48340 (기어, 기어링, 기어박스, 변속기)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178.737	106.938	148.887	100.00	100.00	100.00	39.23
1	Germany	44.632	29.888	42.654	24.97	27.95	28.65	42.71
2	Italy	32.319	15.349	22.834	18.08	14.35	15.34	48.76
3	Japan	4.239	2.189	14.169	2.37	2.05	9.52	547.40
4	United States	9.513	9.559	11.458	5.32	8.94	7.70	19.86
5	Ukraine	18.333	7.148	10.481	10.26	6.68	7.04	46.63
6	Poland	3.394	2.540	8.566	1.90	2.38	5.75	237.19
7	China	6.355	4.340	8.475	3.56	4.06	5.69	95.28
8	European Union	8.781	6.184	4.681	4.91	5.78	3.14	-24.31
9	Finland	21.433	4.045	4.008	11.99	3.78	2.69	-0.92
10	Czech Republic	5.200	4.075	3.401	2.91	3.81	2.29	-16.53
11	Slovakia	5.612	1.708	2.340	3.14	1.60	1.57	37.00
12	Unidentified Country	0.075	1.818	1.957	0.04	1.70	1.31	7.65
13	Austria	1.476	2.493	1.845	0.83	2.33	1.24	-25.99
14	Sweden	1.705	0.634	1.623	0.95	0.59	1.09	155.86
15	United Kingdom	1.529	1.864	1.372	0.86	1.74	0.92	-26.37
16	France	2.077	4.431	1.266	1.16	4.14	0.85	-71.43
17	Korea, South	0.284	0.188	1.074	0.16	0.18	0.72	470.78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51290 (부분품(와이퍼 등))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24.203	16.417	36.927	100.00	100.00	100.00	124.94
1	Czech Republic	5.343	3.882	8.242	22.08	23.65	22.32	112.31
2	Germany	4.312	2.904	6.026	17.82	17.69	16.32	107.52
3	Italy	2.198	1.735	5.334	9.08	10.57	14.44	207.50
4	China	1.598	0.967	3.627	6.60	5.89	9.82	274.85
5	European Union	1.162	1.046	2.796	4.80	6.37	7.57	167.39
6	Romania	2.625	1.312	2.673	10.85	7.99	7.24	103.73
7	Japan	0.898	1.155	1.795	3.71	7.04	4.86	55.38
8	Korea, South	0.791	0.391	1.538	3.27	2.38	4.16	293.58
9	Unidentified Country	0.002	0.267	0.929	0.01	1.63	2.52	247.41
10	Turkey	1.178	0.589	0.865	4.87	3.59	2.34	47.01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70829 (기타(자동차용 새시 및 부품))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1,310.480	641.891	1,223.966	100.00	100.00	100.00	90.68
1	Japan	97.025	94.356	213.644	7.40	14.70	17.46	126.42
2	Korea, South	492.068	109.169	174.344	37.55	17.01	14.24	59.70
3	Germany	199.957	112.802	167.646	15.26	17.57	13.70	48.62
4	European Union	53.960	45.834	103.038	4.12	7.14	8.42	124.80
5	Romania	98.450	46.440	78.969	7.51	7.24	6.45	70.05
6	China	22.745	40.000	69.052	1.74	6.23	5.64	72.63
7	Italy	50.310	31.070	65.584	3.84	4.84	5.36	111.09
8	Spain	56.219	28.767	53.883	4.29	4.48	4.40	87.31
9	Unidentified Country	0.673	9.477	40.689	0.05	1.48	3.32	329.34
10	Belgium	10.364	10.595	39.645	0.79	1.65	3.24	274.20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368.721	254.973	425.379	100.00	100.00	100.00	66.83
1	Germany	92.852	64.368	82.630	25.18	25.25	19.43	28.37
2	Japan	44.576	35.403	57.655	12.09	13.89	13.55	62.85
3	China	24.778	22.378	50.432	6.72	8.78	11.86	125.36
4	European Union	41.566	24.616	45.619	11.27	9.66	10.72	85.32
5	Korea, South	45.213	22.484	32.596	12.26	8.82	7.66	44.98
6	Italy	14.914	14.433	22.732	4.05	5.66	5.34	57.50
7	Spain	5.842	7.410	13.115	1.58	2.91	3.08	76.98
8	Unidentified Country	0.110	3.969	12.997	0.03	1.56	3.06	227.47
9	United States	11.015	6.532	11.378	2.99	2.56	2.68	74.18
10	Romania	9.150	5.365	10.642	2.48	2.10	2.50	98.34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607.496	298.150	672.830	100.00	100.00	100.00	125.67
1	Korea, South	223.487	58.000	136.100	36.79	19.45	20.23	134.66
2	Germany	108.869	50.330	118.743	17.92	16.88	17.65	135.93
3	Japan	29.506	33.188	91.524	4.86	11.13	13.60	175.78
4	Slovakia	47.019	49.186	80.896	7.74	16.50	12.02	64.47
5	France	46.776	20.589	44.372	7.70	6.91	6.60	115.52
6	United States	43.368	26.009	42.458	7.14	8.72	6.31	63.25
7	European Union	2.730	9.518	37.074	0.45	3.19	5.51	289.49
8	Romania	27.449	13.536	27.379	4.52	4.54	4.07	102.27
9	China	32.371	9.210	25.867	5.33	3.09	3.85	180.85
10	Italy	11.448	12.160	18.762	1.88	4.08	2.79	54.30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105.194	75.778	131.961	100.00	100.00	100.00	74.14
1	Germany	27.146	20.403	36.936	25.81	26.92	27.99	81.03
2	Turkey	18.469	13.758	19.314	17.56	18.16	14.64	40.39
3	China	6.988	5.243	14.601	6.64	6.92	11.07	178.47
4	Japan	6.098	4.504	7.839	5.80	5.94	5.94	74.04
5	South Africa	0.418	5.228	7.367	0.40	6.90	5.58	40.93
6	European Union	6.920	3.286	7.116	6.58	4.34	5.39	116.57
7	Korea, South	5.812	4.181	7.051	5.53	5.52	5.34	68.63
8	Ukraine	4.034	2.222	4.022	3.84	2.93	3.05	81.04
9	France	2.648	2.483	3.313	2.52	3.28	2.51	33.43
10	Hungary	0.470	1.648	3.153	0.45	2.17	2.39	91.37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70894 (운전대,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179.025	117.393	260.277	100.00	100.00	100.00	121.71
1	Germany	33.894	36.353	82.513	18.93	30.97	31.70	126.98
2	Korea, South	41.967	12.738	38.615	23.44	10.85	14.84	203.15
3	France	9.584	8.060	24.622	5.35	6.87	9.46	205.48
4	Slovakia	20.764	14.575	23.691	11.60	12.42	9.10	62.54
5	Japan	16.816	14.181	22.396	9.39	12.08	8.61	57.93
6	European Union	3.895	4.149	12.092	2.18	3.53	4.65	191.45
7	China	10.867	3.859	11.198	6.07	3.29	4.30	190.19
8	United States	8.227	3.833	6.403	4.60	3.27	2.46	67.07
9	Italy	4.655	2.686	5.360	2.60	2.29	2.06	99.53
10	Czech Republic	3.161	1.931	5.162	1.77	1.65	1.98	167.28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 870899 (기타(프레임, 변속기, 클러치 등))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0	World	568.653	195.929	385.957	100.00	100.00	100.00	96.99
1	Japan	104.957	40.569	59.075	18.46	20.71	15.31	45.62
2	Germany	104.924	30.363	51.344	18.45	15.50	13.30	69.10
3	Korea, South	109.198	25.068	49.915	19.20	12.79	12.93	99.12
4	China	41.292	20.385	43.015	7.26	10.40	11.15	111.02
5	Italy	22.693	14.045	26.217	3.99	7.17	6.79	86.67
6	European Union	7.795	8.672	23.098	1.37	4.43	5.99	166.34
7	United States	29.341	7.464	19.917	5.16	3.81	5.16	166.86
8	France	16.316	7.248	19.794	2.87	3.70	5.13	173.09
9	Spain	11.362	6.744	14.826	2.00	3.44	3.84	119.82
10	Turkey	17.957	4.275	14.033	3.16	2.18	3.64	228.27

자료원 : 러시아 관세청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KOTRA자료11-027

발행인 : 홍 석 우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7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제작년도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